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7월 31일 수요일(주간) 제 380 호

신개발품 전자칼라 인등 佛心院 - 완전성 · 경제성 · 편의성 서울조계사 入口 상문주상 1층 ☎ 02)725-0250(代)

법석 조대 **마하부와 스님** 태국 왓바반달 선원장



"선정과 평정심을 계발하기 위해 몸과 마음의 관찰을 통한 지혜 수행을 병행해야 합니다. 확고부동한 마음 집중과 마음챙김 수련으로 선정과 지혜가 충분히 숙달됐을 때는 드디어 마음의 중심부를 바로 투과할 수 있습니다. 깊은 선정과 지혜 수련으로 무명은 억겁의 세월동안 절대적 권좌를 누려왔던 마음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청년불교 지원망 구성

청년은 사회의 동량이며,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렇다면 한국 청년불교의 현실은 어떨까.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18일 발표한 '신입생 특성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중 불자비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개신교는 27.6%, 가톨릭은 16.3% 순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 대한불교청년회는 지회수 감소로,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는 제대로 된 본부사무실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가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이렇게 된데는 스님들이 종권다툼을 벌이고, 주지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로비하는 데 치중할 뿐 포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찰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법회를 아주 귀찮게 여긴다. 단체가 어린이 수련대회 장소로 요청하면 대부분 사찰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새 주지가 어린이 법회를 없애려고 하여 신도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까지 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어린이 청소년 법회 해봤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스님들의 시각이 청년불교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전국 본말사 주지스님 1200여명을 대상으로 법회, 수련회, 신도회 활동, 재가단체 지원 여부 등을 묻는 포교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일부 조사 내용을 들춰보면 어린이 법회 운영 사찰은 22%, 중고등부 법회는 16%, 청년법회는 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의 미래는 밝을까' 이말에 자신있게 '예'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종단차원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단체 네트워크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다. 또 어린이 청소년 불교 활성화를 위해 법회를 장려하는 스님에게는 주지고과를 높게 반영하여 포교사찰주지에 우선 임명토록 하는 특단의 정책도 필요하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원우(취재 1부 차장)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청소년 불자 감소**

1. 청년 불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회 활동의 부진 ② 사찰의 포교 부진
③ 불교는 어려운 종교란 인식 ④ 인터넷, 게임 등의 영향
⑤ 대중문화의 영향
2. 주변의 청소년들에게 불교 신행을 권유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설문 참여: 8월 1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81호 23면에 싣습니다.

25일 새벽 용역업체 직원 등 120명 철마선원 난입

불교계, 법난규정 · 배후규명 촉구

시민단체 등 대책위 구성 진상조사

25일 송추 철마선원 난입사건에 대한 진상과 배후를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불교계는 이번 사태를 '법난'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배후자 처벌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불교계 단체 및 일반 시민사회단체들도 '진상조사대책위'를 발족시키는 등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번 북한산 철마선원 폭력사태는 25일 새벽 2시 45분 북한산 관통도로의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스님들이 농성중인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 철마선원에 자칭 정법수호회 소속 무승적자 30여명과 용역업체 직원 등 120여 명이 쇠파이프와 철근 절단기 등을 들고 난입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회룡사 스님과 해인사 하인, 수호단 불자 등 20여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몰아내고 철마선원장 수경스님과 설치미술가 최병수 씨등 4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번 사건은 승적이 멸빈된 김병호(일공), 추장만(보성) 등이 주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5일 새벽 울대리에 도착, 철마선원의 뒷산을 타고 잠입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 이들은 3시 30분 출동한 경찰에서 의해 4시 40분에 전원 연행, 26일 김병호 등 정법수호회 3명과 용역업체 직원 등 7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마선원에 난입한 폭력배들에게 폭행당한뒤 10m 높이의 망루에서 땅으로 던져져 실신한 설치미술가 최병수 씨의 사진을 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동자인 김병호는 "이번 것으로 정법수호회 차원에서 일어난 일로 신변 보호를 위해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공사를 재개하려는 LG건설 등 시공사가 배후에서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종훈스님과 조계종 공동대책위는 25일 "천인공노할 폭력을 휘두른 이번 사건은 법난"이라고 성토하고 "폭력배에 대한 엄중조사와 배후 규명, 관통도로 공사 중지, 공사의 차기 정권 이양 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철마선원 난입 사건을 비난하는 불교 및 시민사회 단체들의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북한산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계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관련자 처벌과 배후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실련, YMCA, 우이령보존회, 참여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문화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북한산농성장폭력행위진상조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 · 3면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a.com

법원, 철마선원 7일내 철거 명령

공대위 "공사금지 16일 결정과 모순… 이의 신청 낼것"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민사합의 4부(부장판사 김윤기)는 26일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단행 가처분 소송에서 "터널 입구와 출구부분인 양주군 울대리 53-11 임야, 297-1 답, 298 전, 55-5 임야에 설치된 철마선원과 의정부 호원동 79-14, 97-4 임야에 설치된 농성장을 7일 이내 철거하고 동(同) 토지를 시행사에게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곧바로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16일 법원이 북한산 통과구간에 대한 일부구간 공사중지 결정에도 불구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한데 대해 즉각 이의신청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속도로(주)는 판결직후 "법적절차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조속히 공사를 재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a.com

삼국유사 목판본들 모두 국보 · 보물 지정

현존하는 〈삼국유사〉 목판본들이 한꺼번에 국보나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24일 〈삼국유사〉 목판본 중 유일한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419호 〈삼국유사〉 '권3~5'(14세기 말)를 국보로 승격시켜 지정 예고했다. 또 같은 조선 초기 판본인 성암고서박물관(권 제2) 및 부산 범어사 소장본(권 제4~5, 현재 학계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규장각 소장본(일명 정덕본, 조선 중종 7년, 5권 완질)과 고려대 도서관 소장본(권 제3~5)을 각각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 지정예고는 〈삼국유사〉의 가치 재평가에 의의가 있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권형진 기자



◇국보로 지정 예고된 보물 416호 〈삼국유사〉 권3-5

국제불교사상사학회 창립

회장 송석구 총장, 영문학술지 등 발간

한국 불교학계가 국제 포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영문학술지와 영문서적을 간행해 한국 불교학계의 연구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외국의 불교학자 및 국제학술단체와의 지속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회장 송석구 동국대 총장)가 24일 창립된 것이다.

국내 학자 50여 명과 외국 학자 20여 명 등 국내외학자 70여 명이 참여한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는 〈한국불교전서〉를 비롯해 한국 불교 전적을 영어로 번역하고, 국제영문학술지의 연 2회 발간, 정기적인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제불교학 및 인접학문 단체와의 학술 교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철학, 사학, 미술사학, 사회학, 자연과학 등 인접 학문 분야와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교리나 역사체계에 머물렀던 불교학의 영역을 문화사상사 분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초대 회장에 송석구 동국대 총장이, 이형래 교수(충남대)와 박경준 교수(동국대)가 감사로 선출됐다. ☞회장인터뷰 4면

권형진 기자 ahnyi@buddhapa.com

시조문학 어울림 한마당

2002 만해축전 일환, 8월 4~6일 백담사

'오늘의 시조학회'가 주최하고 본사가 협찬하는 '시조 문학 어울림 한마당'이 2002 만해축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립니다. 아래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에서 펼쳐지는 행사에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02)930-6478

▶8월 4일
14:00~18:00 시조문학강좌(현대 시조의 정체성 탐구)
20:00~24:00 작작 시조 낭송, 문학캠프

▶8월 5일
08:00~15:00 청소년 시조백일장
15:00~16:00 시조창 어울림 마당
19:00~24:00 시조 몸짱 짓기 및 탐몸이

시조학회 주최 · 현대불교 협찬

조계사 대웅전 전면 해체 · 보수

조계사 대웅전이 8월초부터 전면 해체 · 보수 작업에 들어간다.

조계사(주지 지홍)는 "대웅전 지붕이 내려앉아 석가래와 상량부에 목재를 이용해 임시로 조치했으나 안전에 문제가 많고, 또 목재들이 심각하게 틀어져 있어 8월초 보수에 들어가 9월께 완전히 해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계사는 지난5월 대웅전 해체복원에 대한 문화재심의를 거쳐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다.

한명우 기자

풍산한식銅기와 가격을 대폭 내렸습니다

평당 54 만원에서 **42** 만원으로 대폭 인하
(100평 기준, 시공비 포함)
· 암기와 : 3,580 → 2,380원 / 장 (33%인하)

세계 최고 품질의 풍산한식동기와를
보다 만족스런 가격에 경험하십시오.

풍산한식동기와는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찰, 고건축물 등 한식 가옥과 주택의 미를 추구하는 기념 건축물, 일반 가옥 등에 잘 어울리는 지붕재입니다.

풍산한식銅기와는 이런 곳에 시공하면 좋습니다.
◉ 세찬 비바람과 추위로 기와가 날아가거나 동파가 심한 곳
◉ 건물 지반이나 골조가 약해 지붕의 하중을 줄여야 하는 곳
◉ 한국의 전통미와 실용성이 필요한 건물
◉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 해야하는 건물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부품 하나 하나마다 새겨진
풍산한식銅기와 마크를 확인하십시오.
풍산한식동기와는 당사 지정 전문시공사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 풍산지정 전문시공사 { 보광금속(서울) : 011-204-6238 / 성원금속(서울) : 011-445-7811 / 세주판금(청주) : 011-401-5312

문의 : (주)풍산 건축자재 담당 02-3406-5114, 011-898-9720 주식회사 풍산 www.poongsan.co.kr

사 설

문화재 관리 전담기구 절실

국보 4호인 고달사지 부도가 크게 훼손됐다. 누군가 도굴을 위해 훼손시켰다. 문화재의 도굴 또는 관리 부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끊임없이 성보가 도굴 · 도난당하는 일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몇 년 전 조계산 송광서 국사전에 봉안되었던 국사진영이 무려 16위 가운데 무려 13위가 도난당해 충격을 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충격으로 정부와 불교계가 본사를 중심으로 서둘러 성보 유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이렇듯 지금까지 성보의 도난을 막기 위해 도난 방지시설을 비롯하여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보의 도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는 근본적으로 성보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우선 현지인 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바로 옆에서 지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문화재 도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문화재 밀매구조를 뿌리뽑는 것도 필수적이다. 또한 성보 보전관리에 관한 제도나 법률을 새롭게 정비하고 그리고 보전관리를 전담할 기구를 설립, 인재의 양성과 성보 보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불교계를 비롯 정부 그리고 학계와 일반 사회의 민간인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공익법인을 설립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문화관광부 산하에 등록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더 짜임새 있고 알찬 기구가 빠른 시일 안에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산 폭거' 배후 밝혀라

25일 새벽 발생한 '북한산 살리기 정진도량' 폭력 유혈사태에 대한 불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지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을 온전히 보전하려는 스님들과 환경단체의 노력을 1백20명의 폭력배를 동원해 억압하려 한 사건은 대단히 중대한 사태이다.

이러한 일은 일찍이 없었다. 환경운동에 대해 대규모 폭력배들을 동원해 억압했던 적도, 기도 중인 수행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적도 없었다. 이익을 내는 것이 기업의 목표일지라도 지켜야 할 도의가 있다. 이번 일을 덮어두면 이익을 위해서는 종교인의 숭고한 뜻도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회의 양심과 도덕은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23개 시민 · 종교단체들은 사건 발생 이튿날 '북한산 농성장 폭력행위 진상조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폭력 행위의 배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폭력 현장을 지휘했던 몇몇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단순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폭력 행위의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조계종은 이미 이번 사건을 스님들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의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수사당국은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국립공원 자연환경과 사찰의 수행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토록 돼 있는 현 노선을 결정한 데 있다. 북한산을 관통하는 공사를 중지하고, 대안노선을 협의하라는 주장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립공원인 북한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에서 노선을 재검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스님 중심 탈피 자율성 확보 신도회가 사찰운영 주체돼야"

조계사 신도회 워크숍

'바람직한 사찰 신도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25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조계사 신도회 임원 워크숍은 이같은 물음에 해답을 찾아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워크숍에 참가한 주지 지홍스님과 사중 스님, 조계사 21개 신행단체 임원 60여명은 이와 관련한 종무원의 주제발제에 이어 허심탄회하고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는 △임원 중심 구조에서 시스템 중심 구조로 △불사나 행사 중심에서 신행공동체 중심으로 △각 신행단체간의 폐쇄성을 네트워크화를 통한 개방성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스님 중심의 관행을 과감히 벗고 신도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신행단체 간, 신도 간에 '파트너십'을 확립해야 한다는 견해도 강력하게 제기됐다.

또한 참석자 대부분은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신도회 업무 집중화, 각 신행단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사무처 강화, 신도임원 지도력 및 실무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현실에 맞는 신도회칙 개정 등을 통해 한국불교 대표 사찰에 걸맞는 신도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 내용은 대부분 직설적이었다. 신도회 임원들은 "사중의 권한 상당부분을 신도회로 이양해야 한다" "신행단체 간에 반목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역법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며 사중과 도반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주지 지홍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은 "스님, 종무원, 신도회의 역할분담이 돼야 한다. 앞으로는 신도회 중심의 사찰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신도회 스스로 정책기획 역량을 늘려야 한다" "사찰 입장에 서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 라며 신도회 임원들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을 살펴보고 있는 중국불교협회 대표자들. 이들은 "한국불교의 전통과 우수한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팔만대장경을 보니 너무나 감동적이다"며 감탄을 연발했다. 해인사=고영배 기자

중국불교협회 대표 17명 방한

사찰 · 승가교육시설 · 불교문화재 등 시찰

조계종 공식초청으로 중국불교협회 도술인 부회장, 장림 부비서실장 겸 국제부주임, 오대산 아미산 보타산 구화산등 중국 4대 산문 대표, 중국 3대불교권 대표(대승 티베트 남방), 8개성 불교협회장등 17명이 25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만찬에 참석한 뒤 26일부터 직지사, 해인사, 불국사(석굴암), 신흥사, 낙산사 등을 방문하여 전통승가교육시설과 불교문화재 등 한국불교의 현황을 둘러보고 각 사찰주지스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의를 다졌다. 김원우 기자

1200사찰 주지 대상 포교지표조사

연말까지 백서 발간, '포교지도' 자료로 활용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최근 전국 본 · 말사 1200여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법회, 수련회, 신도교육, 신도회 활동, 지역 포교, 재가단체 지원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묻는 포교지표 조사에 들어갔다.

포교원은 지난 7월 11~12일 서울 강원지역 교구 본말사 주지 연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일 개최되는 제주지역 본말사 주지 연수까지 포교지표 조사를 시행, 연말까지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포교지표 조사는 총 43개 문항, 8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계종 사찰의 포교현황에 대한 최초의 광범위한 설문조사로 도출되는 이번 백서는 포교 종책 입안을 위한 자료는 물론 포교원의 '포교 지도'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될 전망이다.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될 예정인 포교 지도는 사찰의 각종 포교활동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다. 불자가 원하는 다양한 신행 정보(각종 수련회, 계층 및 연령별 법회, 문화행사, 신도교육, 사회봉사 등)를 검색하거나 지도를 클릭해, 원하는 사찰에서 신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이버 사찰신행 종합 안내소' 역할을 하게 된다. 김재경 기자

문화부 차관에 박문석씨



19일 문화관광부 차관에 박둔석 전 종무실장(55 · 사진)이 은명됐다.

박문석 차관은 문화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 종무실장 등 문화관광부 요직을 두루 역임하는 등 합리적인 사고와 곰곰한 일 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승진했다

99년 계간 '오늘의 문학'을 통해 시인으로도 데뷔한 박차관은 〈뉴미디어시대의 방송과 저작권〉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등을 저술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사찰운영, 공동체정신으로…

한국불교 총본산 성역화 불사 견지동일대 부지매입 100억 모연

조계종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불사를 종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00억원 목표의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 불사 모연운동'을 전개한다.

조계종은 22일 "이달부터 2003년 12월까지 18개월에 걸쳐 진행하는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 불사 모연운동을 전개하겠다"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과 더불어 견지동 45번지 일대 부지매입등을 통해 주변지역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연기구로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증명 종정스님, 위원장 총무원장, 추진위원 교구본사 주지)를 구성키로 했다.

조계종은 기금모연을 위해 ARS 모금전화 개설과 기념관 1평 짓기운동, 원불모시기, 관세음보살 모시기, 1인1벽돌쌓기, 땅한평 사기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종비생 관리감독 강화

조계종, 전원 수행관 입방

조계종 교육위원회(위원장 지오)는 22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동국대 종비생 관리 방안과 관련한 교육위원 간담회를 열고 종비생 전원을 수행관 입방시키는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위원들은 △종비생 전원이 의무적으로 수행관에 입방토록 하며, △수행관장이 상주해 수행점수를 학점에 반영하며 △내년부터는 일반 학생이 불교대학 재학 중 출가하는 경우 1학년 출가만 허용키로 했다. 교육원은 이같은 내용을 교육원회의에서 검토한 뒤 2학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www.moxacau.com

1,400만 흡연가들의 대부분이 간절히 바라던 담배 대용품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1갑 3,000원

쑥 은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식물입니다.

담배처럼 피우면서 쑥향을 음미하고 니코틴이 전혀 없는 쑥 100% BLUE(블루)는 금연초나 담배가 아닙니다.
국민 형제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사용방법
담배처럼 피우되, 연기를 빨아 머금고 잠깐 있다가 품어 낸다.
녹차 등 여러 종류의 차와 음료수를 마시면서 피우면 더욱 좋다.

■ 본 제품 설명
세계 흡연가들을 위하여 세계 최초로 청청스님에 의하여 발명된 제품으로서 대한민국, 중국, 일본, 미국에도 특허 출원중이며,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기술평가까지 결정 등록된 제품입니다.

쑥은 국초(國草)이고 사람 몸을 이롭게 하는영초(靈草)이며 환상의 식물이다.

※뜸쑥이 탈 때 생겨나는 불빛은 '적외선'과 같은 효과를 낸다.
※뜸쑥을 태울 때 나오는 쑥 연기는 각종 균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본 제품은 방안에서 피우면 향 대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제품 구입은 아래 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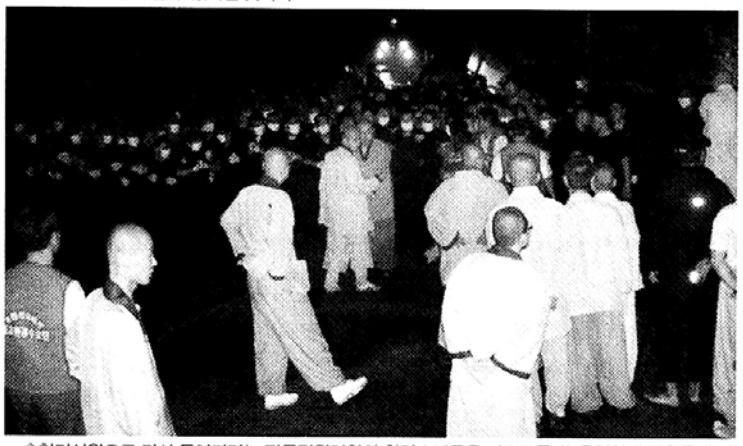
市 · 道	구 역	연락처	
		전 화	휴대폰
서 울	강남, 송파, 서초, 강동	02)400-9043	019)263-3875
	광진, 동대문, 성동	02)452-9453	011)479-0950
	관악, 영등포, 동작	02)875-8596	011)788-8596
	노원, 도봉, 중랑, 종로, 중구, 강북, 성북	02)948-6345	018)339-1760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	02)358-5875	019)330-2075
	구로, 금천, 경기 광명	02)830-5566	011)9985-3303
	양천, 강서, 부천	02)683-9229	011)9988-2050
경 기	고양, 파주	031)905-2882	011)448-1562
	안산, 시흥, 군포	031)485-7909	011)725-7909
	안양, 의왕, 과천	031)416-0762	011)358-0761
	수원, 성남, 하남, 광주시	031)705-3533	017)208-1746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031)877-6999	011)9988-2050
	안성, 평택, 용인, 오산, 이천, 여주, 화성	031)671-2688	017)215-0950
	구리, 남양주, 청평, 가평	031)876-4705	011)811-8466
인 천	인천광역시	032)434-4340	011)630-8868
	강화, 김포		018)362-7036
강 원	강원도	033)671-8780	017)215-8780
대전 · 충남	대전광역시, 충남	042)632-5168	011)403-5558
충 북	충북	043)854-5585	017)246-5136
광주 · 전남 · 전북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	063)843-0314	011)672-4955
부산 · 경남	부산광역시, 경남	051)521-1633	011)561-4065
대구 · 경북	대구광역시, 경북	053)643-0809	018)519-7758
울 산	울산광역시	052)223-5470	011)881-1906

■ 발명가 : 대한불교 견강복지회 대표 청청 고윤암
제조원 : (주)황금산트레이드 판매원 : 블루판매주식회사 ☎02)663-9229

'불교계 내분' 호도·공사재개 포석

철마선원 난입 이유·배후 조속히 밝혀져야

25일 새벽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해 스님들이 기도 중인 철마선원에 승적을 상실한 무승적자 30여명과 용역회사 직원 90여 명이 난입,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관련해 그 이유와 배후 세력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로 연행된 김병호(일공, 前 정화개혁회의 호법부장) 등의 진술과 전후 과정 등을 종합해 볼때 '환경 수호도량 철마선원'을 새벽에 급습한 데는 이 사건을 불교내 분쟁으로 조작하여 여론을 호도시키고 불교계의 지도력을 약화시켜 어떻게든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철마선원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전국강원연합회 학인스님들을 마스크를 쓴 용역업체 직원들이 막고 있다. 사진제공= 불교환경연대

'북한산 살리기를 위한 조계종 공동대책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재계와 경찰·용역회사 등이 결탁한 불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대위 부위원장 현응스님은 "이번 일은 현정권 실세와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업체인 LG건설, 하청업체인 에덴건설 윤일정 사장, 용역업체인 엘리트, 승적을 박탈당한 김병호, 추장만(보성) 등이 모의해 꾸민 일이다"며 "이번 폭력사태에 대한 자금을 제공한 세력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이번 사건은 누군가 스님으로 가장한 폭력배들을 앞세워 불교계 내분 양상으로 호도한 후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포석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철마선원 입구에서 서성거리던 승려복장의 사람들이 의정부 경찰서로 연행돼 들어가고 있다.

반면 서울고속도로(주)는 25일 "이번 사건이 조계종 내에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스님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병호는 연행된 후 "이번 행동은 관통도로를 뚫어 국민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자발적으로 준비했다"며 난입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용역업체 직원 1백여 명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폭력을 휘둘러 사법 처리되는 등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와 같은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25일 철마선원에서 폭행을 당한 설치미술가 최병수 씨도 "철마선원에 출동한 경찰은 폭력배를 구속하지 않고 방조는 물론 오히려 협조를 하는 듯한 태도를 시종일관 보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LG건설 등 시공사와 정치권, 폭력조직 간의 결탁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김병호가 용역업체에 선수금으로 지급한 1백만원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을 맡은 검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밝혀낸다면 배후가 누군지 진상이 드러날 전망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공대위 "정 재계·경찰·용역업체가 결탁"
최병수 씨 "경찰들 늑장 출동, 시종일관 방조"

"흉기로 스님폭행 … 이럴수가"

불교·환경 단체들 "강력 대응" 일제 비난 성명

철마선원 폭력사태에 대한 불교계의 반응은 경악 그 자체다.

사건 발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계종과 북한산 살리기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폭력배들이 수행자를 흉기로 폭행하는 이번 사태는 너무나 충격적이다"며 "이번 사태를 법난으로 간주하고 시공회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한불교청년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불교계 단체들도 일제히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진상규명과 배후자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실련,국립공원지키는시민의모임, YMCA, 문화개혁시민연대, 우이령보존회, 환경운동연합, 조계종공대위 등 23개 단체도 26일 '북한산 농성장 폭력행위 진상조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에 자금을 댄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해결은 정부와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봐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_?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요!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쉽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요
해산아봐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봐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시민 저항권' 차원 저지
'제2철마선원'으로 대처

26일 결정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단행' 판결과 관련, LG건설 등 시공회사가 철마선원을 철거하더라도 공사를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환경법률센터 여영학 변호사는 "다른 단체가 철거 명령이 떨어진 철마선원 외 가까운 다른곳에 새로운 농성 건물을 짓는다면 이에 대한 건축물 철거 소송이 또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지난 16일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중지 판결'에 따라, 공사로 피해를 입게되는 회룡사 등이 시민저항권 차원에서 공사 진행을 막는다면 공사 재개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7일이내 철거해야 하는 철마선원의 앞으로의 운명은 제2, 제3 철마선원 개설이라는 불교계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새로운 국면 진입

법원, 철마선원 철거결정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이 26일 서울고속도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7일 이내에 철마선원 등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서울고속도로가 법원집달관을 통해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단행' 가처분이 판결되는 대로 법률에 따른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서울고속도로(주)는 가까운 시일 내에 철마선원 등에 대한 자진철거를 이끌어내고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조계종 공대위'는 "많은 환경·시민 단체와 국민의 여론, 언론 방송까지 북한산국립공원을 보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즉각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따라서 회룡사와 홍법사 구간에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중지' 판결을 근거로 공사 중지와 우회노선 검토위 결성 등을 촉구하는 불교계와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단행' 판결을 근거로 공사를 재개하려는 LG건설 등 시공사와의 대결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유신 기자

야외 석조문화재 보호 시급

내부 유물 노린 도굴꾼 부도 등 잇달아 훼손



◇고달사지 부도의 훼손 전 모습.



◇도굴꾼들의 훼손후 상륜부 보주와 보개, 귀꽃 한 개가 사라졌다.

최근 국보 4호인 경기도 여주 고달사지 부도가 도굴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야외에 있는 석조 문화재의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20일 "고달사지 부도 내부의 유물을 노린 도굴꾼들이 지붕돌(옥개석)을 들어내려다 부도 윗부분(상륜부)의 구슬 장식(보주)과 덮개 장식(보개)이 땅에 떨어져 조각났고, 지붕돌 귀퉁이를 장식하는 귀꽃 한 개도 부러졌다"고 밝혔다. 특히 덮개 장식은 가로, 세로 15cm의 3조각으로 파손됐으며 한쪽 면에는 심한 균열이 생겼다. 또 도굴 때문에 부도가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상태다.

도굴꾼에 의한 부도 훼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3월에는 국보 54호 전남 구례 연곡사 부도가 역시 도굴꾼에 의해 부도 윗부분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굴꾼들이 이처럼 탑과 부도를 노리는 것은 탑과 부도 속에 안치된 불경이나 불상, 사리함 등의 문화재를 탐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탑이나 부도 등 대부분 석조 문화재는 일반인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산 속에 있거나, 관리인조차 제대로 없는 폐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뚜렷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영호 문화재위원(한국교원대 명예교수)은 "몇몇 시행하고 있는 관리인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폐사지의 경우 가장 가까운 마을의 이장이나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인으로 위촉해 문화재를 매일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문명대 교수(동국대)는 "고달사처럼 규모가 큰 절터의 경우 절이 있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며 "발굴조사가 끝난 폐사지 근처에 조그만 절을 지어 스님들이 상주하면서 유물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서 관리인 위촉 제도화
폐사지에 적은 절 건립 스님이 관리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교수는 한때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최근 없어진 관리인 제도를 예로 들며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안에 정책 개발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재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도굴꾼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문화재를 '돈'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도굴꾼들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잡는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02년 1월 현재 석조 문화재는 64점이 국보로, 447점이 보물로 지정돼 있으며 국가 지정 건축물 문화재의 80%와 보물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제 1기 불교의식(범음·범패·작법) 전수생 및 학인 모집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는 전수생 및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연수반(1 년) 사물(목탁 요령, 태징, 북, 법고)다루는 법,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사십구재 전과정)(점안식)

전수반(2 년) 상주권공, 각배, 영산, 천수바라, 춤, 나비춤, 법고춤(전과정)
※ 전수반은 연수반 수료자거나 동등의 과정을 이수한자에 한함.

◈ 교수진 :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10호 보유자 박일초 스님 직강

● 모집인원 : 00명 수시모집 (팩스접수 가능)
● 매주 강의 요일
연수반 : 월·수 (오후 3시 ~ 5시)
전수반 : 화·목 (오후 3시 ~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접수기간 : 2002년 8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 개강일자 : 2002년 8월 26일 오후 3시

● 본교는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 합니다.
● 본교의 성적 우수자는 심사를 거쳐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전통예술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 우리은행 120-188157-02-201 예금주 : 이 영 숙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72-8 다원빌딩 3층(강서보건소 옆)
전 화 : 02)3665-0557 / 032)523-8067(인천)
FAX : 02)3665-0546 / 032)523-8066
H·P : 011)788-2929

인천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제10호 범패. 나비춤. 서울전수관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장 박 일 초

일 주 문



대원사 주말수련회 개최

현장 대원사 주지는 8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5차에 걸쳐 명상음악과 함께하는 주말수련회를 개최한다.



포교사단 홈페이지 설명회

김대중 포교사단 단장은 18일 조계종 포교원에서 홈페이지(http://pogyosadan.org/) 설명회를 개최했다.



세계생태학회서 발표

김재일 두레생태기행 대표는 8월 11일부터 열리는 제8회 세계생태학대회에서 '민족의 생태적인 삶'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종래 부국장 정년퇴직 조계종 종무행정 터 닦아



1970년 조계종 총무원 종무직원으로 들어와 33년 동안 조계종 종무행정의 기반을 닦은 조종래(65·사진) 총무부 부국장이 30일부로 정년퇴직했다. 6월 11일 공식퇴임식을 가진 조 부국장은 "고향으로 내려가 과수원을 운영하며, 서예공부에 매진하고 싶다"는 향후 거취를 밝혔다.

조 부국장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책임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 스스로가 주변에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 이웃과 종단, 국가가 행복해진다"고 후배종무원들에게 보살의 마음으로 종단 업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자신의 수행도 열심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인 사

경주 불국사 △부주지=법달 △총무국장=장주 △기획국장=정문 △교무국장=종천 △재무국장 겸 석굴암 주지=종광 △사회국장=신행 △사서=정견 △호법국장=성밀 △교육국장=정법 △포교국장=성광 △도감=종덕 △회계=성안 △별좌=법진 △불국사 석굴암 연구소장=정휴 △의전=종근·재원 △송무=종문 스님

나눔의 집 △역사관 자문위원 위원장=이인자 △역사관 자문위원 부위원장=강순원 △역사관 전시자문소위원회=혜조스님 김경자 이인자 정원철 △역사관 연구자료소위원회=해도스님 강정숙 류승무 한원상 △역사관 프로그램소위원회=강순원 강혜정 표창진 이경숙

"세계 불교학계 중심축 될 것"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송석구 초대회장



"세계 불교학계의 중심 축 역할을 할 수 있는 학회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24일 창립한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초대 회장에 송석구 동국대 총장(사진)이 선출됐다. 송석구 총장은 "1600년 한국 불교의 역사와 사상, 문화를 세계를 알리기 위해서는 국내 학계의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는 한국 불교학계에선 첫 국제학회다. 연 2회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술지는 영문으로만 낸다. 또 올해 말 〈원효전서〉 번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불교전서〉를 비롯한 한국불교전적을 차례로 영어로 번역 출간할 계획이다.

한국불교전서 등 영역 출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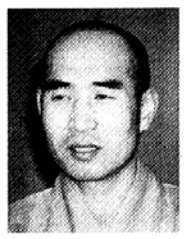
송 총장은 "올 초 동국대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에서 첫 영문국제학술지를 발간했지만 BK21 사업이 끝나도 영문학술지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고민이 학회 창립으로 이어졌다"며 "세계 불교학계에 한국 불교학을 알릴 수 있는 영문 학술지와 영문서적을 꾸준히 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 총장은 "이제 불교학을 단순히 교학이나 역사적 맥락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사상, 역사를 포괄하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현상으로 폭을 넓혀야 한다"며 "학회를 불교와 관련된 모든 학자들의 국제적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소수정예 엘리트 인재 양성"

금강불교학원 사무처장 월장 스님



"정원이 100명이므로 전국에서 제일 작은 정규 대학일지는 몰라도 시설이나 학생들 편의시설만은 '최고'가 될 것을 자부합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현재 논산시 두마면 유동리 금강대학교 건설 현장에서 마무리공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학교법인 금강학원 사무처장 월장스님(사진)은 "불교정신과 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님의 학교건립 이념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어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서울대와 부산외국어대 총장을 지낸 박봉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초대 총장으로 임명하고 엄격한 선발조건을 거친 9명의 박사 학위 교수를 채용하는 등 명문대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원 외로 20명 정도의 외국인학생들을 따로 선발 기숙사에 같이 있도록 해 금강대 학생들이 졸업하게 될 때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하나 이상 마스터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외국인학생 선발을 위해 외국 대학과 불교잡지에 금강대학교를 널리 홍보할 계획도 귀띔했다.

불교정신 구현 … '최고 대학' 지향

월장스님은 "대학이 늘어나면서 정원 미달사태가 벌어지는 기존의 지방대도 여럿 있지만 금강대는 정원을 채우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실력있는 학생 선발에 주력해 소수정예로 엘리트를 양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방송듣고 힘·용기 얻기를"

청주불교방송 '일요법회' 출연 일봉 스님



"절에서만 하는 법문은 청중들이 한정돼 있지만 방송을 통해 법문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훨씬 더 포교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불교방송의 인기 프로그램 '일요법회'(일, 오전 10시~오전 11시)와 '지혜의 향기'(토, 오후 2시40분~오후 3시)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방송 포교를 펼치고 있는 일봉 스님(청주 광덕사 주지·사진), 지난 5월부터 한달에 한번씩 초하루 법문 내용을 녹음해 '일요법회' 프로그램에서 방송한다. 5월에는 '마음을 깨닫는 법', 6월에는 '칠불암 이야기'를 주제로 스님의 신행 경험담을 섞어가며 특유의 걸출한 입담으로 법문해 청취자들의 호응이 높다. 특히 8월 11일에는 '부모은중경'을 주제로 방송한다. 또 격주 토요일마다 방송되는 '지혜의 향기' 시간에는 경전이나 선지식들의 조사어록 중에서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발췌해 20분동안 들려주며 해설도 곁들인다.

"비록 한 달에 3~4회 정도 방송하지만 그것을 위해 자료를 찾고 공부하는 준비 시간은 꽤 많이 듭니다. 그러나 청주불교방송의 가청 인구가 8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알차고 내실있는 방송 포교를 위해 땀을 흘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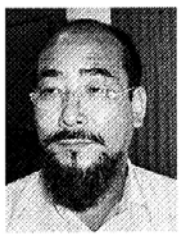
월 1회 군법당·교도소 들러 법문

일봉 스님은 방송 도교외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군법당과 교도소를 돌며 법문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아이들에 전통놀이문화 교육"

전통문화체험학교 연 이점원 교수



"획일적인 서구교육의 잣대에 밀려 '솟대는 왜 세우는지', '성황당은 왜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싶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19일, 폐교된 경주 천촌분교 자리에 경주전통문화체험학교를 개교한 이점원 교수(동국대 경주캠퍼스·사진)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을 이제야 하게 되었다"며, "컴퓨터 같은 놀이기구 없이는 놀지도 못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전통 놀이문화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토, 일요일 무료로 운영되는 전통문화체험학교는 연날리기, 팽이치기, 솟대세우기, 토기·토우 등 전통놀이 도구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강의, 토론 등을 통해 우리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

방문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2학기부터는 아예 평일에도 수업을 진행해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평일에는 인근 초등학교의 아이들을 위한 특화된 전통문화교육의 장으로 키워나갈 계획임을 밝힌 이 교수는 "2학기부터는 전문가들에 의한 문화강연, 슬라이드 상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팽이 등 직접 만들고 놀게

전통문화체험학교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불사(佛事)'라 생각해 수행하는 자세로 이 일을 계속하겠다는 이점원 교수는 매일아침 부인과 함께 인근의 암자를 찾아 108배를 올리는 독실한 불자다.

경주= 박원구 기자



대승종 포교단, 불우이웃돕기 성금

대승종 포교단 방범기동순찰대 미아8지대(대장 정하자)는 25일 서울 삼양파출소에서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에게 장학금, 생활지원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일일찻집 수익금과 회원들의 보시금으로 모아졌다. 청소년 선도와 지도를 위해 89년 발족한 대승종 미아8방범대는 30여 회원이 매년 두차례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다.



광동학원 3개 학교 교직원 수련회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은 19일 법인 산하 3개 학교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 수련회를 가졌다.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의 특별법문과 총무 여산 스님 특강, 찬불가, 습의와 토론 등으로 진행된 이날 이사장 일면 스님은 "후학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증심사 산사음악회 '풍경소리 1'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는 생명 가치를 나누는 무등산 증심사 산사음악회 '풍경소리1'이 24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무등산을 사랑하는 이들(대표 증심사 주지 일철스님·임의진 강진 남녘교회 목사)이 주축이 돼 무등산 보존운동의 한 방편으로 마련한 산사음악회는 매달 셋째주 토요일 오후 생명을 살리는 환경음악회로 계속된다.

주용직 광주 지사장



함양 불교사암련 장학금 등 전달

함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일)는 22일 함양군수실에서 천사령 함양군수에게 함양 명문고 육성 장학기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1천여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함양사암연합회, 함양불교연합신도회, 함양군 공무원불자회, 불교대학생회와 공동으로 지난 5월 한달간 자비의 등 달기 행사를 열어 얻은 수익금이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2002 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전법인을 양성하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1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불교학과	근본불교 대승불교 화엄사상 인도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 불교개론 불교미술 선종사상 밀교 포교방법론 등 18과목	
한문학과	한문법(1) 한문법(2) 명심보감 장자 주역 발심수행장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논어	
불교미술학과	①불화1(단청), ②선화(달마도) ③불화2, ④불화3(이론과 실기)	
우리춤학과	우리춤, 승무, 북과장단	이애주(서울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및 접수
불교학과 200명 (정규반 100명, 주간반 50명, 통신반 50명) 불교한문반(50명) 불교미술학과(30명) 불교우리춤과(30명)	불교를 적극 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 2002년 8월 3일까지 입학금 200,000원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우리춤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불교미술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학일시
2002년 8월 10일(토요일)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 불교학과)

5. 원서교부처
● 본 대학 사무국 :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조계사 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쉼터 064)749-4455
※ 특전사항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과목	· 한문법(1) : 한자어의 즉사관계 · 한문법(2) : 한문한문장의 구조관계 · 명심보감 : 자녀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 논 어 : 공자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한문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 · 금강경 : 세계화된 문법원리에 의거해서 직역에 충실한 학습 목표 · 법화경 : 방편품, 관세음보문품등 한문법 적용 · 화엄경 : 십지품, 여래출현품등 한문법 적용 · 장자, 주역, 반야심경
교수진	· 심재동 교수(동국대), 한정섭 법사 · 송찬우 교수(승가대), 무진장 스님, 김병조 교수

불교미술학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이론편	· 불교미술사(인도, 티벳, 돈황, 중국, 남방) · 고려불화, 조선불화, 현대불화 · 불화제작의 이론(단청, 화엄변상도, 만다라)
실기편	민화, 단청, 사천왕, 8부중, 팔상성도, 보살상, 부처상, 영산변상도, 정토변상도, 화엄변상도, 만다라

우리 춤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지도교수	이애주(서울대 교수) (중요 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예능 보유자)
교과목	① 우리춤 기본(몸놀림의 기본 토대 교육) ② 승무 기본(염불가락, 타령가락, 굿거리 가락) ③ 작법 기본(춤의 기본 사위와 바라놀림) ④ 북과 장단기본(북놀림과 우리 장단의 기본)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포교현장의 법사양성(3년과정)
2002년도
동산불교 경전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과목	요일	개설경전	교수	비고(개설과목)
불교학과 (극락장엄경) (화엄경)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극락장엄경(아미타경·무량수경)	최봉수 교수	극락장엄경(1)(2)(3)·법화경(1)(2)(3)·금강경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신화엄경론(이통현장자)	한정섭 법사	신화엄경론(1)(2)(3)·화엄경 약찬게, 법성게·화엄십지품
최봉수 교수의 근본불교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아함경(12연기설)	최봉수 교수	아함경·반야경·법화경·화엄십지품
송찬우 교수의 대승경전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능엄경(1)	송찬우 교수	능엄경(1)(2)(3)·금강경·유마경(1)(2)
인도-티벳어학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오후 7시	산스크리트어	최종남 교수	산스크리트문법, 필리어문법, 티벳어문법, 법화경강독, 잡아함강독, 보리도차제론강독

2. 모집방법 및 전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2년 7월 20일~ 2002년 9월 2일(월) [서류전형]	· 매주 월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7시

3. 개강일시 ● 불교학과 : 2002년 9월 2일(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2002년 9월 5일(목) 오후 4시
4. 입학금 일십만원
5.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연구원 졸업장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정비창불자회 자비원생 초청 시승식

부산철도차량정비창 불자회(회장 최비석)는 25일 부산 통도사 자비원 어린이집 원생 87명을 초청해 회사 견학과 객차 시승식을 가졌다. 불자회는 디젤차량국 기계시설과와 수송차량국 기계시설과 등 정비창 안내와 점심 식사, 기념 티셔츠 등을 제공했다. 최비석 회장은 "어린이 불자들의 견문을 넓히고 자긍심을 길러주기 위해 산업현장에 초대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불교회 1주년 법회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천승범)는 20일 광주 향림사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미창립 경찰서의 불교회 창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는 지난해 6월 창립 이후 강진경찰서 등 관내 경찰서 불교회 창립을 지원해 왔다. 이날 법회에는 천운(조계종 원로의원) · 도영(조계종 포교원장) 스님과 300여 전남지역 경찰불자들이 동참했다.



잠실승무소 법우회 환경법회

서울도시철도공사 잠실승무관리소 불교삼정회(회장 한성수)는 15~16일 양평 용문사에서 환경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동참한 20여명의 회원들은 용문산 일대의 쓰레기를 치우며 환경 보존 의지를 실천했다. 박창수 고문은 "환경법회는 불교사상에 입각해 자연과 내가 돌이 아닌 하나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면서 의미를 되새겼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륜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휴가를 心身재충전 기회로

직장불자들 피서 대신 참선수행·봉사활동

가족과 강원도 사찰 7~8곳 순례
다르마법우회 송광사서 정진
해남 미황사 한문학당 자원봉사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 류태곤 총무는 8월말에 갖는 휴가기간 동안 서산 안면암에서 머물 계획이다. 가족과 함께 지난 생활을 돌아보며 참회와 발원의 기도를 할 생각이다. 이미 휴가를 다녀온 성북경찰서 성불회 천수호 포교부장은 10여년전부터 함께 신행활동을 했던 도반들과 곡성 태안사에서 참선과 108배로 마음을 가다듬으며 휴가를 보냈다. 한여름 더위를 잊는 피서를 절에서 보낸 셈이다.

이처럼 휴가기간을 이용해 사찰을 찾는 직장인 불자들이 늘고 있다. 자원봉사, 기도, 휴식 등 절을 찾는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휴가도 신행을 위한 시간'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사찰을 찾는다는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 박건희 총무. 그는 매년 절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휴가를 보낸다. 지난해 송광사에 이어 올해도 가족과 함께 해남 미황사 한문학당 자원봉사에 지원했다. 경찰 업무로 길들여진 습관과 거칠어진 말투를 절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순화시키기 위함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해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더라도 큰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법무부 불자회 임장수 부회장은 '가족들과 떠나는 성지순례'에 나선다. 청평사를 거쳐 강원도지역 7~8곳의 사찰을 순례하고, 덕망 높은 스님들을 친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경북지역 동화사, 은해사 등 사찰 7곳을 순례하면서 헝언하기 어려운 감동을 느껴 올해에도 가족과 함께 다녀오기로 했다.

대전시청 불자회 류택열 총무도 휴가 때마다 절을 찾아간다. 업무로 쌓이는 짜증과 스트레스를 풀어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8월 3~4일 당진 흥국사를 찾아가는 류 총무는 기도와 참선으로 일과를 보낼 예정이다. 매년 아이들과 함께 다니다보니,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절에 가자고 졸라댈 정도다.

오로지 불교의식과 수행을 체험하고 싶어 단체가 한꺼번에 절을 찾는 경우도 있다.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2년동안 연수생활을 하는 사법연수원 33기 다르마법우회가 이같은 사례. 다르마법우회는 대부분의 회원이 직장불교 초보자로 구성됐다. 이들에게 불교는 어렵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송광사 여름수련회다. 김형남 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회원들은 연수생방학을 이용해 송광사에서 정진할 계획이다. 수련회에 자원한 회원들은 4박 5일동안 불교의식과 수행을 몸으로 체험하고 새로운 불자로 태어나겠다는 각오다.

법무부 불자회 임장수 부회장은 "행락지 피서는 짜증과 피로만 쌓이는 경우가 많아 휴가답지 못한 휴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평소 가보고 싶었던 사찰과 스님들을 찾아 뵙고 법문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휴가를 의미있게 보내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세무사불자회·국세청보리회
8월부터 공동법회 갖기로

조세관련업에 종사하는 불자들이 연합활동을 통해 모임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세무사불자회(회장 정구정)와 국세청 보리회(회장 최양섭)는 20일 봉은사에서 법회를 갖고 8월부터 공동법회를 갖기로 했다. 6~7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직장직능 임원 및 지도자수련회에서 의사를 타진한 이후 회원들의 여론 수렴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이들 두 단체는 업무상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데다가 세무사불자회 회원 절반 이상이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갖고 있어 교류를 이끌어 냈다. 보리회 출신 세무사도 상당수 활동하고 있는 점도 도움이 됐다.

세무사불자회와 보리회는 공동법회 수준으로 교류의 물꼬를 텄지만, 성지순례, 수련회 등도 함께 열어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무사불자회 정구정 회장은 "사회봉사와 무료 상담 등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세무관련업계에 종사하는 불자들이 연합활동을 갖게 돼 큰 힘을 얻게 됐다"면서 "보리회원들이 퇴직하더라도 세무사불자회와 연결되는 신행의 연장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법륜교수불자회
정기총회…새 임원진 선출

대구 · 경북지역 교수불자 모임인 법륜교수불자회는 20일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8대 회장에 강수균 교수(대구대 언어치료학과)를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김상달(영남대), 조현춘(경북대), 도태성(영진전문대) 교수를 뽑았으며, 박용억(경산대), 이준일(대구보건대) 교수를 감사로 선출했다. 실무급 이사는 신임 회장단이 추후 선임하기로 했다.

또 모임 활성화를 위해 수행중심의 사업계획을 빠른시일내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법륜교수불자회는 총회에 이어 수련회를 가졌다. 60여 회원 및 가족이 동참한 수련회는 108 정근, 좌선 등으로 진행됐으며, 일수스님의 '선이란 무엇인가' 법문과 최영식 문화재위원의 아(啞)자방 특강도 실시됐다. 참가자들은 쌍계사를 참배한 뒤 일정을 마쳤다.

"수행중심단체로 거듭날 것"

법륜교수불자회 신임회장 강수균교수



"우리 교수들에게 상구보리 하화중생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익혀 학문연구나 제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법륜교수불자회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된 강수균 교수(59 대구대 언어치료학과)는 수행중심의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복되는 행사를 축소하고 중점사업을 정해 누구나 쉽게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격월로 진행된 성지순례를 더욱 강화해 여름 · 겨울 수련회로 개최할 것과 법륜불자교수회의 역사라 할 수 있는 창간호부터 현재 20호까지 발간된 회지를 합본으로 제작 활동상황을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강의가 없는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부인과 함께 경전을 읽고 108배를 하는 강 교수의 돈독한 신심은 주변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다. 연구실에 있는 경전을 보고 동료교수들이 불교학과 교수가 아니냐며 농담을 던질 정도. 정년퇴임 후에는 불교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게 강교수의 바람이다. 대구=박원구 기자

동참 쉽게 할 수 있는 사업 수립

공무원불자들 '템플스테이' 체험
대전광역시청 직원 등…상설화 앞두고

내국인으론 처음으로 대전과 경북지역 공무원 불자들이 전통사찰 체험 프로그램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템플스테이 상설화를 앞두고 공무원불자들에게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

대전광역시청과 중구 · 동구 · 서구 · 대덕구 · 유성구 등 5개 구청 공무원불자들은 20~21일 공주 갑사에서 템플스테이 체험행사를 가졌다. 프로그램은 발우공양, 참선, 불교무술 등 월드컵 기간중 외국인들에게 선보인 그대로 실시됐다. 대전지역 공무원 불자들은 신흥암을 참배하고 회향했다.

경북도청과 경주 김천 안동 구미 등 경북지역 10개 시 · 군공무원불자회도 20~21일 김천 직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짧은 여정 긴 여운, 하룻밤 출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는 130여 회원들이 참석해 의룡스님(직지사 강주)의 금강경 강의와 1080배, 참선 등 철야정진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산내암자인 중암까지 산행, 조실 관응 큰스님을 친견했다.

경북도청 불자회 편창범 총무는 "불자로서의 신심을 북돋고 동료불자들과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는 좋은 자리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 모임에선

전남도청불자회 중국 성지순례

전남도청공무원불자회(회장 박재순)는 8월 5~10일 중국 오대산, 대동, 서안, 베이징 등 성지를 순례한다.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순례에는 26명의 회원들이 동참한다.

교사불자연합회 하계 수련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8월 10~12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불교복지와 환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에서는 초발심을 낸 교사를 위한 108 정근, 수계식과 현각(소쩍새마을 원장), 현응(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주경(조계종 포교국장) 스님 등의 특강이 마련된다.

서초경찰서 서불회 창립2돌 법회

서울 서초경찰서 서불회(회장 최용일)는 20일 경찰서내 법당에서 창립 및 법당개원 2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는 관문사 주지 춘광스님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서불회는 2000년 7월 2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한 이후 회원확대와 모임 활성화에 나서 현재 50여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30명 ■통신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통신80명		
	4년	■통신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4년	■주간30명 ■야간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30명		

2.학교연혁

1989.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지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지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지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지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183명 지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9. 중국 한의대 본과 34명 합격
2002. 2. 제11회 졸업생 배출
2002. 9. 중국 한의대 본과 50명 합격(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본과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2002년 8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02)511-2026~7 FAX.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 화 불 교 대**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
9월 본과(학사)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건강진단서(영문)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여권용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학사 졸업자 한함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한국한의사 시험 2005년3월예정(국회법통과)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2년 8월 23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석사과정 졸업자는 중의사고시 시험가능 1년인턴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25-6798167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7 팩스: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2002. 8.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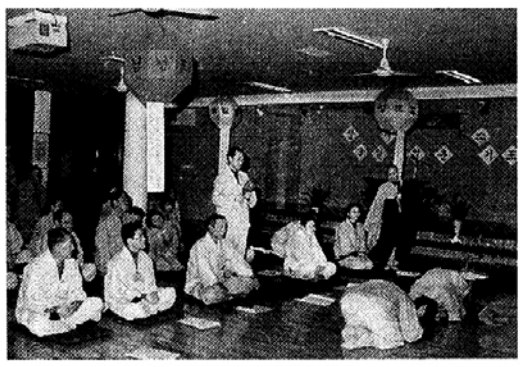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7월-인욕의 달
· 기꺼운 불편 감수
· 탐욕과 성냄 다스리기
· 하심과 관용
· 인욕통한 몸·마음의 해탈

인욕통한 몸·마음의 해탈



◇인욕과 하심 공부의 기본인 절 하기를 배우는 포교사 연수생들.

"인내하고 하심하며 간절히 도를 찾던 행자 시절이 가장 도심(道心)이 충만한 때야."

"'초발심을 낼 때가 바로 깨달음'이라는 말은 절대 빈 말이 아니지."

노스님들이 일생의 살림살이를 회고하면서 후학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주는 말이다.

사미부터 고승 대덕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곁에 두고 마음가짐이 흔들릴 때마다 열어보는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에서도 인욕(忍辱)과 지계(持戒), 정진(精進)을 발심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덕목으로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원효 스님은 이 책의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서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욕과 즐거움을 헌신짝같이 버린다면 사람들은 그를 성인이라고 믿고 존경할 것이며, 사람으로서 행하기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어 행한다면 부처님같이 존중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대지도론(大智度論)〉에는 2가지의 인욕을 말하면서, 참된 인욕 바라밀을 닦으면 초지(初地) 보살은 7, 8, 9지(地) 수행 정도의 '무생법인'을 증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인욕이 어느 경지에 이르면 세상이 주는 고통을 감수하고,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운 감정이 사라진 아주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얻게 된다. 나아가 인욕을 몸으로 완전히 익혀 특별히 애쓰지 않고도 몸과 마음이 평온할 수 있으면 해탈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인욕 바라밀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이익은 자신의 상(相)을 여의게 된다는 점이다. 즉 거짓된 나(我)의 관념을 벗어나 스스로가 본래 공(空)한 존재임을 깨달아 그릇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온갖 공의 실상을 깨달아 마음을 편안히 하고 정적 가운데 머무는 것. 이것을 무생법인(無生法忍)이라 한다.

인내로 영원한 자유를

몇천 겁 동안 쌓고 쌓은 선행과 보시, 부처님께 올린 공양의 선업도 한 번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공덕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화내는 것보다 더한 죄악은 없고, 인욕보다 어려운 고행은 없다고 한다. 심장에 분노의 화살이 박혀 있는 동안은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될 수 없으며, 수행의 최고 목표인 해탈에 이를 수도 없다.

"수보리여,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과거 오백세 생애 동안 나는 '인내를 설하는 자'라는 이름의 구도자였다."

수억겁 동안 인욕 바라밀을 닦은 부처님처럼, 몸과 마음의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해 먼저 '참는 공부'부터 해보자.

김재경 기자

신행 캘린더

8월 1일 (목)

■본동종합복지관 '본동지킴이 캠프'=봉사도 하고 심신수련도 하는 청소년 캠프가 소금강 오대산 수련원에서 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35시간 동안의 자연보호 활동을 비롯한 자원봉사와 청소년 진로를 미리 알아보는 성격유형검사, 캠프파이어, 미니올림픽 등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출발은 오전 8시 30분 서울 본동사무소 앞. 참가비는 3만 5천원.(02)817-8052

■봉원사 '무료한문교육'=성급한 어린이, 주위가 산만한 어린이, 친구들과 잘 다투는 어린이, 이런 어린이에게 한문 배우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서울 봉원사가 20일까지 매일 오전 10부터 2시간 동안 여름방학을 맞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한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02)392-3007

■청견스님 '부처님 호흡법 수련회'=절 호흡, 염불 호흡, 좌선 호흡, 행선 호흡, 와선 호흡, 단전 호흡 등 호흡법의 모든 것을 배운다.

경기도 양평 법왕정사가 8월 한 달 동안 청견스님이 지도하는 '부처님 호흡법 수련회'를 개최한다. 1인이 최소 3박 4일 정도 상주하며 호흡법을 공부하는 이번 수련회에서는 호흡의 바른 자세 등 기초적인 내용부터 일일이 스님에게 배울 수 있다.(031)771-7745

■불교상담개발원 '정기교양강좌'=사회 문제의 시작은 가정 문제에서 비롯된다'.

우리 시대 부부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는 강좌가 마련됐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오후 2시 조계사 불교대학 2층에서 이화여대 사회학과 공선영 강사를 초대해 '끝 시작, 이혼이야기'를 주제로 부부 강좌를 개최한다. (02)737-8803

8월 2일 (금)



◇지난해 8월에 열린 백담사 '만해축전'.

■백담사 '만해축전'=만해 한용운 스님을 기리며 만해사상과 문학의 현대적 의의를 살피는 '만해축전'이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에서 열린다.

'전국고교생 백일장', '시인학교', '만해 문학과 사상'에 대한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033)434-3922

■대구 동화사 '백고좌법회'=동화사가 월정사 주지 현해스님을 초청해 '관세음보살의 수행법' 주제의 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백고좌법회는 현해스님에 이어 월운(봉선사 조실) 일면(봉선사 주지)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법타(은해사 주지)스님 등을 법사로 모시고 9일까지 계속된다.(053)982-0101.

8월 5일 (월)

■전국염불만일회 '미황사 염불대회'='하루에 1천번 염불을 하자'

전국염불만일회는 매해 염불도량으로 유명한 사찰을 찾아가 2박 3일 동안의 염불대회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성륜사 조실 청화스님의 법문, 사물놀이, 전통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02)732-1215

8월 6일 (화)

■용진신행회 '내소사 성지순례'=한 여름, 아름다운 변산에서 느끼는 여법한 산사의 정취. 이보다 좋은 휴가 여행은 없을 듯.

용진 신행회가 변산반도에 위치한 내소사와 개암사, 곰소 포구 등을 찾아가는 성지순례를 마련했다. 출발은 오전 6시 서울 을지로 5가. 참가비는 2만 5천원.(02)2279-1191

교리·신행 상담 친절·시원·쉽게

우리 절 우리 신도

남양주 수진사 이병국 상임법사

불교大서 강의…불우노인 돕기 앞장
내년 직장 그만두고 본격 수행 '서원'



◇이병국 법사(왼쪽에서 두번째)와 수진사 스님, 신도들이 불교교양 강좌 발전방향을 상의하고 있다.

때로는 형제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가까운 자리에서 쉽고 편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초보 불자 시절 누구나 해보는 고민. 하지만 경기도 남양주 수진사(주지 남정) 신도들에게 이런 고민은 없다. 항상 친절하고 속시원하게 상담을 해주는 이병국 상임법사(49 법명 운해)가 있기 때문이다.

3년째 수진사 불교교양강좌를 맡아 오고 있는 이 법사는 불교교리와 수행법을 신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특히 나이 때문에 불교공부에 마음을 내기 어려웠던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이 법사의 강의만 들으면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수진사 신도들은 이 법사를 가리켜 '맹인을 눈뜨게 해주는 거사'라고 부른다.

이 법사가 불교 공부에 서원을 세우게 된 것은 지난 93년 조계사 불교대학에 다니면서 부터다. 할머니 손을 잡고 동네 사찰에 다니며 불교와 인연을 맺었던 이 법사는 이때만 해도 평범한 불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늘 들고 다니는 불경의 뜻을 알아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전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를 하다보니 감로수 같은 가르침의 매력은 끝이 없어서 몇 달이면 끝날거라고 생각했던 불교 공부가 한없이 길어졌다. 자꾸 깊어만 가는 불법에 대한 갈구를 해결하고자 여기 저기 선지식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직장인 고대 안암병원 옆에 있던 중앙승가대(현재 김포로 옮김) 성본스님(현 동대 경주캠퍼스 선학과 교수)도 알게 됐다. 95년 이 법사의 불교공부 열의를 높이 산 스님이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원에서 공부하도록 적극 추천했고, 이 법사의 불교공부는 나날이 깊어졌다.

4년 간 공부하며 얻은 결론은 오히려 평범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생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활 속에 올바로 호흡하고 올바르게 먹고 자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신비한 것이 아니었다"고 토로한다. 단순한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질병, 사회문제, 전쟁 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사가 진행하는 교양강좌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른 마음을 내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전부다.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고 잠 잘 때 잠자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설명한다.

수진사 주지 남정스님은 "수진사 초보신도들의 기본교양은 이 법사가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막중한 역할을 잘 소화해내자 여기저기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경기도 일산 임조선사와 서울 장충동 행천선원에서 불교 강의를 했다.

이 법사는 수진사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틈틈히 어려운 노인들과 불우 청소년 돕기에도 나서고 있다. 불교수행은 단지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아직 불교적 가르침을 현실 사회에서 실천하지 못해 늘 아쉽다"며 "앞으로 불자들의 뜻을 모아 복지 불사를 해 보고 싶다"고 말한다.

근래 들어 이 법사는 새로운 서원을 하나 더 세웠다. 본격적으로 불교수행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이 법사는 불교 수행을 위해 내년엔, 2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사직할 계획이다.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절저하게 불교수행을 해 볼 생각이다.

이병국 법사는 "내가 먼저 깨우치지 않으면 남들을 도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 일을 결심하게 됐다"며 환하게 웃는다.

강유신 기자

추천의 말

남정스님 수진사 주지



이병국 법사는 우리 절의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초파일 등 사찰의 연례 행사와 불교 교양대학 강좌를 꾸려나가면서 이 법사는 아상을 드러내지 않고 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주위의 여러 스님과 불자들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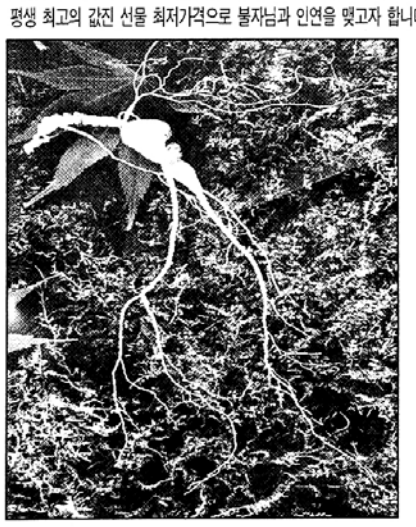
생활에 바쁘다 보면 수행에 소홀하기 쉬운 면이 있지만 이 법사는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돕지 않고는 못 배기는 따뜻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독거노인과 불우청소년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 도울 뿐만 아니라 사재를 털어 병든 스님을 돌보는 등 수행과 실천이 일치하는, 드문 불자입니다.

앞으로 불교수행에 큰 뜻을 품고 본격적으로 정진을 하겠다고 하니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購迓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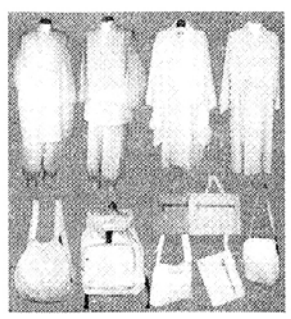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특허 BBS 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법복·잠옷·바랑 판매 안내

불교계와 저희 기원섬유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고급모직 (특징 - 통풍 잘됨, 가볍고 구김없음,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쿨맥스 (특징 - 품질 가장 우수함, 수분 발산율이 빠름, 구김없고 아주 가벼움, 물세탁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80,000) (동방바지 : ₩170,000) (두루막 : ₩150,000)
3. 특수직 (특징 - 제일 가볍고 시원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40,000) (동방바지 : ₩130,000) (두루막 : ₩110,000)
4. 아포텍스 (특징 - 몸에 붙지 않으며 까칠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60,000) (동방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5. 광목 (특징 - 순수한국산, 손염색, 멋을 가진 승복)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30,000)
6. 장삼 (조계종, 태고종) - 춘추, 하절기(가사도 주문 받습니다.)
(고급모직 : ₩220,000) (특수직 : ₩200,000)
7. 셔츠 (차이나, 라운드) : 가볍고 시원하며 물세탁 가능 : ₩30,000)
8. 걸망, 바랑, 나들이가방, 손가방, 보조가방
9. 가볍고 예쁜 법복(회색, 밤색) : 조끼 바지 : ₩65,000



하절기 시원하게 보내실수 있게 저희 기원섬유가 책임지겠습니다.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십선(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합니다.

◒ 잠옷(항균처리) - 남, 여(상, 하) : ₩65,000
특징 : 1. 특허청에 의장 등록된 옴자, 연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있음(제0246178호)
2. 항균처리된 제품
항균처리란? 각종 박테리아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청결한 몸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특수제품 임
3. 고급순면으로 촉감이 아주 뛰어남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02호
TEL : (053)764-4114 H·P : 011-9850-4400
지역 판매점 모집

불교대학을 찾아서

⑧ 구룡사 원주불교대학



◇정락스님(화성 용주사 주지)이 구룡사 대웅전에서 '포교방법론'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강원도 불교인재양성 목표 개교 2년
정락스님 · 정병조 교수 등 우수 강사진
8월중 성지순례 · 봉사활동 · 철야정진

강원도 태백시에 사는 김옥란(37) 보살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 마음이 바빠진다. 다음날 오후 3시 원주 치악산 구룡사에서 열리는 '원주불교대학'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서다. 강의듣는 시간은 고작 100분이지만 등하교 시간은 꼬박 하루가 걸린다. 태백에서 원주까지 기차를, 다시 원주역에서 구룡사까지 시내버스를 타야 한다.

하지만 김 보살은 "평소에 만나기 힘든 큰 스님들이나 선지식들의 감로법문을 듣고 집으로 돌아갈때면 비록 갈 길은 멀지만 마음속에 큰 가르침을 한가득 싣고 가는 느낌이 들어 뿌듯하다"고 즐거워 한다.

문을 연지 2년 밖에 안된 구룡사(주지 원행)' 원주 불교대학에는 김 보살처럼 태백지역을 비롯해 강릉, 춘천, 동해 등 강원도내는 물론 심지어 청주에서까지 불자들이 몰려든다.

이유는 우수한 강사진 때문이다. 정락스님(수원 용주사 주지)을 비롯해 각성스님(부산 화엄사 주지), 정병조 교수(동국대,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최봉수 교수(동국대 사회교육원),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심백강 박사(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이창훈 총장(한라대) 등 이름 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불교계 선지식들이다. 교육과정도 '불교사', '경전의 이해', '포교방법론', '불교문화', '불교와 복지', '경전의 이해', '금강경강좌' 등 불자들이 알아야 될 기본 지식과 경전공부를 병행하도록 짜여져 있다. 특히 개학 후 3개월 동안은 본교육이 끝난 뒤 두시간동안 포교원에서 펴낸 '기본신도교육'을 교재로 특강을 한다. 또 무더위에 자칫 게을러지기 쉬운 8월에는 성지순례와 봉사활동, 철야정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교육내용이 충실하다보니 지난해 1기 졸업생 33명중 5명이 포교사고시에 합격했으며, 올해 5월 시작된 2기 모집때는 104명이나 등록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덕분일까. 개교한지 얼마 안됐지만 원주불교대학은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정식인가도 받았다.

원주불교대학이 이처럼 강원불교의 인재 양성소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학장인 구룡사 주지 원행스님과 부학장인 최상순 법사의 역할이 컸다.

2000년 12월 치악산 구룡사 주지로 취임한 원행 스님은 93년 대전 자광사 주지 시절부터 불교대학 설립의 명 파트너(?)로 함께 일해온 최 법사를 불러들여 평소 소신인 교육불사의 첫 발을 내딛었다.

특히 최상순 법사는 동해 삼화사 불교대학 등 원행스님의 부임지를 따라 다니며 불교대학 건립에 큰 공헌을 했다. 원행스님은 "불교대학의 활성화는 포교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불교가 살아나기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철저한 교육프로그램과 출석관리, 유능한 강사진 섭외 등을 통해 원주지역 더 나아가서는 강원불교 발전에 꼭 필요한 인물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펼쳐보였다.

원주=김주일 기자

강의 · 학사관리 등
학교일 도맡아
1기생 최상순 부학장



"내실있는 불교대학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모든일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 1기과정에 등록하고 동기생들과 열심히 공부하면서 불교대학을 관리합니다." 최상순 원주불교대학 부학장(69)은 집이 대전이지만 구룡사에 기거하며 매주 토요일이면 불교대학생들의 심부름꾼(?)이 되어 강의준비에서 부터 출석관리, 뒷 정리 등 온갖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며 원주불교대학의 맏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옥탑방서 꿈 일구는 소녀가장

"초등학교 교사 될래요"

낙상 아버지 정신병원 · 어머니 가출
역경속에서도 꿋꿋…학업 강한집념

옥탑방. 후덥지근하다. 한낮의 복사열이 오후 늦게까지 극성을 떤다. 지난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냉바닥과 싸웠다. 전기장판, 어머니같은 존재였다. 여태껏 방바닥을 궁색 맞게 덮고 있지만, 치워야 할 정도로 불편한 생각은 들지 않는다. 계절은 여름이지만, 여전히 비좁은 방안은 한겨울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영이(18 · 서울 청량고3)와 동생 성준이(15 · 서울 성일중3) 남매가 1년째 살고 있는 동대문구 회기동 옥탑방. 그 방문을 열자, 환한 미소로 하영이가 맞이한다. 얼굴에 잔뜩 그늘이 있을 거라는 선입견,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 은근히 미안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참! 동생 성준이가 없다. 축구에 정신이 팔려 아직 집에 안 왔다며 하영이가 머리를 긁적거리며 둘러댄다. 하지만 찾아가기 전에 걸었던 핸드폰에서 들려왔던 말, "누가 온다는데, 그래? 누나", 성준이는 이미 자리를 피해 있었다.

어색한 웃음. 그 뒤에 숨어 있는 사연을 묻자, 이내 하영이는 주눅이 든다.

"사실 7년 전만 해도 아빠, 엄마, 동생과 함께 '오붓하게' 잘 살았어요. 통역일을 하는 엄마, 부동산업을 하던 아빠. 전 '꿈 많은 소녀'였어요. 하지만 아빠가 술에 취해 계단을 구르시면서 머리를 크게 다치신 이후로 사정이 달라졌어요. 동생도 웬만해서 낯선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요."

불행의 화근, 그것은 아빠의 사고였다. 다리와 머리를 크게 다친 아버지 강원명 씨는 정신을 놓게 됐다.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술로 보내는 날이 길어질수록 '주벽'은 심해갔다. 매맞는 엄마, 어린 이들 남매에게는 감당 못할 아픔이었다. 결국 지난해 아버지는 대구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옮겨졌고,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다. 그래서일까? 하영이는 아버지 얘기 끝에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요새 들어 부쩍 고민이 많아진 하영이.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야속한 부모님만 원망할 수 없어, 공부에만 매달렸던 하영이였다. 속 모르는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났다'며 칭찬을 해줬지만, 하영이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빨리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위해 악착같이 책을 집어 들었다. 줄곧 반에서 5등 안에 들 정도로 성적도 좋다. 이제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교대 진학의 꿈도 키워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한달 보조금 30만원으로 빠듯하게 사는 형편에 한숨만 길어진다.



◇대입수능 시험 11월 6일. 소녀가장 하영이의 꿈이 착실히 영글어 간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좋아하고, 다방면으로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에 제 적성이 딱 맞아요. 무엇보다도, 빨리 제가 자리를 잡아야만 동생 교육문제도 책임질 수도 있고요."

하영이가 인터뷰 도중에 연신 시계를 쳐다본다. 집 근처 공부방에갈 시간이 된 것이다. 하영이는 새벽까지 공부를 한다. 공부방으로 향하는 하영이의 뒷모습. 학업에 대한 강한 집념만큼이나 어떤 역경에도 꿋꿋함을 잃지 않는 '당당함'이 엿보인다.

주소 :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0-53

후원계좌 : 주택은행 420802-01-009383(예금주 강하영)

김철우 기자

시인 김홍성의 네팔사는 이야기



〈7〉 장마

어린시절의 포천 연상 카트만두 장마
비 갠후 얼굴내민 설산 · 쌍무지개 장관

카트만두는 이제 본격적인 장마에 들어섰습니다. 그제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카트만두는 해발 고도가 1,600 미터 정도나 되기 때문에 사흘만 해가 안 나면 오슬오슬 한기가 느껴집니다. 어제 밤에는 두꺼운 담요를 꺼내 덮고 잤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에 들어서면 네팔 전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되는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어제 밤 카트만두 시내에서도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물에 잠겼으며 최소한 네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젯밤의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는 카트만두 외곽에서 더 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보도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한 달 동안은 이런 비가 자주 내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겨울에 삼한사온이 있듯이 이 계절의 네팔에서도 삼일 내리 비가 오면 그 후 사나흘 동안은 하루에 한 두 차례 소나기가 퍼붓다가 금방 푸른 하늘이 나오고 따가운 햇살이 쏟아집니다.

소나기가 오다 그치고 햇살이 난 카트만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먹구름이 멀찍이 물러선 푸른 하늘엔 꽃구름이 흘러 다니고 주택가 골목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담 밖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드물게는 북쪽 하늘가에 설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몇 해 전 이 계절에는 사나흘에 한번 씩 무지개가 서기도 했는데 한 번은 선명한 쌍무지개를 봤습니다.

10년 전에도 인도 북부의 라닥 지방에서 쌍무지개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40 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경기도 포천 땅에서 본 것이 전부입니다.

카트만두의 장마는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의 포천 땅을 떠올리게 합니다. 캄캄한 하늘에서 진종일 장대같은 비가 쏟아져 논밭이 침수되고 다리가 끊어지고 초가집이 떠내려가는 동안 저는 툇마루에 앉아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찬 낙숫물 줄기가 처마 밑의 흰모래를 파내며 방울방울 떠내려가는 모양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잠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잠에서 깬 어느 날, 거짓말처럼 파랗게 갠 하늘에 피난민 이불보따리 같은 구름이 느릿느릿 청계산을 넘어가더니 거기 쌍무지개가 섰습니다. 춘하추동 사계에 우기와 건기를 합친 네팔의 여섯 계절 중에서 하필이면 이 우기를 가장 좋아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 쌍무지개의 추억 때문일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칠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도핑테스트와 무관한 자연식

대표팀 주치의 김현철박사는
"우리선수들의 체력증진에는 파워프로그램이 큰 구실을 했지만 보양식도 큰 역할을 했을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우리 선수들의 지구력이 우리와 비슷한 파워프로그램으로 훈련한 다른 유럽 선수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
대표팀 선수들은 3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세 차례식사때 오가피를 먹고 있으며, - 중략 - 도핑테스트와 무관한 자연식이다.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에서 제공하고 있다.
(동아일보 6월 20일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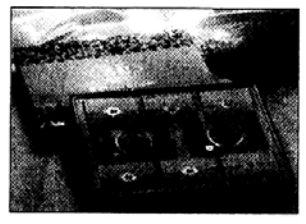
꼭 확인하십시오!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고있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447-0047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등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매당되는 증상에 (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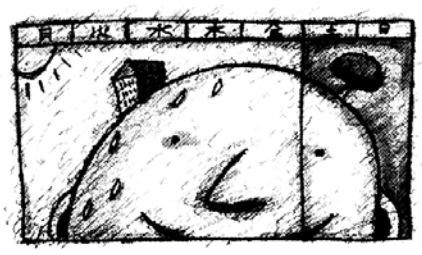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주5일 근무-주2일 휴일

종교계 '주2일 휴무' 에만 관심집중

'수행자적 주5일근무정신' 필요할 때

선진국들이 21세기가 되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첨단과학기술 연구분야 가운데 컴퓨터를 이용해 사고, 학습 및 자기계발 등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인공지능 로봇 분야가 있다. 비록 사람의 모습을 닮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동작과 같은 동작을 하는 기계도 로봇이라고 부른다.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업 또는 아주 단조로운 작업 등 모두 인간이 일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에서 로봇의 응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과기부에서도 3조 6천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2011년까지 산업현장에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인간친화형 산업로봇과 가사 육아 교육 간호 수술 등을 담당할 인간지원 서비스 로봇, 전투 인명구조 원자로 해체 우주개발 등 위험한 작업을 대신할 국가전략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렇듯 인간이 하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이 정교해질수록 인간의 여가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이미 선진국에서 실시해오고 있던 '주5일 근무제' 가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권부터 지난 7월1일부터 도입되었고, 점차 확대 실시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올해 들어 불교계도 이런 변화에 주목하여, '주5일 근무제' 에 관해 일련의 세미나를 통해 포교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자연과 전통문화가 함께 숨쉬고 있는 깊은 산속의 산사는 여행과 체험의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사찰 개방을 통한 적극적인 포교, 수행 정도에 맞는 단계적 프로그램 개발,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문화재 도난 대비,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활동, 사찰 중심의 환경보호 프로그램, 각종 지역축제와 주말농장의 연계 등 적극적인 대국민 포교 방식의 변화를 통해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가 불교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한편 카톨릭의 경우 3월초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사목적 대응을 공식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각 교구들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산교구는 미사 시간 다양화, 성당에 보육시설 설치, 가족 단위 주말 프로그램 개발을, 원주교구는 성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관광 사목' 의 강화를, 춘천교구는 '가족 피정' 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 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한때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개신교계도 이제는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개신교계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해결 방안으로는 전원에 위치한 시설을 활용하는 '주말교회' 와 '전원교회' 등이 있다.

그런데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대체로 '주5일 근무제' 에 관해 휴일인 '주2일' 에 초점을 맞추어 종교계가 활발한 포교의 계기로 활동하려 하고 있으나 '주2일' 휴일을 위해 수행자적인 철저한 '주5일근무'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 판단된다. 그런데 이를 위해 휴식(休息)의 뜻을 바르게 잘 새긴다면 소중한 '주2일' 을 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휴(休)' 란 글자는 '人+木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息)' 이란 글자는 '自+心' 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숲으로 둘러싸인 자연 속에서 그냥 멍청하게 몸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로 쉰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간화선(看話禪) 수행을 이십 칠 년 이상 행하다 보니 화두도 나라는 아집도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온몸에 다음과 같은 글귀 하나만 새겨지게 되었다.

'해뜨면 곧 일하고 해지면 곧 쉰다(日出則作 日沒則息)'

우리는 모두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일터로 일을 하러 간다. 그러나 그 일을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만 한다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는 결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낮에는 일하는 동안 모든 관심의 대상이 밖으로만 향했었으니 밤에는 모든 관심의 초점을 자기 마음에 두라는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들뜨고 흔들리던 자기 마음을 차분히 가라 앉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야말로 맑고 투명한 거울 같은 마음에 도달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해뜨면 열심히 일터에서 자기의 능력을 유감없이 나투어, 주6일 근무 때보다도 더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한 낮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고, 밤이 오면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뜻을 철저히 되새기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태도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밤낮 구별 없이 '일이 곧 쉼(作則息)이고 쉼이 곧 일(息則作)' 이라는 그런 확고한 경계가 서게 되어 '주5일근무' 와 '주2일휴일' 이란 이원적 분별심도 다 놓아 버리게 되리라!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park@ccs.sogang.ac.kr

이렇게 들었다

양심과 윤리 따라야

공무원 행동강령(안)

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내놓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권고안' 을 보면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가족비리 공무원을 징계하고, 부고 · 청첩장에 직장 직급을 기재해서도 안되며, 부업의 경우도 연봉의 30% 이상에 해당할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 현실성 없는 과시용 방지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에 대해 미더움이 제대로 가지 않는 이유는 현 정권의 권력비리 탓이다. 현 정권은 이미 지난 99년 부패추방을 내걸고 '공무원 10대 준수사항' 을 만들었다. 그러나 정권 실세들과 대통령 아들들은 이를 비웃듯 검은 돈을 긁어모았다.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과 강령이 없어서가 아니다. 관련법과 단속방안은 넘쳐난다. 비리는 권력 실세들이 저지르고 죄는 선의의 공무원들에게 덮어씌우는 이런 '행동강령' 과 같은 발상이 바로 권력비리의 사슬을 끊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술책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사회질서와 원칙을 준수하며 양심과 윤리에 따라 생활하는 구성원 각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과(因果)의 가르침을 전한다.

▨ "한 오리의 털과 한 개의 겨자알이라도 모두가 중한 과보가 있나니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을 취하지 말고, 항상 청렴한 마음을 갖고서 선근을 키워야 한다."

<능엄경>

▨ 염치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 지언정, 의(義)를 취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잔꾀를 부리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일이다.

<법구경>

禪과 21세기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⑳

본래 일이 없다

지금일 뿐, 다시 어떤 시절도 없다

대장부라면 지금 바야흐로 본래 일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대들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 생각 치달려 구하며, 제 머리는 버려두고 따로 머리를 찾아서 쉴 줄을 모른다. 예컨데 원돈보살이라고 하더라도 법계에 들어가 몸을 드러내고, 정토에서 범(凡)을 싫어하고 성(聖)을 좋아한다면, 이러한 무리는 취하고 버림을 아직 잊지 못했으니 깨끗하니 더럽니 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 것이다. 선종(禪宗)의 견해라면 그렇지 않아서, 바로 지금일 뿐 다시 어떤 시절도 없다. 나의 말은 모두 한 때의 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은 방편일 뿐이고, 실법(實法)은 전혀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참된 출가여서 매일 만 냥의 황금이라도 쓸 자격이 있다.

법다운(如法) 입장이라면,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고 어떤 태도도 취할 수가 없다. 법은 어떤 정해진 말이나 모습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법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법은 알고 모르고와도 상관이 없다. 법으로 말하자면 바로 지금 이렇게 명백하지만, 이렇게 명백하다고 말하면 바로 어긋나 버린다.

그런데 범부의 경우 그 의식의 특징은, 어떤 이름이 있을 경우 그 이름에 해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코로 맡아 보거나 입으로 맛을 보거나 손으로 만져 보거나 머리 속으로 상상해 보아서 다른 것들과는 차별되게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확인하려는 경향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이름을 다른 이름과 차별되게 받아들이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것을 다른 것들과 차별되게 이해할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해하는 이외에 달리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도니 법이니 마음이니 하는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이와 같이 익숙한 습관에 따라 차별되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차별되는 사물로 이해하려 한다면, 아무리 하여도 그 이름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 까닭을 말하면, 도니 법이니 마음이니 하는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이름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되는 이름과 사물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아서 둘로 차별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여러 개의 가지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한 개 줄기와 같고, 온갖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의 한 덩이 찰흙과 같으며, 노란 색과 빨간 색을 구분해 보기 이전의 다만 보는 그것과 같고, 도레미파를 구분해 듣기 이전의 다만 듣는 그것과 같으며, 향기와 악취를 구분하기 이전의 다만 말아 보는 그것과 같고, 단맛과 쓴맛을 구분하기 이전의 다만 맛보는 그것과 같으며, 부드러움과 꺼칠꺼칠함을 구분하기 이전의 다만 감촉하는 그것과 같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구분하기 이전의 다만 생각하는 그것과 같다.

그러므로 도니 법이니 마음이니 하는 이름을 말하고 그 뜻을 헤아리기 이전에 이미 도니 법이니 마음이니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 따라서 이름을 말하고 그 뜻을 헤아리면 눈을 가지고 눈을 찾아보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법을 아는 자는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http://www.mindfree.net/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 선어록 강좌 안내
부산대학교: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불교문화원 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만(卍)자의 의미 Meaning of the swastika(卍) in Buddhism

When Buddha attained enlightenment under the sala tree, the weeds he was sitting on were called 'weeds of good fortune' which were pressed into the shape of a swastika. Later on, a swastika, representing the 'weeds of good fortune', became a symbol of Buddhism. The swastika is a symbol of peace, harmony and good luck.

석가모니 부처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가 앉았던 곳의 풀들이 만(卍)자 모양으로 눌러져있어 이를 '행운의 풀' 이라 불렀다. 이후 만자는 '행운의 풀' 을 나타내게 되었고 불교의 상징물이 되었다. 만자는 평화와 조화, 행운을 상징한다.

The swastika is used as a symbol denoting Buddhism and temple locations. The swastika is an ancient and mystical religious symbol adopted from India, and stands for happiness and virtue.

만자는 불교와 사찰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쓰인다. 만자는 행복과 덕행을 나타내는 오랜 종교상의 신앙적 상징물로 인도로부터 받아들인 것이다.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 스님 자신과 도반 · 선배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영가천도를 위한 독경용으로 으뜸가는 금강경!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영가천도의 비결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뜻을 알고 독경을 하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지는 법!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 · 미타기도법

미타기도법은 영가님들께
영원 생명과 무량한 빛을 안겨줍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 • 오회염불 • 관상염불 • 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 천도를 하는 가족의 자세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참회 · 참회기도법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
이 책에는 업장과 참회,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절을 통한 참회, 참회염불,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등 참회의 참된 의미와 여러 가지 참회 기도법, 참회영험담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02) 587-6612~3 · 팩스 (02) 586-9078

목어

즐거운 '뇌'



뇌의 신비가 풀리면 인간존재의 비밀이 모두 드러날까. 많은 과학자들은 '그럴 것'이라는 답을 내 놓는다.

옛 그리스인들은 인간 감정이 간장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좌우된다하여 우울증을 '검은 담즙', 즉 멜란콜리아라 했고, 동양권에서는 침착 냉정형의 사람을 담즙질(質)이라 불렀다. 현대과학은 인간성격 또는 감정들의 조정 장치를 담즙 아닌 뇌에서 찾고 있다.

네르베르의 최근작소설 '뇌'에는 이른바 뇌 속 '최후의 비밀'로 불리는 부위가 이야기 전체에 깔려있다. 쥐의 뇌 속 이곳저곳에 전극을 연결, 쥐 스스로 자극 할 수 있는 장치를 했더니 쾌감중추일시 분명한 한곳만을 택해 먹는 것조차 잊고 끝없이 그 장치만을 작동시키더라는 것인데…. 이를 인간을 대상으로 교묘하게 이용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그야말로 '최후의 비밀'로 남겨 두어야 한다. 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지난 5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실험은 소설내용처럼 '최후의 비밀'로 분류된 것도 없고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도 했다.

찾아낸 그 쾌감중추를 자극하면 최상의 쾌감이 아니라 최상에 조금 못 미치는, 그래서 최상에 대한 욕구로 계속 보탄을 누르게 되고, 이 욕구불만으로 인해 쾌감에는 초조 불안감이 동반하게 되더라는 결과도 보고 되었다 한다. 쾌감은 이처럼 초조 불안과 함께 새끼 꼬듯 관계하는 모양이다. 행복과 불행, 행운과 재난이 자매지간이라는 불교설화를 생각게 한다.

현대과학은 이렇게 뇌의 신비를 하나하나 벗겨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선한 행동, 즉 사람이 서로 간에 이타적 행동을 하면 뇌가 즐거워진다. 그래서 인간은 '괜찮은 존재'일 것이라고 미국 에모리대학 정신의학 행동과학 연구팀이 밝혔다. 인간의 선한 행동이 징벌을 무서워하거나 보상에 대한 기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즐겨 하게 된다는 것인데….

지금 과학은 몰록 깨침의 세계, 그 양파껍질을 한 꺼풀 씩 벗겨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김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불자 세상보기

농산물 특화로 우리 것 지켜야



정희돈
영남대 교수
원예학

최근 마늘 문제가 사회적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제의 발단은 중국과의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지 않은데 있지만 사실 마늘은 언제나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번 마늘파동은 우리 농산물전체의 문제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35만 농가가 45만ha에서 45만톤의 마늘을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약 2만4천톤을 지난해에 수입했으니, 이는 1인당 약 10kg을 소비한다는 셈이 된다. 마늘은 저장력이 없기 때문에 장기 저장이 어렵다. 불행하게도 마늘은 씨가 생기지 않으므로 육종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품종 육성에 의한 획기적 다수확 품종을 기대할 수도 없다.

마늘은 겨울에도 재배가 용이하고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마늘 재배면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제한된 조건에서 생산된 마늘의 가격에 대해서는 늘 팽팽한 긴장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단가가 월등히 낮은 중국산 마늘이 무한정 들어온다면 우리 마늘 농가의 장래는 불문가지다.

마늘은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알린'이라는 성분이 마늘의 품질을 좌우하는 잣대다. 알린이 분해되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되는데, 이 성분은 살균력이 매우 강하여 12만배로 희석하여도 세균을 죽일 수 있으며 결핵 치료제인 '파스'나 '스트렙트마이신'보다 강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장제로도 높은 약리효과가 있고 피로회복에도 탁월한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 알린이 우리나라 재래종에 월등히 많이 들어 있다. 그런데도 우수한 품질의 우리 마늘이 수확량이 작다는 이유로 외래종에게 밀리고 있다. 즉 한국 재래종 대신 외국 다수확 품종을 재배한다는 것이다.

마늘 문제가 심각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중국 마늘 수입 제한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상을 하라는 소리가 높다. 또 WTO의 규정으로도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물론 우선 급한 것은 무제한적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마늘을 통제하고, 저장 시설의 확충, 기계화 촉진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마늘 농가를 계속 보호할 수 없다. 수입 마늘과는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 방법이 없는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재래종을 살리는 일이다. 현재 일반 마늘 재배 단지는 말할 것도 없고 고유한 재래종을 생산하던 지역도 외래종과 섞여서 어느 것이 진짜 재래종인지 구별이 어렵게 됐다.

어떤 외래품종을 한 지역에서 재배하여도 그 고유한 성분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소비자들이 아직도 어느 지방 마늘하면 값이 아무리 비싸도 그 품종을 선호하는 것은 품질의 우수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확실히 그 지역 재래종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재래종을 찾아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해야 한다. 이것은 마늘 농사를 영원히 보호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같은 품질의 마늘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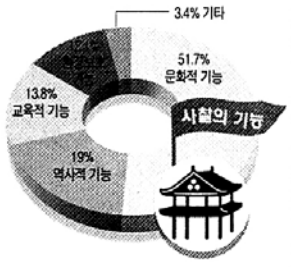
우리 국민이 주식으로 하고있는 곡물은 74%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만큼 자급율이 낮다. 국내산 채소는 수입산보다 6~20배 비싸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화'가 필요하다. 재래품종, 토종품종 등은 좋은예다. 이번 마늘파동을 교훈삼아 우리 농산물과 농가를 살리기 위한 중 · 장기 계획안이 정부차원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생각

사찰의 공적기능



종교적 기능 외에 사찰이 갖는 공적기능 가운데 문화적 기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58명이 동참한 붓다뉴스 네티즌설문조사에서

"문화적 기능 가장 커" 51.7%

30명(51.7%)의 불자들이 이같이 밝혔다. 또 11명(19.0%)은 역사적 기능, 8명(13.8%)은 교육적 기능, 7명(12.1%)는 환경보호 기능 2명(3.4%)은 기타 라고 응답했다.

사찰이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는 37명(63.8%)이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11명(19.0%)이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 5명(8.6%)이 대국민 홍보, 2명(3.4%)이 시설보완, 3명(5.2%)이 기타 라고 답했다. 임연태 기자

독자의 소리

독자 여러분의 글 · 사진 ·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전화 : (02)722-4162 · 팩스 : (02)737-0698 · 천리안 : aeum · 하이텔 : 34713

'북한산도로 건설중지' 판결의미 '재산권보호'로 축소해석 안돼



여영학 변호사
환경연합 법률센터
부소장

그동안 논란이 뜨겁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통과구간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지만, 시행사가 공사강행 방침을 밝힘에 따라 소모적인 충돌과 논쟁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행사인 서울고속도로㈜ 관계자는 "법원에서 전체적인 공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일부 사찰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내린 판결이므로 이를 계기로 그 동안 불법시위로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모양이다.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고 성급한 결정이라는 느낌이다.

'전체적인 공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결정문의 어떤 대목을 두고 하는 얘긴지 알 수가 없다.

법원은 오히려 '희룡사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로서 많은 승려들이 수행도량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패산 터널부분 공사로 인하여 위와 같은 수행도량으로서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한 뒤에 공사중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도로 중 교량부분이 경내지를 무단으로 침범하게 되는 홍법사의 경우도 비슷한 취지의 공사중지를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제4공구 구간 건설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사찰)들의 주장과 같은 환경이익에 어느 정도 침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일단 수긍을 하고 있다.

다만 도로구역 결정이나 실시계획 승인과 같은 행정처분이 자연공원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따위에 위반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행정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사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을 뿐이다. 이것은 환경소송에 관한 법이론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결론이지 공사의 적법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를 두고 도로공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의도적인 정보의 왜곡이다.

이번 공사중지 결정에 대해 '일부 사찰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내린 판결'이라는 식으로 그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환경소송에서 우리나라 법원은 아직 헌법상의 환경권을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공의 이익이나 환경적 이익을 민사상 가처분의 근거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환경판결로 유명한 부산대학교 사건이나 봉은사 사건에서조차 대법원이 법적인 보호대상으로 삼은 것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누리던 경관이나 조망, 종교적 환경, 교육환경 등이었다.

토지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근거로 공사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공사중지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이번 결정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아무튼 법원의 이번 결정을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를 재검토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라도 국립공원의 가치와 환경영향을 새롭게 평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을 읽고

수행·교학체계 확립 시급

조계종이 수행과 교학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 사실 신도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공부하고 수행해야 하는지 모른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초교리 정도는 관심만 있으면 어디서나 쉽게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 가면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주변의 많은 도반들도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공부를 놓아버리곤 한다.

수행을 하는데 있어 혼란감은 더하다. 시민선방에 가서 참선을 몇 번 해보았지만 막연하기만 했다. 수행하기에 앞서 배워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공부하는 사람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지도해 준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또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한다. 언제쯤 불자들에게 일목요연한 체계를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조선희(경기 안양시 만안동)

'3보1배' 온몸으로 보여준 법문

스님들이 북한산을 살리기 위해 땡볕아래 아스팔트 바닥에서 '3보1배'를 했다는 보도를 보고 너무 놀라고 마음이 아팠다.

평소 언론을 통해 북한산을 관통하는 도로가 건설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무관심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기만 했다. 하안거 기간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이렇게 길거리로 나서 바닥에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는데, 재가불자인 나는 너무도 편히 쉬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잘 지켜진 자연환경이 주는 혜택을 누리는 일에만 익숙할 뿐 나서서 자연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행동과 마음을 갖지 못한 재가불자들에게 스님들의 3보 1배는 온몸으로 보여준 '법문'이었다. 재가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지금부터라도 자연과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한 스님들의 삼보 일배에 작은 힘을 보태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자연을 파괴하려는 인간의 무모함과 그 파괴에 침묵하는 어리석음을 한꺼번에 일깨워준 스님들께 감사드린다.

허지연(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일안에 깨달는다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에도 얻기 힘든 깨침을 3일 안에도 이룰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백림사(하북성 조현)와 보봉사(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아라한(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관념과 이상과 꿈이 아닌 구체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체계적인 수련 방법입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룰 수 있는 능력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
■ 영가들의 장애에서 벗어나 스스로 천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 온갖 꿈의 시달림에서 해방
■ 자신의 고통과 질병이 치유되는 힘

수련과정

本性 (3 일)	참마음, 無心, 無分別智 업장소멸, 죄의식 소멸
無碍法界 (3 일)	不空, 無分別後得智 영적문제해결(천도 薦度) 마음의 치유와 휴식 원하는 대로 이루는 법칙 거듭남의 비결
無上覺	安息, 삶의 기쁨

체험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

■ 번민, 갈등, 괴로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일상 찌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
■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할 때
■ 부족함 없이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033) 435-3166, 435-6166
FAX 033) 435-8166

참마음 선원(구 대광사)

제 명 공 고

■성 명 : 유점동 ■법 명 : 향 산
■직 위 : 전북교구 태고종 종무원장
전주 보문사 임시관리인

위 분은 전 전북종무원장이자 전 태고종 중앙종회 의장이었던 유남파스님의 친동생으로 출가 이후 스승의 큰 은혜속에 연맹해왔던 분으로서 형(유남파스님)의 힘에 의존하여 스승을 핍박하고 문도의 화합을 저해하는 등 문도로서 본분을 망각하였기에 문도에서 영구 제명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02년 7월 18일

춘 명 문 도 회

"인간은 본래 利他的이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일까, 아니면 이타적일까.'

불교에서는 인간존재의 근본을 이타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학과 심리학에서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된 시각을 보여 왔다. 심지어 생물학에서는 유전자가 이기주의적인 정보체계로 구성돼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불교적 인간존재 규정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과학이 과연 불교교리의 진리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인지 불교학계의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美 에모리대 의학전문지 '뉴런' 연구논문 게재

선행때 '즐거움 유발' 뇌조직 활성화

"사람에게 불성있다는 불교논리 입증된 것"

"보살도 가르치는 유식학의 大義와 일치"

미국 에모리 대학의 정신의학 · 행동과학 연구팀은 의학전문지 〈뉴런(Neuron)〉 최신호(18일자 · 사진)에 발표한 '사회적 협력을 위한 신경계의 기초'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에서 "사람이 서로 간에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선한' 행동이 즐거운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20~26세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협력' 이냐 '배신' 이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상황실험에 참가하게 한 뒤 뇌신경의 움직임을 MRI(자기공명장치)로 실시간 촬영한 결과, 협력적인 태도를 보일 때 뇌에서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신경조직이 최고조로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뇌신경의 활성화 체계가 사람의 이타주의를 강화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억제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의 그레고리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우리가 서로 협력하도록 신경계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고 말했다. 즉, 인간 생리학적 체계에 이타적인 요소가 내재돼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생존상 필요 때문에 서로 협력해 왔다'거나 '규범과 약속에 대한 처벌 위협이 서로를 돕게 만든다'는 이론을 내세워왔다. 이에 반해 새로운 연구결과는 인간의 협력적인 태도는 단지 외부에서 주어지는 처벌 위협이나 보상 체계 때문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리학적 체계에 이타적인 요소가 내재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프린스턴대의 제임스 K릴링 교수는 설명했다.

연구진은 그러나 인간의 다른 성향과 마찬가지로, 이같은 협력심의 강도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용정 박사(동국대 명예교수, 과학사상 편집장)는 "인간은 조화와 질서의 유기체로 태어나기 때문에 본래 선(善)하지만 무지에 가려져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연구팀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번 연구결과는 결국 인간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는 불교의 논리를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그 논리적 근거로 "인간 뇌에 협력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인간이 공생을 본질로 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간의 진화와 공생은 이타적인 심성, 즉 불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불교 유식학의 권위자인 오형근 박사(동국대 명예교수, 대승불교연구원장)는 "이번 연구결과가 다른 사람을 돕는 보살도를 가르치는 유식학의 대의(大義)와 일치한다"며 "인간을 이타적인 존재로 본 불교적 관점의 일면을 발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박사는 "협력심의 강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무지를 어느 정도 걷어냈느냐의 차이며, 수행은 바로 그 무지를 벗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또 "서구 심리학과 과학이 이제는 불교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불교가 오래전부터 말해온 진리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 수록 더욱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33. 금강산과 법기보살신앙

금강산은 '일만이천봉, 팔만구암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불가의 향내음이 깊이 스며 있는 도량이다.

그러나 6 · 25이후, 이 땅의 산과 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사랑하던 한국불교는 법기보살의 상주설법 도량으로 확인되고 신앙되어 온 금강산을 잃어버렸다. 지금 우리는 남과 북의 분단의 탓으로 법기보살, 즉 담무갈보살의 신앙을 까마득히 잊고 있지만 우리의 옛 선조들은 금강산이 바로 법기보살의 성지라는 믿음으로 그곳을 마음닦는 도량으로 삼아왔다. 그렇다면 법기보살은 어떤 보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신앙되어 왔는가. 법기보살(法起菩薩)의 범어 명칭은 다르모가타(Dharmogata)로서 담무갈(曇無竭)이라고 한역한다. 신역 〈〈화엄경〉〉 권45, 〈제보살주처품(諸菩薩住處品)〉에서는 '법기보살'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구역 〈〈화엄경〉〉 권29, 〈보살주처품〉과 〈소품반야바라밀다경〉〉권10의 〈살타파륜품(薩陀波崙品)〉과 〈담무갈품(曇無竭品)〉에서는 '담무갈'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에 관한 옛 기록에서는 대부분 담무갈로 표기하고 있다. 신역(80권본) 〈〈화엄경〉〉 권45, 〈제보살주처품(諸菩薩住處品)〉에 의하면 법기보살은 금강산에 상주설법하는 보살이라고 한다. 즉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그곳에 머물었으며 지금은 법기보살이 그의 권속 천이백 보살들과 함께 머물며 법을 설하느니라"라고 비교적 짧게 기술되고 있다. 이처럼 〈화엄경〉을 통해서 우리의 도량, 금강산에 주석하는 보살로 수용된 법기보살 신앙은 우리나라 불교에 매우 큰 진폭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불교도들은 금강산은 곧 법기보살의 상주처라는 토착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바다가운데 금강산 있으니
법기보살이 권속들과 함께
머물며 법을 설하느니라

우리의 역사속에서 불교 승가만큼 이 땅을 구석구석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없었다. 그래서 옛 절집에서는 "북방 묘향산(妙香山), 남방 지리산(智異山), 서방 구월산(九月山), 동방 개골산(皆骨山, 金剛山)"이라고 간단히 정리하고 산마다 나름의 기(氣)가 흐르고 수도의 방편이 다르다는 것을 세밀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의 평장사(平章事), 민지(閔漬, 1248~1326)는 그가 편찬한 〈금강산유점사사적기〉에서 "신라의 옛 기록에 의하면 의상법사께서 처음 오대산에 드셨다가 금강산에 드시자 담무갈보살이 현신하여 법사께 '오대산은 수행이 있는 사람들만 세간의 티끌을 벗어날 수 있는 땅이지만 이 산은 수행이 없는 무수한 사람들도 세간의 티끌을 벗어날 수 있는 땅이다'라고 이르셨다"는 흥미로운 기사를 싣고 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준엄하고 엄숙한 자장율사의 오대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금강산의 여러 사암에서는 법기보살의 좌상, 입상을 봉안하고 있었다. 우선 금강산의 여러 사암의 연혁과 금석문, 시가, 성보(聖寶), 토지등의 자료를 집대성하고 있는 〈금강대본산유점사본말사지(金剛大本山楡岾寺本末寺誌, 1942년 유점사 종무소 간행. 전886쪽)〉만을 자료로 한정하여 살펴 보더라도 법기보살 신앙은 금강산 일대의 여러 사암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의 성보대장에 수록된 바에 의하면 법기보살 좌상과 입상 봉안 사례는 고려 강종(康宗) 2년(1213) 4월 형잠(瑩岑)스님이 조성한 유점사의 '법기보살좌상'과 익잠(益岑)스님이 조성한 표훈사의 목제도금 '법기보살입상', 또 건륭(乾隆) 3년(1738) 함월해원(涵月海源)스님이 찬한 〈금강산표훈사사성전담무갈보살소상신조기(金剛山表訓寺四聖殿曇無竭菩薩肖像新造記)〉, 강희(康熙) 6년(1667) 4월 유성(宥成)스님이 조성한 신계사 미륵암의 목제도금 법기보살 좌상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품반야바라밀다경〉에서는 자신을 팔아 진리를 구하는 법기보살의 구도담을 수록하고 있다. 이와같은 구도담은 우리의 옛 스님들과 신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반야바라밀을 설하는 법기보살, 즉 담무갈보살이 상주설법하는 금강산에 대한 자부심을 한층 높여 주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경학회 회주

중국 법문사 방장 정일스님 '22일 입적

추도회향법회 · 다비식



중국불교협회 이사이자 섬서성(陝西省)불교협회 회장인 법문사(法門寺) 방장 정일(淨一) 스님이 향년 81세로 22일 오후 9시 15분 원적(圓寂)에 들었다. 중국의 국보인 '부처님 손가락 사리(佛指舍利) 4과 등 세계적인 성보를 다량 봉안하고 있는 법문사는, 사찰을 중창하고 선종의 중흥을 위해 매진한 스님을 기리는 추모법회와 다비식을 26일 거행했다.

정일 스님은 1922년 강소성 숙천시에서 출생, 19세에 출가했다. 장안현 정업사, 요현 대향산사, 부풍현 현산사 등지에서 불학을 공부하고, 1948년 광동 운문사에서 당시 선종의 태두인 허운대사를 3년간 시봉하며, 가르침을 받았다. 1984년 법문사에 들어가 징관(澄觀) 스님을 보좌해 사찰 중건에 나섰으며, 활발한 해외 포교로 외국에서 거금의 불사자금을 지원받았다.

1987년에는 경내 지하 궁전에서 불지사리가 출현, 세계를 놀라게 했다. 1994년 태국에 불지사리를 보내 2백만명의 불자들이 참배토록 했으며, 지난해는 대만에도 불지사리를 봉송해 350만명이 친견토록 했다. 1998년 법문사 대외개방 10주년을 맞아, 법문사 방장에 취임해 선종 중흥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태국 동자승, 여름안거前 헌화



사미계를 받은 200여 태국 동자승들이 6일 방콕 왓 베참마보핏 사원에 헌화하기 위해 연꽃을 손에 든 채 거리를 걷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속에 진행되는 이 헌화 의식은 7월25일부터 시작되는 3개월간의 안거 수행 즉, 카오 판사(Khao Pansa)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 종교규제 완화 추진

차이나 뉴스서비스 보도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종교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의 반관영 차이나 뉴스 서비스가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의 규제 대상인 운세상담과 수상 봐주기, 굿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또 종교 예술작품 및 집기의 판매와 종교 시설 외부에서의 출판, 종교단체의 각급 학교 및 대학 설립과 교육 프로그램 실시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베이징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작업이 법률화될 경우 종교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중국의 종교자유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불광산사, '심성정화 열차' 운행

대만 까오슝 불광산 총림학원 학인들은 19일 판교(板橋)강당에서 300여 청년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순회 포교활동을 펼치는 '심성 정화 여름 열차' 홍보에 나섰다. 50여 총림학원 학인들은 이날 불광산 총림학원을 소개하고 불광산과 관련한 시와 게송과 불교연극, 범패 등을 공연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얻었다. 학인들은 방학을 이용해 열차와 버스 등을 타고 대만 각지로 이동하며, 특정한 곳에서 문화포교를 벌인다.

육六임壬래來정情비秘법法

◎ 혁 신 판 (全12卷) 활인전문천역자용
1,500,000원 (휴대용 : 부록1권 · 설명비디오 1개)
1,300,000원 (좌정용 : 부록1권 · 설명비디오 1개)
350,000원 (기존판 : 설명비디오 3개)

■ 활인천역자(스님 · 오행가 · 신명제자)의 필수서로 이미 검증 되어 있습니다.
■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속사정을 시간별로 미리 알고 먼저 말해 줄 수 있는 비서 입니다.
먼저 할 말은 앞면에, 묻는 일의 대답은 뒷면에 시간별로 써져 있습니다.
■ 귀신과 산소탈과 빌미부정의 침범을 정확히 먼저 밝힌 후 이를 제거 · 해소 시킬 수 있게 됩니다.
■ 천도 · 시식 · 부적 · 굿의 효과 여부를 미리 알고 시행할 수 있어 후련하고 명쾌해 집니다. 또 효과가 있게 하는 방법들이 써져 있습니다.

이 책은, 「바인더 처리」하여 매월 매일 것을 꺼내 보고 넣고 하게 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보고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좀더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구입하신 후 전화하십시오. 전국어디라도 책 도착 날로 부터 3일안에 찾아뵙고 자세히 그 활용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활인천역(신도단련)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 효 사 -

◎ 효사 육임강의록 300,000원
육임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순서 : 기본편 입문편 전문편 활용편 형이상편 비방편 상담편 운명판단편 세밀정단편 월장편의 순(順) 입니다.

◎ 육임학당 효사숙 비디오강의 1,200,000원(육임강의록 포함 : 총 28개)
육임학당 효사숙에서 실시하고있는 3개월 과정의 강의 내용이 그대로 녹화 되어있어 육임 공부가 독학완성되도록 하였습니다.

◎ 육임학당효사숙 입강안내 1,500,000원(육임강의록 포함)
오는 9월 6일(금)부터 제 3기 강의가 시작 됩니다. 미리 신청해 두셔야만 순서에 들게 되십니다

※ 「한장 한눈으로 판단하는 사주법」과「한장 한눈으로 짓는 작명 감정법」을 코팅처리로 만들었습니다. 만세력이 필요없이 평생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두개 100,000원입니다. 신청하십시오.

▶ 주문전화 : 02-993-8680 ▶ 부산지사 : 051-851-2349 (직접배달-정현철) ▶ 입금구좌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제7차 사키야디타 대회
10개 실천항목 채택 · 폐회

대만 타이베이 화범(華梵)대학에서 7월 11일부터 7일간 열린 제 7차 '사키야디타(Sakyadhita. 부처님의 딸들)' 국제 불교여성대회가 17일 성료됐다.

'선여인(善女人)-세계의 교량'을 주제로 열린 대회의 성공을 축하하는 달라이라마의 메시지 낭독과 국제불교불교여성협회 타이베이 분회 성립 선포 등으로 진행된 폐막식에서 27개국 326명 참가자들은 각계 각층의 보다 많은 여성 불자들이 사회 발전과 평화를 더욱 증진시킬 것을 발원했다.



◇17일 대회를 마친 후 화범대학 본관 앞에서 기념촬영한 27개국 여성 불자들.



◇폐막식에서 참가자들이 사흥서원을 올리고 있다.



◇한국 비구니스님 등 참가자들이 부처님전에 촛불을 공양하며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있다.

테러·가난 반대 세계여성불자들 연대·평등 서원

여성 불자들은 이날 결의한 '대만 선언문'을 통해 "우리 여성 불자들은 지난 해 9.11 테러이후 촉발된 테러리즘과 군국주의, 기아, 가난, 난개발 등에 대해 반대하고 평화와 비폭력, 평등의 문화를 창조할 것을 서원한다"며, 다음과 같은 10개항의 실천항목을 채택했다.

△평화, 조화, 사회적 정의를 위해 일할 불교 여성들의 연대 강화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응용 분야 연구 △불교 여성들의 인류 평화 기여 △불교 전통에서 평등과 화합 추구 △남녀평등의 시각에서 불교를 새롭게 연구 △전세계에 비구니 승단 설립을 위해 노력 △여성의 영적 능력을 키워 존경받도록 한다 △여성들의 불

사키야디타 회장 혜공스님

"비구니 교육·수행담당할 국제여성 불자센터 추진"

교학 연구 및 수행 여건 조성 △국제적인 불교단체들과의 교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 등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전불교와 남전불교의 여성 출가자들의 구족계(具足戒, 비구니계) 수여 불능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미국 출신으로 1980년 한국 법어사에서 비구니계를 받은 사키야디타 회장 혜공(慧空, 티베트 법명 Karma Lekshe Tsomo) 스님은 남방불교 국가들의 비구니계 수여를 독촉하는 국제기구의 성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달라이 라마 역시 축하전문에서 '만약 열린 마음을 가진 존경받는 학자들과 노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 여성 출가대중의 구족계 계율에 대한 문제를 토론한다면 직접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산시아 불광산사 본원에서 예불을 올리는 '부처님의 딸들'. 한국, 대만, 미얀마 등 6개국 참가자들은 각국의 전통에 따라 예불을 올렸다. 얼굴사진은 사키야디타 회장 혜공스님.

2004년 제8차대회 한국서, 사키야디타 한국지부 설치

혜공 스님은 또 20여년전부터 달라이 라마는 비구니 계율에 대한 국제회의를 소집할 것을 건의했다고 소개하고, 인도 보드가야에 비구니 교육 및 수행을 담당할 국제여성불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떻게 지구촌 여성들이 상호협력해 잠재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핵심의제로 11개 분과에서 52명이 주제발표한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한국측에서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능인스님, 석담스님(미 버지니아 주립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조은수 미시간대 교수가 네편의 논문을 발표했다.(본지 377호 3면 기사참조)

특히 이번 대회에서 한국 비구니회회장 광우스님에서 중앙승가대 비구니연구소장 본각스님과 비구니회 사회국장 담교스님 등 4명이 대거 참석, 2004년 제8차 대회의 한국 개최와 관련한 수락 연설을 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사키야디타 한국지부를 결성키로 하고, 한국지부 결성 책임자로 본각스님이 내정됐다.

달라이 라마 축하 메시지

"학자·노수행자들 함께 비구니 계율 토론 필요"

이번 대회에서 각국별로 시범을 보인 예불과 독경에서도 한국의 운율미와 장중함이 주목을 받았으며, 참선 심수實修 시간에는 오랜 전통에서 우러나오는 선정 미禪定美로 과연 '비구니 종주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폐막식이 열린 후, 참가자들은 17~19일 불광산사 등 사찰과 자제공덕회 복지시설 등 불교자선사업의 현장을 참관했다. 국제불교여성협회 즉, 사키야디타(www.sakyadhita.org)는 1987년 2월 인도 보드가야에서 결성된 세계 최대의 불교여성단체. 2년마다 국제대회를 열고 세계평화 증진, 승가의 계율과 여성의 역할 연구, 비구니 승단 설립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재경 기자 gkm@buddhapia.com
사진제공=김홍희(사진가)

"'불교실천 등 주제 한국대회 준비"

사키야디타 대회 한국대표단장 본각스님 인터뷰



"세계 어느 불교국가 보다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는 한국 비구니 승단이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2004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8차 대회를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대만에서 열린 제 7차 사키야디타 대회에 참석하고 20일 귀국한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본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전국비구니회의 역량을 모아 제8차 사키야디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자국내에 2000여 비구니가 있는 스리랑카 비구니들로부터 비구니 계맥이 한국보명사 주관에서 다시 이어졌다며, 감사의 말을 듣기도 했다는 본각 스님은 "세계에서 한국 비구니승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없는 존경과 경외심으로 확인된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어떻게 불교를 실천(수행)할 것인가', '재가 불자에 대한 연구' 등을 이미 가제로 잡아놓은 본각 스님은 1억원에 달하는 소요경비를 마련, 7일간의 본행사와 2박3일간의 사찰 답사 등 10일간의 일정에서 한국 불교를 깊이 체험토록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키야디타 대회의 첫날 개막식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처음 3일간은 서울중앙승가대 또는 동국대 등에서, 3일간은 경주교육회관에서 진행할 계획. 나머지 2박3일간의 답사는 불국사, 통도사를 비롯 내원사, 운문사, 불영사, 석남사 등 비구니선원과 강원에서 참선 등을 체험토록 할 생각이다. 본각스님은 "2004년 서울 사키야디타 대회는 한국 비구니 승단은 물론 한국 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불교계와 정부의 관심 및 지원을 당부했다.



92세 대만 비구니원로…행사 적극후원

대회주관 화범大 설립자 효운스님

제7차 사키야디타 대회를 주관한 대만 화범(華梵)대학의 설립자인 효운(曉雲) 노스님은 92세의 비구니 스님으로서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적극 후원해 찬사를 받았다. 대만 비구니계 원로인 효운 스님은 시종 합장을 하며, 겸손하고도 자상하게 참가자들을 대해 더욱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1990년 대만 최초로 불교와 현대 기술교육의 융합을 시도한 화범대학을 설립한 효운스님은 불교 인재 양성에 깊은 관심을 두고 홍콩에도 불교문화예술학원, 혜해(慧海)중학 등 학교를 세웠다.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수행을 사회로 회향하는 자세가 철저한 대만 비구니계의 상징같은 존재다.

1912년 중국 광동성(廣東省) 남해(南海)에서 태어난 효운스님은 사천(四川) 창원(昌員) 노화상을 은사로 출가했다. 어려서 부친으로부터 서화(書畵)를 배운 효운스님은 '영남(嶺南)의 여화걸(女畵傑)'로 불릴 정도로 재주가 뛰어나 출가이후에도, 인도에서 고인도 문화와 인도예술을 공부하며 불교예술의 지평을 넓혀갔다. 태국의 예술대학 석좌교수, 중국 문화대학 등의 교수로서 철학과 예술을 강의하기도 한 스님은 수많은 전시회를 열고, 논집과 서화집, 시집 등을 발간해 대만의 불교사상 및 불교예술 교육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효운 스님의 '철학 및 예술교육을 통한 인간정토(人間淨土) 구현'의 원력으로 화범대학은 세계 여성 불자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했다. 나약한 여성의 몸이지만 씩씩한 정진으로 자신의 수행, 교육, 사회봉사를 쉬지 않고 펼치는 대만 비구니들의 모습은 세계 비구니들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찬사를 얻기에 충분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봉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㉟ 종지용출품 제15

아비젊고 아들 늙은 비유

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만이 갖춘 서른 두 가지의 특별한 모습(三十二相)을 가진 위덕있는 구도자(菩薩)들이 땅 속에서 솟아 나왔다. 이 구도자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사바세계 아래의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나, 석가모니불께서 자기들에게 중생 교화를 맡긴다는 음성을 듣고 아래로부터 솟아오른 것이다. 이 구도자들 가운데 네 사람의 도사(導師)가 있었다. 첫째의 이름은 뛰어난 행을 하는 상행(上行)이요, 둘째의 이름은 끝없는 행을 하는 무변행(無邊行)이요, 셋째의 이름은 깨끗하고 맑은 행을 하는 정행(淨行)이요, 넷째의 이름은 확고한 행을 하는 안립행(安立行)이다. 이 네 분의 구도자는 대중의 우두머리로서,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는 지도자였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 구도자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자리에 모인 대중들은 이 땅 속에서 솟아난 지용(地涌) 보살(菩薩)의 출현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함과 동시에 한결같이 의문을 품었다. 도대체 이 구도자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 그들이 오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 의해서 교화되었으며 또 어떤 법을 간직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일동의 의문을 구도자 마이트레야(彌勒)가 대중을 대표하여 부처님께 질문한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머리털은 검고 얼굴과 살결이 고운 25세의 젊은이가 백발에 주름투성이인 100세의 노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하고, 그 노인도 '이 분은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는 것처럼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고 여쭙는다. 이것이 '아비 젊고 아들 늙음의 비유' 이다.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석가모니불께서 이렇게 많은 지용의 보살들을 교화해 왔다는 사실이 커다란 놀라움이며 의문이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진실한 말씀만을 하신다고 믿으면서도 마이트레야는 후세의 보살들이 이 〈법화경〉을 의심하고 법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 부처님께 "그 까닭을 말씀하소서" 하고 간청한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이트레야의 최초의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지용보살들이 머문 곳과 교화의 스승, 그리고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가르침에 대해 대답하셨다. 그 대답 가운데의 게송 맨 끝에 "내 아득한 옛날부터 이 대중들을 교화해 왔다"고 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한 이래 40여 년, 현재 이렇게 대중 앞에서 〈법화경〉을 설하며 나이 80에 입멸하시는 석존이 실제로는 우주가 시작된 아득한 옛날부터 수명을 계속 유지하며 교화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이트레야는 물론 현재의 우리들도 이 점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편 이 눈앞의, 나이 80에 입멸하는 우리와 가까운 석존이 실제로는 아득한 옛날부터 수명을 유지하며 지금에 이르렀음을 밝히는 것을 '개근현원(開近顯遠)', 즉 가까운 것을 열어서 먼 것을 나타낸다고 한다. 또 이러한 사실은 35세 성도(成道) 80세에 입멸(入滅)이라는, 현실의 석존에 대한 종래 사람들의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뿌리에서부터 변혁시키는 것이 된다. 한량없는 수명의 부처님이란 어떠한 존재이며 80세에 입멸하시는 현실의 부처님과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 부처님의 신체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이에 대한 해설이 다음의 '여래수량품' 이다. 즉 수량(壽量)이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무량수품(無量壽品)' 이 되므로 지난날의 법화천태종에서는 〈나무묘법연화경〉이 아닌 〈아미타불〉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아야 한다.

▩무설정사 조실

구도자들 지용보살 존재 의심

부처님 "먼 옛날부터 대중교화"

오직 부처님의 법과 자신만을 스승으로 삼아 목숨을 건 용맹정진으로 깨달음을 성취한 아짠문. 철저한 무소유와 엄격한 자기 통제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두타행을 지켜나갔던 그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설법이었다.

아짠 문의 엄격한 수행 가풍을 그대로 이은 마하부와 스님의 숲속의 사원 왓바반탈(Wat Pa Bahn Tahd)은 태국 북부의 우도론(Udron) 지방에 있는 약 100에이커 되는 땅에 자리잡고 있다. 스님들의 거처는 20개 이하로 많지 않으며, 수련은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마하 부와 스님은 자신에게 엄격했던 스승의 방법대로 두타행에 가까운 행법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있다.

스승인 아짠 문이 설한 두타행 계율은 크게 아홉 가지이다. 집집마다 차례로 걸식하기, 식사 후에 음식 안 받기, 하루에 한 끼 식사하기, 한 바루의 음식만 받기, 누더기 가사 걸치기, 숲속에서 지내기, 나무 밑에서 지내기, (내부 또는 외부의) 공동묘지에서 지내기, 세 벌의 가사만 입기 등 부처님 당시의 계율을 거의 그대로 따른다.

태국과 라오스의 다른 숲속 사원과 마찬가지로 왓바반탈에서 가르치는 수련은 매우 단순한 생활을 기초로 한다. 숲속에서의 수행은 고립과 한적함 속에서 마음집중과 관찰이 이어지고, 자기 만족이나 과시의 방일(放逸)이 끼어들 틈이 없다. 숲속 승가에서는 "고(苦)의 소멸을 열망하는 자에게, 숲속의 적막한 수행은 모든 덕의 원천이 된다"고 한다.

이른 아침에 나서는 탁발, 하루 한번의 간단한 식사, 작은 집, 목욕을 위한 우물, 오랜 기간의 묵언 정진, 외딴 숲속, 이와 같은 환경이 세속과는 전혀 다른 숲속 승가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한다. 단순한 수행환경은 수행자들을 더욱 침착하고 소박하게 만들어, 마음과 생활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토록 해 지혜를 계발하게 한다.

제자들은 초라한 거처에 있을 때나 경행 길에 나설 때도 한눈 팔지 않고 수행에 전념한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 온종일 마음챙김과 지혜로 자신들의 마음을 닦는다. 탁발을 하러 갈 때나, 함께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완전한 마음챙김(mahasati)에서 완전한 지혜(mahapanna)를 얻을 때까지 모든 순간과 동작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8정도의 수행을 위해 마음챙김은 필수적인 요소다.

마하 부와 스님의 수행 방식은 그의 스승과 마찬가지로 매우 엄격하다. 발심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약한 제자들은 견뎌내지 못한다. 7일에 한번 골로 정기적인 법회가 있으며, 제자들은 나머지 시간에 자신들의 거처에서 전심전력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언제라도 가르침을 청한다.

수행을 할 때는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시간을 의식하지 않는다. 제자들은 염송하기 위해 발췌한 경구와 지혜의 법문으로 얻은 위빠사나 주제나 수행에 마음을 집중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은 특정한 경지에 오를 수 있고, 꾸준한 노력으로 점진적인 성취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적막한 숲속 승가지만 구도의 길에 나선 수행자들에게는 언제나 문을 개방하고 있다. 다수의 서구인들이 마하 부와 스님이 지도하는 몇 달 간의 위빠사나 수련회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아찬 문이 항상 새로운 제자들에게 바라는 대로 몇 년 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가끔씩 마하 부와 스님은 재가 불자들에게도 가르침을 직접 전하기 위해 방콕과 영국 런던에 간다. 영어로 발행된 그의 법문은 방콕의 왓 바보르니오즈 사원을 통해 전세계의 불자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

마하 부와 스님은 치열한 정진과 함께, 수행자들이 따뜻한 자비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자비심은 수행의 진보를 가져오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다. 스님이 '태국 국민 돕기 운동' 을 벌이며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혈육' 이라는 동체대비심에서 우러난 것이다. 이 운동에는 푸미볼(Phimibol Adulyade) 태국 국왕 등 전 국민이 동참하고 있다.



◇89세의 고령에도 두타행을 쉬지않는 마하부와 스님에게 하루 한끼 공양을 위한 걸식은 가장 중요한 일과다.

마하 부와 스님은 지혜의 계발을 중요시하는 위빠사나 선사이지만, 강하고 지속적인 선정 계발을 강조한다. 선정과 평정심을 계발하기 위해 몸과 마음의 관찰을 통한 지혜 수행을 병행하는 것이다.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함께 닦는 지관겸수(止觀兼修)의 강조는 대소승의 전통이 섞여 있는 태국 승가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마하 부와 스님에 따르면, 선정은 훨씬 더 깊은 지혜를 이끌어 낸다. 마하 부와 스님은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을 말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어떤 특별한 순서에 입각해서 닦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 대신 마음 속에 번뇌가 일어나는 대로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 계, 정, 혜가 동시에 작용하는 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계정혜를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닦아도 안되고, 동시에 계정혜를 떠나서 수련해서도 안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그 외의 모든 번뇌가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고, 누구도 그런 것들을 질서정연하

지혜 선정 깨달음으로



마하부와 스

1980년대부터 한국에서는, 부처님 재세시에 행해
수행자들이 미얀마나 태국 등 남방불교 국가로 건너
그런데 위빠사나라 하여 하나의 수행법만 있는 것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소개된 위
1904~1982)가 체계화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전통을 회통한 아짠 문(Phra Ajahn Mun, 1870~1960)
'아짠(Ajahn, 禪師) 문' 은 위빠사나를 수행방편으
기 최고의 선지식으로 추앙받고 있다. 태국 불교를
르침은 그의 제자인 마하 부와(Maha Boowa) 스님에



◇마하부와 스님은 태국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나 다
듣고있다.

선정·위빠사나

번뇌 이는대로

게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자가 삿
생각을 할 때, 마음에 번뇌를 일으키는데, 어떤 번
가 먼저 오고 나중에 올지는 알 지 못합니다."

마하 부와 스님은 마음을 가라앉히기 힘든 입
자들이 기본적인 선정을 계발하도록 만트라
(mantra, 진언)를 염(念)하거나 송(誦)하기를 권한다
초보자들은 생활환경에서 오는 압박이나 스트레
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붓다'
'달마', 혹은 '승가' 등과 만트라를 예비적인 수
단계에서 염송할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정의
태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지혜 계발의 토대가
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말하자면, 선정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9월 1일 개교합니다.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마음공부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원도 개원합니다.

Ⅰ. 자 격 1) 일반성인 남·여 2) 학력·연령 제한 없음

Ⅱ. 모집기간 2002. 8. 1(목) ~ 8. 31(토)

Ⅲ.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사진 2매(3㎝×4㎝)

Ⅳ. 접수방법
1) 방 문 접 수 : 본 대학 행정실을 방문하여 원서작성 후 학습비와 함께 접수
2) 인터넷접수 : 학습비를 아래 계좌로 입금한 후 www.sgsb.ac.kr로 접수
3) 우 편 접 수 : 아래 계좌로 학습비를 입금한 후 우편으로 송부
※ 계좌번호 : 국민은행 843-25-0012-635(예금주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Ⅴ. 특기사항
1) 소정의 과정수료자에게는 평생교육원장 및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2) 불교상담전문과정은 4학기제로 운영되며, 4학기를 수료하고 소정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분에게는 불교심리상담사 자격증 수여
3) 학점은행제 인가시 수료학점 인정

Ⅵ. 유의사항
1) 가을학기 수업은 2002년 9월 첫주부터 12월 둘째주까지 강의할 예정임.
2) 납입한 학습비는 환불이나 연기되지 않음. (단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신청하여 환불받을 수 있음)
3) 토·일·국경일 및 개교기념일은 휴강함.
4) 수강신청자가 적을 경우 폐강될 수 있음. (폐강시 납부한 학습비 환불)
5) 총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자는 수료대상에서 제외함.

Ⅶ. 문 의 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행정실 전화 02-808-3321, 6582
팩스 02-808-6581 / 홈페이지 www.sgsb.ac.kr

설치 교육과정

설치 과정명	교과목	학점 (이수시간)	학습기간 (주)	학습비	담당교수
불교 교양과정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기초교리)	2(30)	15	150,000원	목정배박사/본교 총장
불교 수행과정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 수련 (참선, 위빠사나)	2(30)	15	150,000원	인경스님(철학박사) /본교초빙교수
상담심리 일반과정	건강한 삶의 비결-요가 (요가심리학의 이론과 실습)	2(30)	15	150,000원	조옥경박사/ 본교초빙교수
	아동·청소년 심리와 올바른 부모역할	2(30)	15	150,000원	김은경박사/ 본교겸임교수
불교상담 전문과정 (1학기)	심리학개론	2(30)	15	150,000원	이현수박사/고대구로병원
	성격심리학	2(30)	15	150,000원	박애선박사/본교전임교수
	상담 및 심리치료	2(30)	15	150,000원	김명권박사/본교전임교수

▶ 불교상담 전문과정은 학기당 3과목 4학기제로 운영되며, 4학기를 수료하고 소정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분에게는 불교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드립니다.
▶ 학점은행제 인가 시 이수한 학점 인정, 고졸자로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분은 학사학위 취득가능

2002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2002년 9월 1일 개교합니다.

Ⅰ. 모집학과 및 인원
1) 모집학과 : 불교(명상)학과 · 상담심리학과
2) 모집인원 : 석사과정 - 00명, 연구과정 - 약간명

Ⅱ. 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부전공과 상관없음)

Ⅲ. 전형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기 간 : 8. 1(목) ~ 8. 17(토)
장 소 : 본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www.sgsb.ac.kr)
2) 전형일시 : 8. 21(수) 10:00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Ⅳ.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사진 2매 3㎝×4㎝) 포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3)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해당자) 1부

Ⅴ. 전 형 료 : 50,000원

Ⅵ. 합격자 발표
1) 일 시 : 2002. 8. 24(토) 10:00 2) 장 소 :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 ☎ (02) 808 - 3321

Ⅶ. 특 전
1) 성적우수자 및 모범학생 장학금 지급
2) 자격증취득가능 불교(명상)학과 - 포교사, 불교명상치료사 / 상담심리학과 - 상담심리사, 상담전문가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 808-3321, 6582 / 팩스 (02) 808-6581

주 소 : 153-0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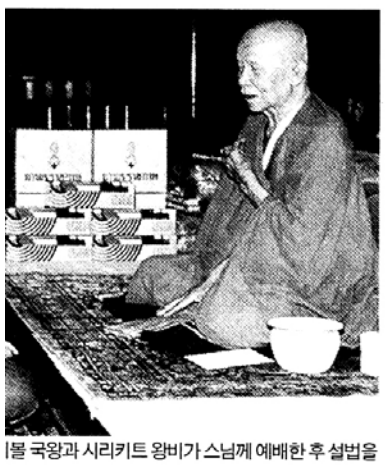
서 울 불 교 대 학 원 대 학 교

는 '두 바퀴'



(태국 왓바반탈선원장)

의 원형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적지 않은 출재가
나 수행법을 닦고 있다.
. 원리는 같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스승에 따라
미얀마의 고승 마하시 선사(Mahasi Sayadaw,
: 아직 생소한 태국의 위빠사나는 대소승의 수행
으로 대표되고 있다.
을 얻은 아라한으로서, 남방불교권에서는 20세
아짠 문의 수행법과 치열한 구도심, 헌신적인 가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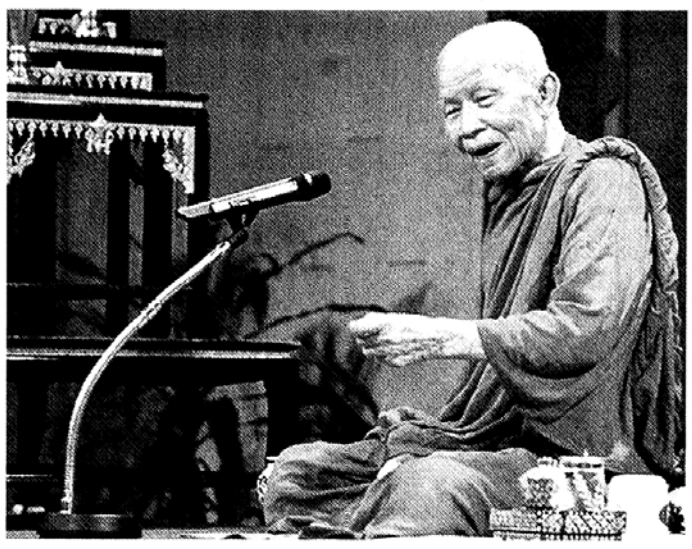


몰 국왕과 시리키트 왕비가 스님께 예배한 후 설법을

수 강조

정·혜 수행을

혜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인언이나 염불 수행이 일념으로 진행돼 일단 고
함이 자리잡히면, 이 집중을 이용해 몸과 마음의
성을 관찰하도록 한다. 그 후에는 바로 마음의 본
을 직시하고 어떻게 무명과 착각이 '나'라는 잘
된 생각을 일으키고,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끝
는 고통을 낳는가를 깨닫게 한다.
마하 부와 스님은 선정이 효과적으로 계발될 수
도록 수행중에 일어나는 시각적인 이미지 등 다
한 현상과 관련된 대응법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님은 수행중에 나타나는 내, 외적인 현상들을 구
하되, 어떤 형태의 선정을 닦더라도 지혜의 중요



◇마하부와 스님은 재가 불자들에게 가르침을 직접 전하기 위해, 방콕의 왓 바보르니오즈 사원이나 영국 런던의 태국사원에서 법문한다. 스님의 법문은 '설법제일 부루나존자'처럼 자상하기로 유명하다.

마하부와 스님은

마하 부와 스님은 1913년 태국 우돈타니에서 출생했다. 어린 나이에 출가한 스님은 일찍부터 빨리어(Pali)와 경전을 공부했으며, 이 때부터 스승없이 위빠사나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후 아라한과를 증득한 것으로 알려진 당대 최고의 고승인 아짠 문(1870~1950) 문하에서 위빠사나와 빨리 삼장을 배운 스님은 눈에 뛰게 수행력을 얻게 됐다.

마하 부와 스님은 아짠 문을 친견하기 이전에 이미 선정(사마타) 명상 중의 일부를 증득했지만, 아짠 문은 만난 즉석에서 '깨달음의 지혜'와 '선정에서 오는 희열' 상태와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한 후 되돌려 보내, 좀더 수련을 쌓게 했다.

이러한 경책을 받은 후 마하 부와는 여러 해 동안 피나는 용맹정진으로 전과는 다른 희열로 충만한 높은 선정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를 숙달함으로써, 대단한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태국 북동부의 숲속에서 아짠 문의 철저한 지도와 장기간의 두타행으로 경학과 수행을 두루 겸비한 아짠 마하 부와는 오늘날 태국을 대표하는 위빠사나 대선사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현재 왓바반탈 사원의 선원장으로서 스승의 가르침대로 철저한 두타행과 엄격한 가풍으로 제자들을 지도하는 한편, '태국 국민 돕기 캠페인'이란 이름아래 이웃을 위한 보시바라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위빠사나 대선사…泰국민돕기운동 벌여

성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수행자들은 어떤 종류의 선정을 얻게 되면 그것에 집착하기 쉽다. 마음이 선정상태에 머물 때,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정에서 나왔을 때도 이러한 깊은 이완(弛緩)의 상태



◇태국 북부 오도론 지방에 위치한 숲속 승가.

를 갈망한다는 사실이다. 비록 수행자가 지혜 명상을 할만큼 충분히 고요해져 있더라도, 지혜의 계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선정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으로, 지혜의 완성을 추구하는 불교적 수행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수행자들이 선정 수행을 통해 마음을 집중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면, 이제 그들은 지혜를 이용해 망상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수련에 들어가게 된다. 수행자는 삼법인(三法印 즉 無常 苦 無我)과 오온(五蘊, 色受想行識) 등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관찰해야 한다.

"정진이 깊어감에 따라, 수행자는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오온과 대자연의 본성을 발견하는 데 완전히 몰두합니다. 그는 오온과 자연의 본질을 쉬지 않고 찾아내려는 간절함 때문에 좀처럼 누워서 잠을 잘 시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삼계의 어디에나 드러나 있는 다르마(法, dharma)는 어떤 상태에서도 욕망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이 수행자의 마음에 명백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써 집착하는 마음을 알아차릴 때, 번뇌는 사라지고 마음은 평안한 상태에 들어가 선정을 얻을 수 있다. '지혜가 선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마하 부와 스님은 "지혜와 선정은 분리할 수 없는 '한 쌍의 다르마'"라고 말한다. 확고부동한 마음 집중과 마음챙김 수련으로 선정과 지혜가 충분히 숙달됐을 때 드디어 '마음의 중심부'를 바로 투과할 수 있다. 이전에는 도저히 발견될 것 같지 않았던 다르가는 마침내 통찰력으로 드러나, 감춰지거나 모호한 것이 하나도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깊은 선정과 지혜 수련으로 무명은 억겁의 세월동안 '절대적 권좌'를 누려왔던 마음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때 사용해야 하는 '금강(지혜)의 검'의 강력한 힘에 의해 무명은 부수어져 사라집니다. 이 순간 수없는 세월동안 무명에 가려져 있던 '도난당했던 물건' 즉, 진리의 전체 모습이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인스님

일본 조동종의 개조(開祖) 도오겐(道元, 1200~1253)선사가 1223년 중국 송나라로 들어갔다. 도오겐은 배에 머무르면서 송나라 사찰과 스님들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이 무렵, 일본상인에게 표고버섯을 사기 위해 아육왕산에서 온 늙은 전좌(부엌일을 담당)스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도오겐은 전좌스님에게 하루 묵어가라고 권했다. 전좌스님은 "내가 없으면 대중스님들의 공양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고 했다. 도오겐은 "스님 한 분이 안 계신다고 해서 공양에 무슨 차질까지 생기겠습니까. 보아하니 연세도 많으신데 경전이나 보며 참선을 하시지, 왜 힘든 주방일을 하십니까?"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전좌스님은 "이국에서 온 젊은이여! 그대는 아직도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문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군."이에 도오겐이 재차 "그러면 수행이 무엇이고, 문자는 무엇입니까?" 묻자, 전좌스님은 "지금 그대가 질문하며 서 있는 발밑을 헛디디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곧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네" 하였다. 전좌스님은 도오겐선사에게 있어 평생 잊지 못하는 스승가운데 한 분이었다.

전좌스님처럼 하찮은 부엌일조차도 수행으로 여기고 자신의 수행보다, 대중수호하기를 부처님 공양하듯이 행하는 수행자가 있는가 하면 포교 일선에서 중생들과 더불어 동사섭(同事攝)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다. 즉 수행자다운 면모를 잃지 않으며, 화려한 장미꽃 같은 존재는 아닐지언정 들판의 민들레 같은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수행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다.

역사에서 피비린내 나는 왕권이 몇번이나 교체되고,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여도 민중들의 삶은 항상 여전히 그대로였다. '민초(民草)'라는 이름으로 어떤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숨소리와 땀, 눈물의 냄새가 풍겼던 이들이 민중들이었고, 이런 민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존재할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단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초래해 세간에 지탄받는 어떤 일이 발생하든간에 상관없이, 묵묵히 불가를 지켜온 수행자들이 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마(dharma)의 강줄기가 면면히 흘러왔으며 승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세상 반이 여자이듯 승가의 반이 비구니스님들이다. 비구니스님들은 민초와 같은 삶과 수행 속에서 중생들의 삶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덧붙이자면, 비구니스님들은 대체로 젊어서는 참선·간경 등으로 수행하다가 나중에는 포교일선에 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나의 잘못된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스님들이 많은것 같다)

승가의 한 귀퉁이에서 묵묵히 평상심이 도(道)임을 몸소 보여주는 스님이 있다. 법인스님인데, 내 도반의 은사이다. 스님은 수행자로 살아나가는데 '참선은 이렇게 해야 하고, 염불·간경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수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행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따스함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냥 서 있는 여여(如如)함'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행하는 길이며 '스님다운 스님' 이전에 '구수한 인간다운 인간의 길'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다.

나는 한 3년전부터 시름시름 많이 아팠다. 감기손님만 해도 나에게 한번 오면 한달 이상을 머물러 떠나지 않았고, 그 외 가지가지로 병치레를 하였다. 이 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평범속 여여함 갖춘 수행자

30년 지극하게 은사 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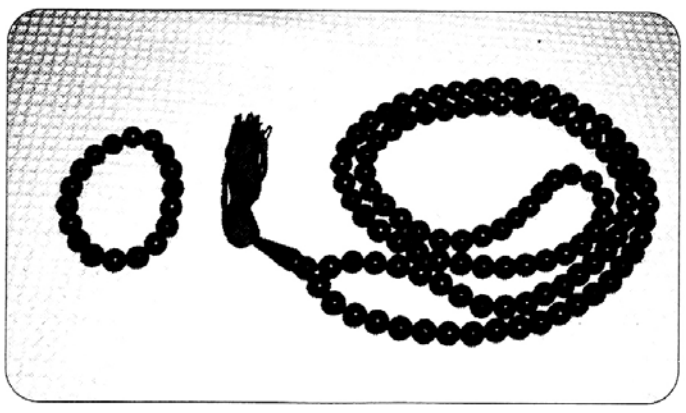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 아프고 그런 아픔을 통해서 인생도 수행도 익어가는 겁니다. 아픈 것도 다 사람 구실 하려고 아픈 것이오. 모든 사람에게 다 육신의 고통이 있는 법인데 특히 스님네에게 육신의 아픔이 없다면 분명 다른 고통이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이 때만 넘기면 괜찮아요…"

지극히 평범한 말이다. 하지만 스님의 이 말씀은 오랜동안 가슴에 자리잡았다. 경전이나 조사어록에서 보았던 것보다 생생한 교훈으로 다가와 삶과 수행을 여일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을 내게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법인스님의 은사스님은 30여년 병을 앓다 올해 2월 세수 99세로 돌아가셨다. 스님께서는 노스님을 정성스럽게 시봉했는데, 시봉을 그저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셨다. 주위 가까운 스님들이, 법인스님이 오랫동안 은사스님을 시봉하느라 자신의 살림살이(수행)를 챙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와 하면서도 법인스님의, 스승에 대한 지극정성과 인품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들 말하곤 했다. 은사스님이 돌아가시자 스님은 상좌(내 도반)에게 자주 여행이나 하자고 하셨단다. 근 30년동안 지병을 앓는 어른스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마음 편히 외출조차 하지 못했고, 잠깐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부담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다. (계속)

서울 니련선하원 한주

신비한 氣 운석 염주, 단주



미국 노벨상 수상자인 헤럴드 윌리박사와 러시아의 코지레프박사는 "氣, 플라즈마" 등으로 불리는 고차원에너지中에서도 가장 근원적이고 큰 에너지의 속성을 『Time』 즉 "시간에너지"라고 정의 내렸다. 시간에너지는 가장 신비하고 중요한 것으로 광파동처럼 전파되지 않고 동시에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작용되며, 시간에너지는 우주의 모든 생명과 연결되고 또한 존재계의 모든 사물을 연결시킨다고 하였다. 특이한 점은 시간에너지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초싸이킥(초정신)력이 매우 높아지고 그런 곳에서는 텔레파시, 염동력, 투시 등 ESP(초능력)의 힘이 크게 강화된다고 한다. 우리가 별똥별 즉, 운석이라고 부르는 외계의 광석 중에는 철운석, 석운석, 텍타이트석등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운석은 텍타이트이다. 텍타이트는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손이 화끈화끈, 따끔따끔, 짜릿해지면서 온몸이 뜨거워지고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그 뜨거운 에너지 장을 느끼기도 할 정도로 신비한 에너지를 나타내고,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앞에 설명한 "시간에너지 氣"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그 사람의 주위 인체 오오라장이 크게 증대되게되어 잠재된 초능력적 소양이 열리게 된다고 한다. 영험한 힘은 소원성취의 기도와 나쁜 운명전환의 탁월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동안 세계의 각종 신비한 氣물품등을 보급하여 왔던 본원에서도 이번에 어렵게 소량을 구하여 용맹정진하는 정신수련 수련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염주와 단주를 만들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전신의 오오라와 경맥 유통 및 잠재능력개발에 큰 힘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 MF정신문화원장 송종훈 (前 스포츠서울 氣칼럼 연재위원)

※텍타이트단주(35만원)와 그 외에 텍타이트108염주, 머니 타이남(물 속 氣광석, 일명 여의주), 라피즈라즐리 등 신비한 힘의 명상용 氣제품들이 있습니다.

02)735-6575 ~ 6 www.mindforce.co.kr



전통가락·신명이 어우러진 소리한마당

장사익 소리판 우리 대한민국



◇장사익 씨는 이번 공연에서 특유의 구성진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열정과 혼을 담아낼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봉화 청량사 산사음악회 연주 모습.

한 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떨쳐낼 신명나는 소리 한마당이 벌어진다.

소리꾼 장사익씨가 8월 15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장사익 소리판 '우리 대한민국'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일년에 한번 견우직녀가 품결처럼 만나는 칠월칠석에 8·15 광복절의 환희를 더하고, 월드컵으로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민족의 힘을 한여름 신명에 얹어 노래하겠다는 의도로 기획됐다. 세계를 감동시켰던 대한민국의 열정과 혼, 그것을 소리로 담아내겠다는 것. 그래서 공연제목도 '우리 대한민국'이다.

장씨는 그동안 자신의 정기공연 외에도 불교인권문화제 외국인 노동자에게 희망을, 제주 4·3위령 음악제, 백범 추모공연 통일음악회, 북한 어린이돕기 기금마련 공연, 성폭력 상담소 후원의 밤 등에서 민중의 아픔을 노래로 위로하고, 경북 봉화 청량사 산사음악회와 충북 진천 보탑사 산사음악회 등에서는 음성공양으로 불자들과 마음을 나누는 등 다채로운 공연활동을 해 왔다.

이번 공연에서 장씨는 자신이 직접 곡을 만든 새 노래 '여행' '낙화' '꿈꾸는 세상' 등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70인조로 구성된 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창작예술집단 '세결음' 대표인 김규형씨의 모듬북, 타악그룹 노름마치의 사물까지 어우러진 공연은 우리 전통가락과 구성지게 꺾어지는 장씨의 노래, 토종의 신명이 삶아 숨쉬는 한 마당으로 꾸며진다. 02)396-0514

광복절 환희·월드컵 열정-혼 표출
자신이 쓴 곡 '여행' · '낙화' 등도 선뵈

문화담당= 이은자 기자 eilee@buddhapia.com

호지에의 전시: 三題

作陶 50년 신정희 도예展 불일미술관

조선 막사발의 맥을 잇는 신정희 옹이 50년 도예 인생을 회고하는 기념 도예전을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갖는다.

"우리 밖에 못 만드는 사발, 이것이 바로 나의 종교이자 깨달음 그 자체"라고 말하는 신 옹은 50년을 하루같이 그릇 빚는 일을 수행 삼아 정진하며 우리의 민족혼을 일깨우고, 우리 그릇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려왔다.

막사발은 조선 서민들이 쓰던 사발을 이르는데, 고려청자와 달리 투박하고 소박한 멋을 지녔다. 신 옹은 이번 전시에서 도예의 업을 이어받고 있는 장남 신한균씨와 함께 우리 사발과 백자, 철화, 진사 등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8월 11일까지.(02)733-5322



◇신정희 作 '진주사발'.

'…3인 판화展' 온라인 전시 8월 20일까지



'이철수 홍성담 정비파 3인 판화전'이 24일~29일 문예진흥원 전시에 이어, 8월 20일까지 온라인(www.historyfund.com) 전시로 계속된다.

이번 전시는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준비했다. 이철수 씨가 '작은 물가에서', '큰가족' 등 27점을, 홍성담 씨는 '5월' 판화 시리즈를 포함 12점, 정비파 씨는 '남산불국토전도'(위 사진), 운주사 천불천탑도 등 총 18점을 선보인다. (02)969-0226

마음·붓질의 자유로움展 해인사서

경남 합천 해인사 구광루에서 8월 1일~20일까지 열리는 김양수 씨의 '마음의 자유로움, 붓질의 자유로움' 전은 질박한 수묵화의 절제미와 여백의 미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중앙미술대학에서 유학한 김씨는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40여점의 모든 작품에 제목을 붙이지 않아 관람자들이 제목에 끄달리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감상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소박하고 평범한 것들을 단아하고 절제된 여백의 미를 통해 표현하고, 이를 저마다 다양한 각도에서 사유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주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02)487-7759



◇김양수 作 '무제(無題)'.

만해 한용운 한시 12편 발굴

권영민 교수, 문학사상 8월호에 전문 공개

간해 한용운스님(1879~1944)이 1909년 일본 청년 승려들의 모임인 화융회(和融會) 기관지 '화융지(和融誌)'에 12편의 한시를 게재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권영민 서울대 교수(국문학)는 이 사실을 확인, 문학사상 8월호에 '한용운의 일본시절'이란 기고와 함께 당시의 한시 전문을 공개했다.

만해스님은 1909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불교 조동종 대학림에서 4개월간 수학했으며, 이 기간동안 일본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를 주도했던 '화융지'(1909년 6월호~9월호)에 시 '사향(思鄕)'과 '산사독야(山寺獨夜)' 등 모두 12편의 한시를 발표했다.

'차가운 등불심지 자르지 않아 붉은 불빛 이어지는데/ 온갖 마음 가라앉아 혼을 보지 못하겠네/ 매화가 꿈길에 들어 학으로 변하더니/ 옷 섶을 잡아끌며 고향을 얘기해주네'(사향, 7언 절구)

권교수는 "만해의 한시는 타국에서 느낀 외로움, 기울어가는 조국에 대한 슬픔 등 개인적 감정을 표현한 게 특색"이라면서 "형식은 한시이지만 시의 주제나 정서는 후기의 한글시와 맥이 통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기 교수 찬불가 앨범

'七寶心' 출시…21곡 담겨



성악가 박진희씨가 정부기 교수(중앙대 음대의 창작 찬불가를 모아 '정부기 교수의 찬불가 노래-칠보심(七寶心)나라뮤직'을 발표했다. 앨범 이름인 칠보심(七寶心)은 박씨의 불명(佛名)이다.

총 21곡이 담긴 이 앨범은 과천챔버오케스트라의 관현악 반주에 전통 국악기를 적절히 사용해 찬불가의 웅장함과 한국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한다.

박씨는 세종대 성악과를 졸업한 후 세종오페라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재 서울 능인선원 입요법회 찬불가를 지도하고 있다.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무더운 여름날 저녁, 오랫동안 한학을 공부한 어느 분의 특강 모임에 참석했다.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는 특강에 들어가기 전에 소동파의 〈적벽부〉를 한 번 읊조리겠노라고 했다. 옛날 선비들은 여름날 모여 앉으면, 으레 더위를 쫓는 데 좋은 〈적벽부〉를 함께 암송했다고 한다. 높았다 낮아졌다 하며 마치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낭랑하게 퍼지는 음성을 듣고 있노라니 마치 동양화 속으로 들어가, 높은 절벽 아래 물과 하늘의 하얀 여백에서 강물의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고 있는 작은 배 안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고문진보〉를 꺼내 한문과 우리말 번역을 대조하며 다시 한 번 〈적벽부〉를 읽어보았다. 불과 몇 백자의 산문시를 통해 왜소한 인간존재가 대우주를 느낄 때의 경이로움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의 무한한 향연을 잘 표현한 명문이었다.

소동파(본명 蘇軾, 1036~1101)는 황제에게 직간한 필화사건으로 나이 40이 넘어 유배를 떠나게 되자, 인생을 숙고하고 불교에 귀의한다. 그는 안국사(安國寺)에서 선(禪)수행에 힘써, 불교에 기초한 인생관을 확립했다. 그는 나이 47세 되던 해 음력 7월 16일에 유배지 황주의 적벽 아래 강으로 친구와 함께 밤배놀이에 나섰다. 드넓은 강 위를 떠돌며 동파가 노래를 부르자, 친구는 퉁소를 꺼내 불며 화답했다. 이어 친구가 옛날 적벽대전에서 백만 대군을 호령하면 조조도 생사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상기하며 인생의 덧없음을 슬퍼할 적에, 동파는 이렇게 위로하였다.

소동파의 적벽가
유배지 황주 적벽강에서 친구와 밤배놀이 즐기며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해

"만일 우주에서 일어나는 변화만을 위주로 해서 본다면, 단 한 순간도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라곤 없이 무상(無常)하네. 그렇지만 불변의 견지에서 사물을 살펴보면, 물(物)과 아(我)가 영원불멸 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네. (…) 강 위로 불어오는 이 산들바람과 산봉우리 위에 솟아 있는 저 밝은 달은 누구나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명체들과 다감한 존재들이 바로 여기 이렇게 놓여 있어 우리 눈과 마주치면 곧 색깔을 띠고, 우리 귀에 부딪치면 곧 소리를 들려주니, 우리가 무상으로 마음대로 즐길 수 있도록 조물주께서 무진장한 선물을 내려 향연을 베풀어주신 것이 아니겠나?"

이 말을 듣고 나자 친구는 미소를 띠었다. 그들은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곯아떨어져 먼동이 터 오는 줄도 모르고 잤다. 〈적벽부〉를 유달리 좋아한 근대중국의 문호 임어당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인생관은 곧 〈적벽부라는〉 한 폭의 산수화에 기초하고 있다. 인생의 속박이나 번거로움은 모두가 이 광활한 세계를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망각해버렸기 때문이다. 인류가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려면, 먼저 우주의 장려함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임어당이 쓴 소동파 전기 〈쾌활한 천재〉에 취하다 보니, 어느새 먼동이 터 온다. 옅대야의 밤에는 독서 삼매에 빠져 선현들과 교감을 나누는 정신적 피서가 최고인 것 같다.

■문학평론가

전화(02)588-0833 팩스(02)588-0835 www.sigongsa.com 시공사

청담 스님의 딸, 성철 스님의 제자인 묘엄 스님 이야기

회색 고무신

불교서점 여시아문 베스트셀러 1위



묘엄 스님 구술 · 윤청광 엮음 | 신국판 | 356쪽 | 값 9,000원

성철 스님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사리!

청담의 딸, 성철의 제자! 세속의 잣대로 보면 왕대밭 소속이다. 그러나 출가 수행이 배경이나 그늘로 성취될 수 있는 여정이던가? 아버지와 스승의 이름은 빵빵한 유산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벽이다…… 노비구니 스님이 조곤조곤 구술한 극적인 일화와 수행의 역정을 격조 있게 꾸민 윤로 방송작가 윤청광 선생의 솜씨도 돋보인다. 잔잔한 웃음이 일고 가끔씩은 아리한 감동이 목구멍을 막는다. 조선일보

속인들이 잘 모르는 절간 생활의 면모, 그 가운데 언뜻 비치는 사람살이의 푸근한 냄새,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구도행 등이 담담한 필치로 그려진다. 한국일보

묘엄 스님은 14살에 청담 스님에게 보내져 청담의 절친한 도반이었던, 전 종정 성철 스님을 스승으로 출가했다. 그 뒤 향곡, 운허, 경봉, 동산, 자운 스님 등 근현대 불교의 대표적인 고승들의 채찍과 자애로운 가르침을 받아 이 나라 최초의 비구니 강사로 성장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엔 근대 고승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다. 한겨레신문



| 푸른 섬 비진도의 작은 스님 이야기 |

꽃담



외딴 섬 스님이 일구는 따뜻한 삶의 뜰

비구니 스님이 비진도 섬 생활을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따뜻한 시선으로 소박하게 담아 낸 산문집.

혜안 스님 지음 | 국판 변형 | 237쪽 | 값 7,500원



맛지마 니까야 전재성 역주



부처님의 대화 가운데 중간크기의 설법을 모아 놓은 팔리어 대장경 '맛지마니까야'(한역 중아함경에 해당)의 한글 번역본이 나왔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회장 전재성 · 사진)는 지난해 '쌍윳다니까야'(전 11권)를 완역한데 이어 〈맛지마니까야〉 1권을 펴냈다. 이번 작업은 독일의 칼 오이겐 노이만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완전복원번역이다.

'중아함경' 세계 두번째 완역

일상어 사용 · 주석 달아 이해 도와
역자 "1년내 5권 펴낼 계획"

맛지마니까야는 중간이라는 뜻의 '맛지마(Majjhima)'와 모음집을 뜻하는 '니까야(Nikaya)'의 합성어로, 152개의 경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쌍윳다니까야'가 역사적인 사건현장에서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면 '맛지마니까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리와 수행체계 중심의 담론으로 집성한 것이다. 때문에 초기불교의 교리체계를 승단적 차원에서 가장 완벽하게 정리한 교리문답서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경전은 부처님 열반 후 제자 500명이 칠엽굴에 모여 가르침을 복원하는 제1결집에서 성립됐다. 이후 암송되어 구전으로 전해오다 부처님 열반 이후 500년 경 스리랑카의 밧타가마니왕 때 기록됐다.

이번에 출간된 맛지마니까야 한글역 1권은 국제빠알리성전협회 원전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붓다고싸의 주석서 빠빤짜쑤다니(滅戱論疏)를 비롯해 칼 노이만의 독일어역과 쿠르트슈미트의 독일어역 그리고 호오너 여사의 영역 등을 참고했다. 어려운 불교용어를 배제하고 현대의 일상어로 번역해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또한 팔만대장경 및 동국역경원 간행 한글대장경의 중아함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경전의 제목에 주를 붙여 표기했고, 521개의 주석을 달아 기존 번역과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전재성 회장은 "맛지마니까야에서는 초기 불교의 건강하고 당당함 담론을 만날 수 있다"며 "담론이 중간 크기인 것은 당대의 사상적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치밀한 논리 전개와 섬세한 비유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한역 경전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르침 자체가 왜곡되거나 난해해진 경우가 많다"며 "원전을 직역함으로써 가르침의 원형을 살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앞으로 1년에 걸쳐 맛지마니까야를 30경씩 나눠 전체 5권으로 펴낼 예정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석 · 박사 과정을 마친 전 회장은 독일 본대학에서 인도학과 티베트학을 연구했으며, 97년 한국빠알리성전협회를 설립해 팔리어 대장경 번역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값 3만원.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교무용 법현 지음



윌드컵 기간 중 봉원사에서는 매일 영산재가 봉행되어 외국인들에게도 불교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부처님의 법문을 몸짓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불교무용은 불교음악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불교의식 중의 하나이다. 30여 년 간 불교무용을 실연하며 이론적 노력까지 곁들여 온 법현 스님(무형문화재 제50호 · 동국대 국악과 교수)이 불교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개론서 〈불교무용〉(운주사)을 펴냈다.

이 책은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불교무용인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타주춤에 대한 기본 춤사위와 진행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각 춤에 맞춰 사용되는 가사와 악보도 실어 놓았으며, 특히 춤의 기본동작에는 이론 설명과 함께 사진을, 가사에는 우리말 번역까지 덧붙여 이해하기 쉽게 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수행의 몸짓'인 불교무용에는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타주춤의 4종류가 있다. 사진은 나비춤의 한 장면.

바라춤 등 체계적 정리 개론서

이 책에서는 또한 의식(재)의 종류를 나열하며 그 규모에 따라 어떤 춤들이 사용되는가도 알려준다. 가령 영혼천도재의식으로 가장 작은 규모의 재(齋)인 '상주권공재' 의식에는 타주무가 없는데 반해, 영산재에는 사용된다. 불교무용의 전승 계보를 비롯해 식당작법 절차, 선무용, 무용반주음악에 이르기까지 불교무용의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풍부한 현장 사진도 폭넓게 수록한 이 책 한권만 읽으면 적어도 불교무용의 군외한이란 소린 들을일이 없을 것 같다.

지은이는 "일반 무용과 달리 불교무용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수행의 몸짓"이라며 "끊임없는 수행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녹아 있는 진정한 춤사위는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값 1만7천원.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화날땐 열을 세라"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담마난다 지음 홍종욱 옮김





인생을 살다보면 분노와 근심, 걱정과 같은 격한 감정들이 자주 생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화가 났을 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망언을 하거나 천박한 행동을 하게 돼 부단한 노력으로 얻은 명예를 한 순간에 잃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좋은 방법은 없을까.

스리랑카 출신으로 1952년부터 회교국인 말레이시아에 정착, 불교를 융성시킨 담마난다 스님(사진)은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홍종욱 옮김, 지혜의 나무)에서 분노를 제어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간 끌기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교육자인 토마스 제퍼슨은 이 방법을 '화가 날 때 입을 열기 전에 열을 세라. 그래도 더 화가 난다면 백까지 세라'는 말로 요약했다.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1967년 '왜 근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초판이 출판된 이래 큰 인기를 얻어 몇 차례 개정판이 나왔다. 또한 이 책은 말레이시아의 큰 스님으로 존경받고 있는 담마난다 스님이 불교를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한 책으로 '분노 다스리기', '마음 알아차리기', '행복찾기', '성공적인 결혼 만들기' 등 구체적인 상황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불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타종교의 가르침이나 잠언, 에세이의 일부를 인용했다.

1부에서는 두려움과 근심의 여러 유형을 나열해 그 원인을 밝히고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인생의 보편적 문제인 괴로움(苦)과 인생의 본질을 불교적 시각에서 분석해 설명했다. 탐욕, 혐오, 무명에서 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2부를 펼쳐보면 도움이 될 듯싶다. 마지막 3부에서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제시해 놓았다.

올해는 담마난다 스님의 말레이시아 정착 5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값 8천9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 근 동	솔 바 람
3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 낫 한	김 영 사
4	꽃은 져도 향기는 그대로일세	명 정	예 문
5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6	시선	원 성	이 레
7	산중에서 길을 묻었더니	서 화 동	은행나무
8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전 재 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9	참선교육1	현 담	도서출판 선
10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100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모델을…

"여기 100가지 죽음의 모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죽음을 택하겠습니까"

수필가 맹난자 씨가 동서양의 예술가 철학자 정치인 등 100여 명의 죽음을 다룬 책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우리출판사)를 펴냈다. 이 책은 지은이가 1998년 펴낸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에 실린 글 중 불교에 관련된 내용을 가려 뽑고,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 여러 장(章)으로 나누어 묶은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지은이는 '죽음을 철학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한다.



'역사 속으로 떠나는 죽음 여행'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번 책에서 비중을 둔 부분은 불교에서 바라보는 죽음이다. 목련존자는 전생의 업을 갚기 위해 죽음을 택했다. 중국 당나라의 혜가 스님도 '빚을 갚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일화를 통해 죽음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전생과 연결된 문제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지은이가 '삶과 죽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6 · 25 피난 중 산골 뒷방에서 본 여동생의 시신과 10년 뒤 중학생이던 남동생의 갑작스런 죽음을 겪고 나서다. 이후 20여 년 간 죽음에 관한 기록이면 무엇이든지 밑줄을 긋고 스크랩을 하며 자료를 모았다.

"처음 자료를 정리하고 원고를 쓸 때는 신념을 가지고 기꺼이 죽음을 택했던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죽음이란 문제를 체감하는 나이가 되자 헝벌 같은 삶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고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는 말한다.

청나라 황제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 되었던 푸이와 인조반정으로 쫓겨나 강화도에 유배돼 구차하게 살았던 공민왕의 삶을 채찍질 삼아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독자들이 책을 통해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더불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이 이 책을 쓴 이유다.

결국 '잘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빈배에 가득한 달빛〉, 〈사유의 뜰〉 등의 수필집을 펴낸 그는 외국의 대문호들과 음악가들의 무덤을 찾아다닌 경험을 〈묘지기행〉이란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책과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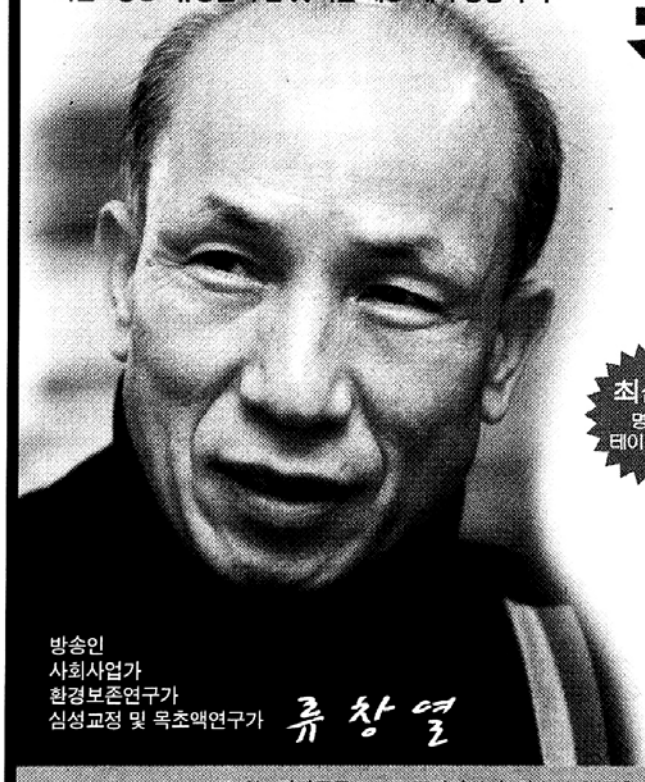
수필가 맹 난 자

예술 · 철학자 죽음 조망

20여년간 관련 기록 수집

인간 승리자들의 모임 챔프그룹 CHAMP
한국 농·종·소(주) CGN.co.Ltd

현재 MBN 매경TV ch20 "류창열의 건강특강" 및 이벤트방송 "류창열의 살 맛 나는 세상"에서 명강의 中



방송인
사회사업가
환경보존연구가
심성교정 및 목초액연구가 류 창 열

건강은 가정의 행복과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질병을 고치는 책

창 나 무 간질환 · 당뇨병 · 암 · 무좀 · 각종 피부병에 놀라운 효과!

목초액이 병을 고친다

노벨상 3회 수상으로 입증된 목초액의 놀라운 효능

목차 제1장 : 목초액이란 / 제2장 : 목초액의 유래 / 제3장 : 목초액의 효능
제4장 : 목초액의 활용법 / 제5장 :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신비의 목초액



값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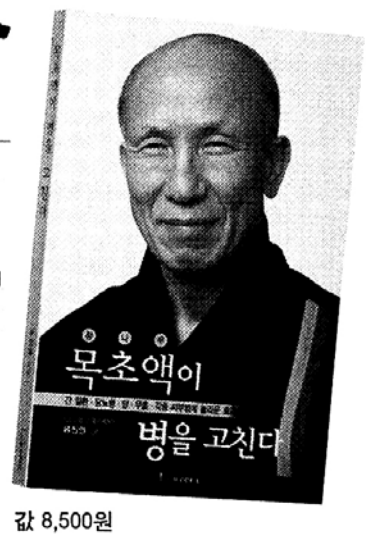
심보를 고쳐야 병이 낫지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인정한 마음건강학
마음이 병을 부르고 마음이 병을 낫게 한다!

飮食과 養食에 의해 건강과 질병으로 변하는 과정

음식 → 입 → 마음 < 부정 → 부패 → 독소 → 탁한 피 → 면역기능 저하 → 세포질병, 노화촉진
궁정 → 소화 → 영양소 → 맑은 피 → 면역기능 상승 → 세포건강, 젊음유지

특전을 드립니다
도서 구매자에 한해 매주 월-목 오후 2시-4시 '건강과 풍요로운 생활'을 주제로 하는 저자 무료공개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값 8,500원

도서는 전화주문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목초 관련 제품 문의 및 주문도 받습니다) / 전화 02)516-8939 팩스 02)516-8923 / 국민은행 754-21-0439-180 예금주 : 김예영 / 전국 어느 서점에서나 판매합니다.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시굴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12세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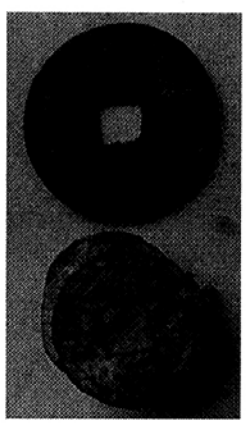
탑 밑에서 12세기 동전 발견 '10세기 조성설' 뒤집어

월정사는 한국판 폼페이 유적인가?

오대산 문수신앙의 중심지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월정사(주지 현해)의 시굴조사(정식 발굴 전에 하는 시험발굴)에서 기존 상식을 뒤엎는 유물들이 잇달아 발견됨에 따라 월정사의 '땅 속 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보 48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탑 아래 토층에서 발견된 12세기 동전(사진 위)과 양녕 · 효령 대군의 이름이 적힌 기와(사진 아래).

그 동안 10세기 무렵 건립됐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뤘던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 48호)의 조성연대가 아무리 빨라야 12세기 이후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승유억불을 내세웠던 조선초기, 세조뿐 아니라 이보다 앞선 세종 때에도 왕실 후원의 중창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기와 조각이 발견된 것이다.

지난 5월부터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벌여온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정각 문화부장)은 24일 "석탑 아래에서 12세기 초 주조돼 사용됐던 동전이 발견됐다"며 "현재의 위치에 탑이 조성된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12세기 초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고려시대 다각다층탑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은 미술사적 양식으로 볼 때 10세기경 조성됐다는 견해가 일제시대 고유섭 이래 미술사학계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1102~1106년 주조돼 사용됐던 숭녕중보(崇寧重寶)가 탑의 옛 지표면 아래에서 발견됨으로써 탑의 조성연대는 12세기 이후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조선시대 기와가 므더기로 쌓여있는 와적층에서 세종 임금의 형과 아우인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의 이름이 새겨진 암막새 기와가 출토됨에 따라 월정사가 세종 28년인 1446년 4월 두 대군의 주도 아래 중창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세조 때 월정사를 중창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지만 세종 때 양녕과 효령대군이 월정사 중창에 참여한 사실은 처음 확인된 것이다.

세종때 양녕 · 효령 대군 중창 주도 확인
전면 발굴로 가람배치 확인 필요성 제기

건물터는 고려와 조선시대 건물터가 탑 주변에서 중복돼 확인되고 있다. 발굴조사단은 "12세기 초 · 중반기에 청자와 기와 조각으로 터를 다지고 탑을 세웠으며 조선 중기 이후 다시 탑 주변에 흙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려시대 건물터는 대체로 현재의 지표면보다 70~80cm 아래서 발견되고 있으며 신라시대 건물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김동현(동국대), 정영호(한국교원대), 문명대(동국대), 최몽룡(서울대) 교수 등 지도위원들은 "너무 부분적인 발굴이라 가람의 전체 성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전면 확대 발굴을 통해 탑이 조성된 고려시대 가람배치를 확인하고, 탑 주변의 하부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탑의 기단석 하부 보강시설이 원래 하천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모래층 위에 세워져 탑의 하중을 견디기에는 극히 취약한 구조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자장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는 월정사는 한국전쟁 때 팔각구층석탑을 제외한 모든 전각이 소실되기까지 모두 8차례에 걸친 화재와 7차례의 중창으로 사찰의 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373종 선정 · 발표

불교관련서적 모두 16종







대한민국학술원(http://nas.go.kr)은 24일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2002년 우수학술 도서' 373종을 선정, 발표했다.

학술원이 이날 발표한 우수 학술 도서 373종 가운데 불교 관련 서적은 인문학 분야 7종, 사회과학 분야 2종, 사회과학의 인문학적 연구 분야와 자연과학의 인문학적 연구 분야 각각 1종, 한국학 분야 3종, 기초과학 분야 2종 등 모두 16종이다.

9월말까지 대학도서관에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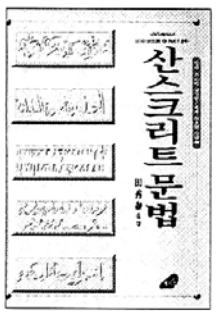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출판된 것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학술원은 9월말까지 이들 도서를 구입해 전국 대학과 전문대학의 도서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선정된 불교 관련 서적은 다음과 같다.

◆인문학 분야 △한국 사상의 비교철학적 해석-원효에서 다산까지(김형효, 청계출판사) △주자의 선불교비판 연구(윤영해, 민족사)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은정희 외 역주, 일지사) △유식무경-유식 불교에서의 인식과 존재(한자경, 예문서원) △근현대 불교의 재조명(김광식, 민족사) △그림으로 보는 불교 이야기(정병삼, 풀빛) △씰크로드학(정수일, 창작과비평사) ◆사회과학 분야 △인지심리학(이정모 외, 학지사) △선과 파블로프의 개-지관(止觀) 상담 및 지관의 행동치료적 응용(김보경, 교육과학사) ◆사회과학의 인문학적 연구 분야 △이븐 바투타 여행기 1 · 2(정수일 역주, 창작과비평사) ◆자연과학의 인문학적 연구 분야 △인지과학(이정민 외, 태학사) ◆한국학 분야 △백제금동대향로(서정록, 학고재) △한국의 마애불(이태호 외, 다른세상) △한국불교음악사연구(박범훈, 장경각) ◆기초과학 분야 △녹색화학 : 더 푸른 지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덕환 옮김, 한승) △생태학-인간과 자연(노태호 외 역, 아카데미서적)

'산스크리트 문법' 국역 출간

영 · 독 · 일 · 불 이어 5번째, 고려대장경 궁금증 해결 실마리



기원전 5세기 파니니가 기록한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법인 '파니니 문법'은 인간의 지혜로 이룬 최대 금자탑의 하나(one of the greatest monuments of human intelligence)라 불린다. 〈산스크리트 문법〉(사진 · 전수태 옮김, 박이정)은 영어, 독어, 불어, 일어에 이은 세계 5번째 파니니 문법 번역서다. 파니니 문법 판본 중 가장 정리가 잘 된 것으로 평가받는 불어판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이다.

산스크리트어는 25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구어로서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문어로서는 파니니에 의해 완벽하게 남아 있다. 이 문법은 실제로 언어를 규정된 그대로 생성해내는 실용적 문법으로 약 400개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니니 문법은 오늘날의 문법서들과는 그 기술방법의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로는 대부분의 현대 문법서들이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등으로 나누어져 기술되는데 반해 이러한 구분 없이 문법의 전 영역에 대해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한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약 10만개의 산스크리트어 문법 규칙 중 정선된 3983개를 노래하듯이 입으로 암송하는 가운데 어휘와 문법 규칙을 공부할 수 있는 암문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기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잡한 문법을 간명하게 표현하기 위한 기호 언어는 암송에도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규칙들에 관련 조항을 표기해 규칙간의 관련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파니니 문법' 바탕 고려대장경 연구
문자사용 등 여러가지 의문 풀릴 것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파니니 문법을 원용한 문법서를 만들기 위한 학자들의 모임인 대장경파니니연구회는 고려대장경연구소와 함께 지난 1998년 고려대장경에 나타난 파니니 문법의 흔적과 그 영향을 조명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이 책을 옮긴 전수태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원은 "파니니 문법을 바탕으로 고려대장경을 연구해 본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법의식과 문자사용에 대한 궁금증들이 풀릴 것"이라고 말한다. 값 4만5천원.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직지' 선사상, 간화선 일변도 경계

"간화선도 한 방편, 근기맞는 수행법 강조
'서방정토' 부정, '유심정토' 입장의 염불관

김종명 교수 발표



"문자에 집착하는 것도 병이지만 간화(看話)에 집착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은 병이다."

지난 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원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1377년 금속활자본 간행)에 나타난 선사상이 당시 고려후기 불교사상의 주류였던 간화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20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국학 대회' 자유주제 분과에서 '〈직지〉의 선사상과 그 의의'를 발표한 김종명 교수(영산대 · 사진)는 "〈직지〉에 나타난 선 사상의 특징은 무심(無心) 혹은 무념(無念) 사상에 있으며, 이는 책이 편찬된 고려 후기의 주류 불교사상과 뚜렷이 구분된다"고 말했다. 서지학적 접근이 아닌 〈직지〉에 담겨있는 선사상의 내용 분석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라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백운경한이 〈직지〉를 편찬한 고려말은 태고보우와 나옹혜근 등에 의해 임제선 중에서도 간화선이 정통으로 일반화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김 교수에 따르면 〈직지〉의 편찬자인 백운은 이 책을 통해 "간화선은 수행의 전부가 아니라 한 방편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망념을 없애는 것(무심, 無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수행의 방법으로 '무심'만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직지〉는 각자의 근기에 맞는 수행 방법을 찾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직지〉에 나타난 계율관과 염불관도 전통적인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고기나 술, 오신채를 허용하고 있으며, 무심 사상이 극락으로 가기 위한 방법론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데 있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염불관에 있어서도 서방정토(西方淨土)설을 부정하고 유심정토(唯心淨土)설의 입장에 서 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직지〉는 중국이라는 특정 지역, 선종이라는 특정 종파의 가르침에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한국불교의 역사적 역할도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승려들의 교재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면서도) 세계사적 중요성이 경감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진묵대사께서 주석하시던 봉서사
주지로 당선되신 이법성스님께
당선 축하 드리옵고
진묵대사의 원력으로 중생교화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불기 2546년 7월 19일

신도회장 황 미 라
전북 완주 봉서사 춘담(재환) 문중. 문도 일동
전북 완주 봉서사 봉서회 사부대중 일동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용시켜 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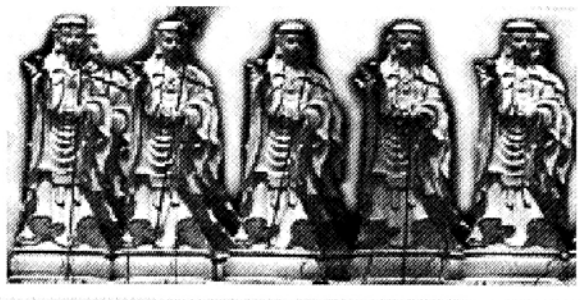
"풀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게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칸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 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지장보살님 (옥불) 조성 안내



◈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으셔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재가불자님의 연락 바랍니다.

◈ 금주산 약수물로 만든 약수 된장

병원에서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은 한 보살이 금용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0가마니, 메주 10가마니, 큰통 10개를 주시면서 만인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낳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된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택배가능)

※ 공양주 보살님 · 행자스님 모십니다.

금 용 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 25 - 8 TEL : 031)533-4405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내 한마음의 스위치를 올려야

악과 인연을 맺는 것
선업을 짓는 모든 것
오로지 마음에 달려 있어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앉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외국에 열 군데나 지원이 생긴 것도 여러분처럼 그 지역 사람들이 자진해서 만든 것입니다. 나는 이날까지 돈을 가져가서 외국 지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며 또는 설법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설법이라는 건, 이론이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고 가지 않으면서도 오고 갈 수 있는 이심전심이라는 것이 있으며, 오고 가지 않으면서도 광력이나 전력 · 자력 · 통신력이 충만히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49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을 너부터 알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너부터 안다면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다 서로 통신할 수 있고, 서로 볼 수 있고, 서로 말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알 수 있고, 서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오신통이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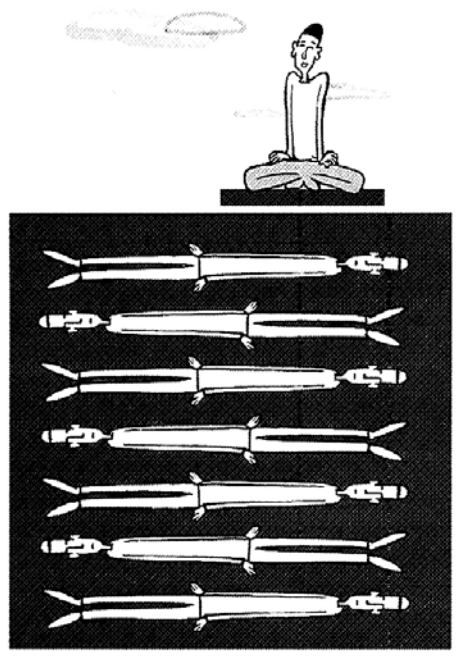
그러나 물질적인 컴퓨터나 탐지기나 망원경, 통신기, 팩시밀리를 가지고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치 정신계의, 미래의 모든 점을 우리가 지금 현실에 굴리면서 사는 이 도리를 알아야 부처님의 골수를 안다 할 것입니다. 그러고도 골수를 알지 못하나마 이 시대를 넓게 생각해서 한번 내다보신다면 내 마음의 세계가 오고 가는 자리가 없으면서도 오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넓고 둥글고, 길고 짧은 것도 없으면서도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그 기반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기복으로만 믿어서 물질 노예가 되느냐 또는 내면세계의 노예가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서산대사가 양쪽에 발을 딛고 내가 나가겠느냐 들어가겠느냐 하고 사명대사한테 물었듯이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똥을 누고 싶을 때, 내가 똥을 누워야 옳은가, 안 누워야 옳은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누십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은 여여하게 놓고 가시면서도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불교는 생활불교이자 과학입니다. 미래도 여기 있고 과거도 여기 있고 현재도 여기 있고, 현재마저도 공해서 우리는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한 것도 벌써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과 아집과 욕심을 떠나지 못해서 전생에서부터 짊어지고 나온 고 덩어리를 놓지 못하면서, 앞으로 사대는 흩어져서 무너지지만 그 고의 배낭은 다시 짊어지고 또 갔다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갖은 고통을 다 받으면서 괴롭게 살고 계시는 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적으나 크나 고통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살면서 인과로서 악업 선업을 지은 고 덩어리를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된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나오는 것이 입력이 되었던, 자꾸만 거기 모여있는 의식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기에 다시 맡겨놓는다면 바로 현실에 입력을 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에 입력된 것은 다 무너져서 없어지고 현실에 입력하는 것만이 되돌아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에서 유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속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의식들이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야만 좋고 나쁘고,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 지를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만이 나쁘고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생각 하는 데로에 몸 속의 그 의식들은 다 따라줍니다. 강도질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강도질을 하게끔 충동을 쳐서 강도질을 하게 만들고, 선의 길을 닦고 또는 좋은 일을 한다 하면은 헤아릴 수 없는 의식들은 그대로 따라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악과 선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악의 인연을 맺는 것도 그 자리, 선의 인연을 맺는 것도 그 자리, 마음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넓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으며 여기 앉아서 여러분 집도 갔다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광대무변하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중요하고 보배롭습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하는 거 아리송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많이 모여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석사,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분들과 더불어 캠퍼스에 모여서 많은 토론들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죠. 이 불교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우리가 서로 말하고 공용하고 부드럽게 공생하고 공식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그 자체가 교(敎)라구요. 우리가 말만해서 교가 아니라 저런 꽃잎도 다 이심전심으로 말없이 말을 하는 것이 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는 풀 한 포기 하나, 꽃 한 송이 하나, 어느 것 하나 불교 아닌 게 없으니 기독교다 가톨릭교다 티베트불교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라는 건 어느 한 귀퉁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죠. 케네디 대통령 묘지에 가보니깐 불이 훨훨 타오르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상징을 했는가? 몸은 비록 없어졌어도 그 영원한 근본만이 살아 있다는 뜻이죠.


그림 · 최주현

그러니 불교가 밥이나 놓고 떡이나 놓고 비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들한테도 "얘들아, 밥을 먹는 데도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이 세상의 일체 선지식들의 마음이 다 한마음이란다. 그러니까 한마음에 감사하면서 먹어라. 그래야 엄마, 아빠한테도 고마운 줄 알지 않겠느냐." 하고 감사하게 먹으라고 할 때에 그것이 가르침이죠. 네가 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세상이 벌어지고, 상대가 생긴 거니까 몰리가 안 터지더라도, 공부가 안 되더라도 거기다가 감사하게 맡기고 그렇게 해서 몰리가 터지도록 하고 그래라, 이 세상에서 너를 누가 도와주겠느냐? 네 주인공만이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줄 때에 자녀들의 뿌리는 썩지 않고 싱싱하게 됨으로써 바로 나무와 가장구와 이파리가 성성하게 푸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서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또는 고부지간이나 모녀지간, 모두 가정이 화목하고 굶주리지 않게 하는 부드러운 행과 부드러운 말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돈도 저절로 따라 들어오게 만들 수 있고, 가난도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들이 부자인데 어찌 가난하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면 가정도 가난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전력이나 내 전력이 똑같고, 예를 들어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전구는 저렇게 다르지만 전력은 다 똑같다는 거를 알게 해야 합니다. 아들 따로 기도 드려주고, 딸 따로 기도 드리고, 부모 따로 드리고 남편 따로 드리고 이런다면, 살림살이하기도 바쁘고 죽겠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 한마음의 스위치를 올리면은 식구가 다 밝게 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진실하게 믿으면서 내 자신의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한마음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물리를 터줄 수가 있고, 좋은 데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또 오래 살게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재난이 있을 때도 거기서 해결을 하고 해결이 되면은 감사하게 거기 맡겨놓을 수 있다면 정말이지 여러분은, 누가 행복을 갖다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고도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적기도 하고 크기도 합니다마는 요즈음 가만히 볼 때 인구는 늘어가고 병이 많아지는 이유도, 참 여러분을 보면 어떤 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 봐도 그렇고 TV를 보다 봐도 그렇고 쓰레기를 그냥 아무 데나 버려서 썩으니 거기서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바로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인과가 뭡니까? 인연이 뭡니까? 여러분이 버린 거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서 도청기가 거기에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몰라도 여러분의 양심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요, 업보가 되는 것이요, 그것을 면치 못하니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썩으면은 나무뿌리가 썩고 우리가 썩은 물을 먹고 또 그 세균은 버린 사람의 인연 따라서 쫓아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버려서 썩어서 벌레가 났다면 바로 입력이 되고 도청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벗어날 수 없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니 그게 와서 내 빈집이 중심을 두지 않고, 껍데기의 빈집이 들어가니 압니까, 나가니 압니까? 털구녕을 통하고 눈을 통하고 귀를 통하고 코를 통해서 그 세균성은 그냥 나한테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병이 들고 괴로움을 같이 가지고 고통을 받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 부처님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 생활에 대해서 저러나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한생각이라도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안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아파도 그 의식 영혼들이, 즉 말하자면 이 몸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 못하고 인과로서 악업 선업이 있어서 그 업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면서 눈에 보이니 한 발짝 떼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 다음에 이차적으로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졸졸이 붙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몸이 그대로 있는 줄 알고, 그 영혼이 물을 건너갈 때 물에 빠져 죽을까봐 배오기를 기다리고 영혼들이 죽 기다리고 섰으니, 5백 생을 기다려도 배는 오지 않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항아리 속에서 우리는 지금 구르고 있고 또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빠져 죽을까봐 건너가지 못하니까 불교에서는 '저 언덕을 넘고 저 물을 건너가세' 하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한 것도 역시 그런 뜻입니다. 좋고 나쁘고, 수북하게 나오는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고, 괜히 신경질 나는 마음, 남의 탓을 하는 마음, 남을 원망하는 마음,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다 보면은 5백 생이 가도 천년 만년이 가도 끝간데 없이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벗어나서 부처님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이 있고 부처님의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 몸이 내 몸이니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아무렇게나 아무 데나 놓고 절하지 말고, 절을 할 때도 마음을 둥글려서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고, 세상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일정례를 올리더라도 마음을 둥글려서 정성스럽게 할 수 있다면, 바로 자기 주인공에 자기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고기 덩어리에다가 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서 내 가정과 사회 국가와 세계를 잘되게 하려면 우주를 알아야 되고, 우주를 알면 세계를 조절할 수가 있고, 또는 우리나라를 조절하려면 세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라 이래서 하는 것도 아니요, 말아라 해서 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가는 것이 바로 자유인인 것입니다. 누구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거나, 칭찬을 받으려고 보시를 하거나 이런 것은 보시가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바로 상인이 물건 파는 그런 마음, 물건 팔아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니, 그래서 무주상 보시를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있기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의 목적은 어떤 것인가. 지금 물질계로 과학도 만능으로 갔지만 우린 정신계와 물질계의 교차로에 바로 서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신계를 무시한다면 아마도 살기가 급급해지리라 믿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거를 브십시오. 또는 우리는 화산을 재료로 삼고 과학자들도 연구재료로 삼고 거기에서 많은 이득이 있었듯이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해서 활력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오고감이 없는 오신통 자체가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 보는 천안통,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팩시미리 바로 신족통, 전체의 소리를 듣는 것이 '무전통신기' 자 바로 천이통, 숙명통이라는 자체가 과거를 전부 아는 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거,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를 숙명통이라고 할 때 그것은 컴퓨터와 같은 거죠. 거기에 입력이 돼서 자꾸자꾸 현실에 나오는 것을 윤명팔자라고 여러분은 이름을 붙여놓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는 마음으로서, 그것이 바로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릴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보배로운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만이 지금 시체로 말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봐도 도가 아니니라,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도 도가 아니니라, 또 과거를 잘 안다고 해도 도가 아니니라, 남의 속을 빤히 잘 안다고 해서 도가 아니니라, 가고 옴이 없이 이 대천세계를 다 가고 온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그 오신통에서 벗어나서 오신통의 그 굴레 바퀴를 굴려야 만이, 법바퀴를 굴려야 만이 바로 누진 즉 레이다망,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통신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소임을 맡아 가지고 레이다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두뇌도 안으로도 통신, 바깥으로도 통신, 그러고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도 바로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만이 아니라 두뇌만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문제들도 그렇다 합니다. 그렇다 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섭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먼데서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것을, 모든 것이 물리가 터진다면 아마 망원경으로 탐험을 못하는 것을 여러분의 천안으로서, 바로 이 마음의 눈으로서 세계를 다 볼 수 있으며, 세상을 다 볼 수 있으며, 조절할 수 있으며 들을 수 있

佛 … 영원한 생명의 근원
教 … 조화를 이루는 그 자체

아제 아제 바라아제

원망하고 신경질내며
항상 남의 탓만 하면
천년 만년 꿈 못 벗어나

습니까마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고무줄 같은 인생에 뜬구름 같은 모습이 다 흩어지고 무엇이 남는 게 있겠습니까마는 정신력, 마음의 차원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로써 너무 치달아서 노예가 된다면 여러분이 죽어도 그 의식 영혼들이, 즉 말하자면 이 몸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 못하고 인과로서 악업 선업이 있어서 그 업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면서 눈에 보이니 한 발짝 떼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 다음에 이차적으로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졸졸이 붙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몸이 그대로 있는 줄 알고, 그 영혼이 물을 건너갈 때 물에 빠져 죽을까봐 배오기를 기다리고 영혼들이 죽 기다리고 섰으니, 5백 생을 기다려도 배는 오지 않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항아리 속에서 우리는 지금 구르고 있고 또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빠져 죽을까봐 건너가지 못하니까 불교에서는 '저 언덕을 넘고 저 물을 건너가세' 하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한 것도 역시 그런 뜻입니다. 좋고 나쁘고, 수북하게 나오는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고, 괜히 신경질 나는 마음, 남의 탓을 하는 마음, 남을 원망하는 마음,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다 보면은 5백 생이 가도 천년 만년이 가도 끝간데 없이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벗어나서 부처님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이 있고 부처님의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 몸이 내 몸이니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아무렇게나 아무 데나 놓고 절하지 말고, 절을 할 때도 마음을 둥글려서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고, 세상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일정례를 올리더라도 마음을 둥글려서 정성스럽게 할 수 있다면, 바로 자기 주인공에 자기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고기 덩어리에다가 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서 내 가정과 사회 국가와 세계를 잘되게 하려면 우주를 알아야 되고, 우주를 알면 세계를 조절할 수가 있고, 또는 우리나라를 조절하려면 세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라 이래서 하는 것도 아니요, 말아라 해서 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가는 것이 바로 자유인인 것입니다. 누구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거나, 칭찬을 받으려고 보시를 하거나 이런 것은 보시가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바로 상인이 물건 파는 그런 마음, 물건 팔아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니, 그래서 무주상 보시를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있기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의 목적은 어떤 것인가. 지금 물질계로 과학도 만능으로 갔지만 우린 정신계와 물질계의 교차로에 바로 서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신계를 무시한다면 아마도 살기가 급급해지리라 믿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거를 브십시오. 또는 우리는 화산을 재료로 삼고 과학자들도 연구재료로 삼고 거기에서 많은 이득이 있었듯이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해서 활력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오고감이 없는 오신통 자체가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 보는 천안통,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팩시미리 바로 신족통, 전체의 소리를 듣는 것이 '무전통신기' 자 바로 천이통, 숙명통이라는 자체가 과거를 전부 아는 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거,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를 숙명통이라고 할 때 그것은 컴퓨터와 같은 거죠. 거기에 입력이 돼서 자꾸자꾸 현실에 나오는 것을 윤명팔자라고 여러분은 이름을 붙여놓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는 마음으로서, 그것이 바로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릴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보배로운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만이 지금 시체로 말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봐도 도가 아니니라,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도 도가 아니니라, 또 과거를 잘 안다고 해도 도가 아니니라, 남의 속을 빤히 잘 안다고 해서 도가 아니니라, 가고 옴이 없이 이 대천세계를 다 가고 온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그 오신통에서 벗어나서 오신통의 그 굴레 바퀴를 굴려야 만이, 법바퀴를 굴려야 만이 바로 누진 즉 레이다망,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통신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소임을 맡아 가지고 레이다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두뇌도 안으로도 통신, 바깥으로도 통신, 그러고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도 바로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만이 아니라 두뇌만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문제들도 그렇다 합니다. 그렇다 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섭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먼데서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것을, 모든 것이 물리가 터진다면 아마 망원경으로 탐험을 못하는 것을 여러분의 천안으로서, 바로 이 마음의 눈으로서 세계를 다 볼 수 있으며, 세상을 다 볼 수 있으며, 조절할 수 있으며 들을 수 있

☞ 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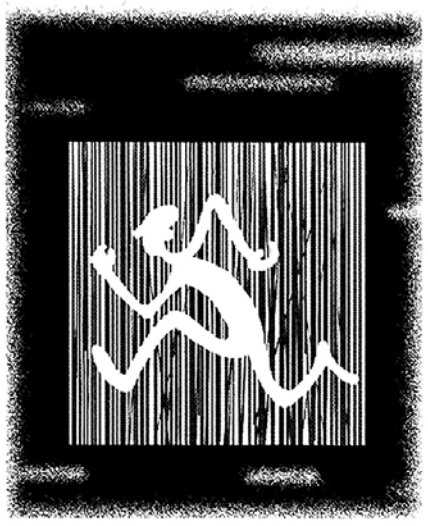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생에 만난 부모만 내 부모 형제만 내 형제 인가요? 자식만 내 자식

☞ 17면에서 계속

으며 가고 올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이 취직해서 나갔다 들어오고 집안에서 일하고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걸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착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데 그 사는 놈이 누구냐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그 놈이 누구냐? 마음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의 몸을 끌고 다닙니다. 가자, 그래야 가고, 오자 그래야 오고, 이렇게 하자 그래야 하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마라 하는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오고 싶어서 왔지 오기 싫으면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절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집 안방도 바로 여래의 집이며, 여러분의 몸도 여래의 집인 것이며, 어느 한 군데 여래의 집 아닌 자리가 없고 한마음 아닌 자리가 없습니다. 사장이 있으면 직원이 있듯이 말입니다. 직원이 없으면 사장이 없고 사장이 없으면 직원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상대성의 원리로서 삼위일체로서 돌아가는 이치와 같이 하늘과 땅도 역시 그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북하면 옛날에 스승들이 그런 말을 했죠. 저 태극기에도 있군요. 보세요. 석삼자가 써 있죠. 하나는 점이 네 개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점이 다섯 개입니다. 삼, 사, 오, 육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는지, 천지의 근본은 인간 살림살이에 다 있다는 얘깁니다. 저 보세요. 육, 과거 삼 현재 삼 자체가 바로 육입니다. 육! 인간의 마음이 다 저렇게 사무 사유가 한데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 천지를 두고 말한 거죠. 위는 태양이 되고 아래는 대지가 돼서 대지는 어머니요, 저 태양은 아버지로서 돌이 아니게 저렇게 한꺼번에 둥글려졌습니다. 저걸 둘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 법 아닌 게 없고 돌 하나 부처님 아닌 게 없고, 화두 아닌 게 없고, 스승 아닌 게 없으니, 어느 교가 옳다 어느 교가 틀리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마는 어느 종교든지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 마시고 나 하나로부터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태초요, 나 하나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내가 나온 것이 화두요, 내가 나왔으니까 이 세상이 벌어졌으니 나부터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내 집에 전화통부터 놔야 전화를 할 수 있고 전화가 올 수 있다' 라는 그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어디부터 믿어야 하냐, 나는 그래 여러분이 절을 해도 내가 받지 않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신경 안씁니다. "아이구, 고맙습니다. 잘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겠으면 오고 말겠으면 말죠, 뭐, 잘 입고 잘 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오래 살려고 했던 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어디를 걷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침착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종교를 믿기 때문에 못 나간다는 생각도 여러분의 생각이지 우주 전체의 생각은 아닙니다.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한마음 속에서 놔서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카세트에다 옛날 노래를 녹음했는데 새로 나온 노래를 다시 녹음한다면 앞서에 입력됐던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신곡 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한생각에 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팔자 운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병고도 붙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프로펠러가 보이지 않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구가 그렇게, 아니 지구뿐이 아니라 모두 그렇게 빠르게 움죽거려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마음으로서 그걸 따라설 수가 없다고 하나,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따라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지 · 수 · 화 · 풍이 뭉치기 때문에 자력이나, 물질적으로는 자석이라고 하지만 자력이나 통신력이나 광력, 전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주의 섭리를, 어떠한 별성, 어떠한 혹성에 전부 생명이 있고, 운동을 하고 돌아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수명이 길고 짧고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자꾸 끄달리기만 하고, 또 의사들이 암이다, 백혈병이다 하고 진단을 내리면,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그 이름에 끄달려서 자기를 자기가 구출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병 이름에도 끄달리지 마시고 지금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살려고 하지도 말고 죽는다는 말에 끄달리지도 말고, 나는 내 재량껏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그대로 음식을 조절해 가면서 기운이 없어지지 않게 하면서, 동물이 지마는 육식을 너무 하면 피가 걸어지더라 하는 상식적으로 해물 같은 거를 먹으면서 여러분이 좀더 마음 자체를, 내가 병난 거 내가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

지금 보세요, 이 몸 속에 정맥 동맥이 돌아가고 혈관이 돌아가고 세포가 돌아가고 있는데 모든 생명들의 의식이 내 마음 지배에 쫓아서 다 들어줄 때에 어느 한 귀퉁이가 마비가 되었다고 할 때에, '얘야! 지금 심부름을 하고 다니는 이 몸뚱이를 이렇게 아프게 해서 되겠느냐?' 하고 내 몸을 내가 죽일 수 없으니까 굳어 들어가는 것을 아주 성능이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여러분은 이름에 속아서 그냥 쓰러져서 죽어버리고 말죠. 그러니깐 어디에도 속지말고 여러분 자신의 주인공을 믿고 맡겨 놓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신다면 아마도 여러분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불성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아마.

어떤 신도 한 분이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신도님들이 다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산부인과 의사인 신도가 공부가 채 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태아들을 떼고 죽이고 그러는 것이 애달파서 그러다가 때에 따라서는 사고가 나는 일이 있거든요. 하치 못한 일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허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도장은 찍어놨겠다 여러분이 뾰족한 수 가졌습니까? 그러니 손해는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의 손해죠. 그러니 여러분의 능력을 길러서 70%든지 65%든지 자기 자신들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질계가 정신계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바로 정신계를 돌아서 물질계로 나온다면 우리 지구도 수명이 길어질 수 있을 거고 차원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늘어나는 인구도 조절할 것이고, 여러분이 다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이 다 해보십시오. 그러니 부처님 당시에 가르치실 때에도 무슨 불상을 모셔놓고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떠한 말을, 여기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만이 여러분이 그 요리를 맛있게 잘 자시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저 뜨문뜨문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 나는 뜨문뜨문 넘어가더라도 여러분은 차근차근히 잘 새겨서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어느 때 사고가 났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피해가 올 것이고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더랍니다. 그랬는데 바로 생각나는 게, 급하니까 선원으로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 하는 소리가 무어라고 하느냐면, '지금 어느 애가 숨을 돌리지 못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의식을 잃었는데 아무리 깨어날 때를 기다려도 깨어나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아니, 온 게 아니라 참 전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나서, 나는 항상 버릇이 그렇습니다. 애가 그러면 '알았다' 이러고 어른이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러고, 또 노인네가 그러면 '정말 알았습니다' 이럽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 아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수억 겁 광년으로부터 미생물에서부터 쫓고 쫓기면서 잡아먹고 잡혀 먹히면서 진화돼서 이렇게 인간까지 올라온 그 자체를 볼 때 우리가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또 딴 데 가서 모이고 그러면서 수없이 거듭거듭 살아 나온 그 인생살이를 체크해볼 때 이 생에서 만난 부모만을 내 부모라고 할까요? 이 생에서 만난 형제만을 내 형제라고 할까요? 이생에서 인연지은 자식만을 내 자식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는 전화를 놓고 나서 가니까 벌써 그 아이의 의식이 깨어나더랍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위 법문은 1991년 8월 25일 대구 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병 · 죽음에 끄달리지 마세요

모든 것 주인공에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불성이 귀중하고 위대함 알게 돼요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영가천도「책자 무료보급」
인간의 길흉회복을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인간의 고통중에서 절반이상이 영가의 장애로부터 온다!
가정불화, 사업부진, 자녀문제, 불의의 사고나 재난,
이중에 절반 이상이 영가의 영향에서부터 온다.
"100% 영가천도 영험도량"

책 자 내 용

제 1장 영가의 실체.
1. 영가천도에 대하여
2. 영가(고혼) 천도의 의미
3. 영가란 무엇인가?
4. 착신현상이란 무엇인가?
5. 영가의 장애와 천도의 필요성

제 2장 천도재에 대하여...
1. 영가천도와 업장소멸.
2. 영가천도의 공덕.
3. 천도재와 위령제의 차이.
4. 수자령영가에 대하여.
5. 효행중의 효행.
6. 지장보살의 시대.
7. 천도재 법문.

제 3장 영가천도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다.
● 영가가 천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
● 영가가 착신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 천도재를 지낸 분들의 체험수기.

그밖에 여러 사례들 - 영가천도 책자 참조 -

100%의 확실한 영가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천도재가 위령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영가천도를 했는데도 영가의 장애라고 느끼거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는 불자가 늘고 있다. 전국에 조상령 혹은 수자령 영가가 천도가 안되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이들이 상당 수에 이른다.
「미륵이 출세할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리라!」
- 지장경 중에서 -

매월 합동 천도재 봉행, 천도재상담 전화 및 무료책자 신청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도량 성 거 사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283번지(독립기념관 IC)
041)567-6820, 041)567-6822

희소식 梵 鍾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염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 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祈禱!!!

☎ : 033-562-1535
H · P : 011-369-2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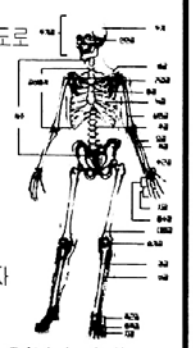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Gollin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 금세기 부산에서 세계 최초공개
고차원 치유에너지 활용법전수생 모집

질병으로 변형된 DNA를 정상적인 DNA로 복원시키는 체계화된 학문교육

강좌개설 속성반(부산교육장)

대 상
가족의 난치병 관리에 많은고통을 겪고계신분.
해외이민희망자. 주부 및 일반인.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코자 하는 生兄之明의 지혜를 가지신 남 녀 모두.
인기폭팔 비만 및 피부미용 샵운영 예정자 등

교육과정 및 능력전수
약이나 氣등의 도움 없이 고차원 치유에너지 인체적용법을 터득하게 되어 암이나, 난치의 제질병 전신무력증, 비만, 피부이상 및 흘쭉이, 피부미용등 비정상 세포를 부작용 없이 몸밖으로 배출시키고 변형된 체세포를 복원시키는 비전의 학문과 능력이 전수 되어, 모든장기의 원상회복 능력자가 되며 특히 비만 및 피부미용에 탁월한 능력자가 된다.

본 학문을 전수받고 난 후 당신의 능력은?
예1) 상대가 중증의 비만인이라 하더라도 하루 1~2시간씩 6일을 조정해 주면 6일 이후 부터 자율적으로 자기표준의 골격을 되찾기 위하여 불필요한 체지방을 몸밖으로 배출하게 되며 제아무리 고통 받고 있는 뚱보라 할지라도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여 옛날에 입었던 옷을 꺼내입기 시작한다 부작용이 전혀없다. 요요현상도 전혀없다 오히려 피부가 아름다워지고 각 장기들의 기능까지 원상회복된다.
- 믿어지시겠습니까? 기적같은 현실입니다 -
예2) 지방간일 경우도 지방이 소멸되간다.
예3) 비만뿐아니고 난치의 질환도 원상회복 되가는 상태를 눈으로 직접확인한다.
예4) ..... 이하생략
※ 종교와는 무관하며 이 학문을 세상에 보급할때가 되었으므로 희망하는 분에게 한정 전수 하며 이미 희망자는 이번을 전수 받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문 의 처 부산시 진구 전포2동 608-1
051) 808-1315 019-831-8351

高次元治癒에너지 人體適用研究學會


◇딸기 스무디


◇솔잎주스

땀 많은 아이들에 수분·원기 보충

과일 · 한방음료 만들기

스무디, 과일영양 그대로

더위로 몰라나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를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에게는 과일음료를, 땀을 많이 흘리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한방음료를 만들어보자.

여름은 과일의 계절. 수박과 참외, 토마토, 포도 등 제철을 맞은 여름과일은 입과 혀를 모두 즐겁게 해준다. 과일은 또 여름철 부족하기 쉬운 수분과 당분을 보충해주며 생체 리듬을 지켜주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 여느 보양식 못지않다.

과일과 얼음을 함께 갈아 마시는 음료 '스무디'는 과일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으면서도 저칼로리이고, 믹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아이스크림을 넣어 달콤한 맛을 연출하거나 입맛에 따라 과일과 다른 재료를 더하면 새로운 스무디가 완성된다. 스무디의 재료인 과일 퓨레는 대형 할인마켓과 백화점에서 구할 수 있고, 집에서 직접 만들수도 있다.

오미자차, 간장 · 신장 보호

여름철 각종 화채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오미자는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의 다섯 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미자를 달여 마시면 땀을 조절하며 더위를 식혀준다. 또한 간장과 신장 등의 장기를 튼튼하게 하며 기침에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다. 오미자에 인삼과 맥문동을 넣어 함께 달여 마시면 원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매실차, 피로회복 큰 효과

구기자는 간장을 보호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고 피로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된다. 또 변을 순조롭게 볼 수 있도록 돕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매실차는 장에 좋다. 위장의 기능을 돕고 음식을 잘못 먹어 일어나는 배탈을 막는다. 또한 매실은 피로 회복의 효과도 있다.

♣딸기 스무디

딸기 퓨레(딸기4개, 우유 1/4컵, 물 · 설탕 적당량) 얼음 1/2컵

1. 냄비에 물과 설탕을 같은 비율로 넣고 약한 불에서 끓여 시럽을 만든 뒤 냉장고에 넣어둔다.

2. 딸기는 깨끗이 씻어 꼭지를 따 놓는다.

3. 시럽 2큰술과 나머지 재료를 함께 믹서에 넣고 1분 동안 갈아낸다. 딸기 퓨레를 사용할 경우에는 퓨레와 얼음을 1:1의 비율로 넣고 간다.

♣복숭아 스무디

복숭아 퓨레(복숭아 통조림 1/2개, 우유 1/4컵, 물 · 설탕 적당량) 얼음 1/4컵. 만드는 법은 딸기 스무디와 같다.

♣오미자차

오미자 100g, 배 1개, 물 1500ml, 꿀 1/2컵, 설탕 1/2컵, 소금 1작은술

1. 오미자는 깨끗한 물에 씻어서 먼지를 제거한다.

2. 생수에 1)을 넣고 12시간을 우려낸 다음, 고운 베보자기에 걸러낸다.

♣솔잎주스

솔잎 200g, 요구르트 10개, 배 1/2개, 생수 1/2컵, 소금 약간

1. 솔잎은 연한 소금물에 담가 손으로 비벼 닦고 여러 번 헹군다. 잘게 자른 솔잎에 요구르트를 넣고 믹서에 갈아 고운체로 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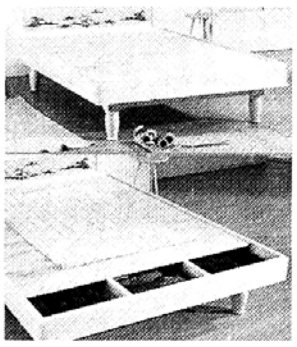
2. 배는 껍질을 벗기고 씨를 도려낸 후 물을 붓고 갈아 체에 거른 다음 솔잎즙과 섞는다.

여성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숙면 도와주는 숯 이용 침구

열대야와 습한 날씨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의 숙면을 도와주는 숯을 이용한 침구제품이 나왔다. 숯은 혈액정화 작용과 전자파 차단의 효과도 있어 다양한 제품재료로 쓰이고 있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숯 침대는 오동나무로 만든 침대 매트 바닥에 통숯을 넣은 것으로 방바닥의 냉기를 차단하고 습기제거, 탈취 및 항균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산사에서나 일반 가정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숯은 어린이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여성의 피부 활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1인용 침대는 58만원이고 매트만 별도 구입 가능하다.

어린이 법요·찬불가집 출간

예불문 · 사찰예절 · 찬불가 274곡 담아



법회에 참석하는 자녀에게 책 한 권을 챙겨주면 어떨까.

불교교육연구원 '법요집 편찬위원회'가 엮은 〈어린이 법요 찬불가집〉(우리출판사)은 법회에 필요한 예불문과 찬불가 등을 담고 있어 처음 법회에 참석하는 어린이도 쉽게 법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펴낸 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꾸며졌다. 1부 '예불과 법회'에서는 예불문과 법회순서, 발원문, 부처님의 생활과 수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절에서 지켜야할 예절과 절하는 방법, 법당과 법구의 명칭과 의미 등을 쉽게 설명해놓았다. 2부 '부처님의 노래'에는 어린이 법회에서 즐겨 부르는 찬불가 274곡을 가려 담았다.

여성단신

'엄마랑 나랑' 프로그램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박물관은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초등학교 저학년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프로그램 '엄마랑 나랑'을 실시한다.

'엄마랑 나랑'은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작품을 읽고 해석해 창작품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현대미술 감상능력을 높이고 예술적인 정서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제는 '하늘에 거는 이야기-움직이는 조각(모빌)'이며 선착순 100가족을 모집한다.

여성 인터넷지킴이 모집 사이버 성폭력 등 감시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는 인터넷상의 채팅방, 커뮤니티 사이트의 사이버 성폭력을 감시하고, 여성인권 보호와 유해정보 추방을 위해 '여성 인터넷 지킴이'를 모집한다.

지킴이 전용 사이트(www.wmonitor.or.kr)를 통해 여성 네티즌을 대상으로 '여성 인터넷 지킴이' 300명을 모집한다. 02)794-4560

주부 신행담

사찰음식과 맺은 인연 上 이여영 (한국사찰음식연구소 소장)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새벽 3시부터 잠을 설쳤다. 여름이건만 새벽 공기는 코끝이 사릴 정도다. 여러 가지 사야할 재료를 적은 메모지를 들고 경동시장 안으로 들어서면 나를 알아보는 시장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시장 사람들의 모습이 생동감 있고 활기차다.

오늘은 사찰음식 강습이 있는 날이다. 사찰음식은 신선한 재료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날마다 장을 본다. 어느새 3년째 계속해오는 일이다. 몸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마음은 뿌듯하고 신바람이 난다. 거기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언제 쓰게 됐는데 세월이 가면서 육식이나 오신채를 가지고 만든 음식보다는 신선하고 깊은 맛이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맛의 자리를 화두삼아 찾아나가는 노력을 전적으로 하게 되었다. 한가지의 나물을 가지고도 찜, 튀김, 전, 국, 볶음 등 나름대로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더불어 남편의 〈초발심자경문〉 집필을 도와서 원고정리하고 교정을 보게 되면서 나는 불교에 대한 기초신앙을 더하게 되었다.

어느 불전이나 다 그렇지만 초발심자

불자독송집 원고정리하며 불교와 인연

'뱀이 물마시면 독을…' 경전구절 큰 감명

경문 가운데 어느 글 어느 말씀 하나 나에게 감명을 주지 않는 글이 없었지만 보조 국사의 초심학인문 끝부분에 참선 대중을 경계하는 글 가운데 '이른바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고 소가 물을 마시게 되면 우유를 이루는 것 처럼 지혜롭게 배우면 보리를 이루지만 어리석게 배우면 생사를 이룬다 함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특히 큰 감명을 받았다. 똑같은 물을 마시고도 독을 만드는 뱀과 우유를 만드는 소의 차이는 똑같은 조건 동일한 환경이지만 성취하는 내용은 참으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문제는 마음의 자세였고 불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고 배웠다. 이렇게 몇 해가 지나는 사이 나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기르는 한편 사찰음식에 대해서도 깊은 소견을 길러갈 수 있었다.

나 감사함이 내 마음 가득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불교를 만난 것은 남편을 통해서였다. 학생시절에도 불교를 좋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불법에 귀의해 독실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남편을 도와 불자독송집의 원고를 정리하면서 〈천수경〉과 〈반야심경〉 등을 접하게 되었으며, 관음신앙에 대한 마음이 막연하게나마 열렸다. 또한 나는 남편을 통해 사찰음식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남편은 육식은 물론 오신채까지도 철저히 금했다. 그것은 불교계율 사상에 따라 살생을 해서는 안된다는 정신과 수행에 지장을 주는 오신채를 금해야 한다는 〈범망경〉의 10중대계(十重大戒) 48경계(輕戒)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였다.

남편의 이런 식생활 때문에 음식을 만들 때 그 영양과 맛에 특별히 신경을

(계속)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볶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친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걱정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걱정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 인 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육신의 영생법

육신의 영생법은 장보승스님이 수십년간 수도 하시어 깨달으신 내용들을 서술한 신앙수기이다.

육체는 죽으면 매장하여 흙이 되거나 화장하여 한줌의 재로 변화여도 결국 흙이며 그 흙은 신체의 일부이자 지구이며 다른 식물의 거름으로 또는 미생물의 영양분으로 활동함을 설파하시면서 육신의 영생법을 알아야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천도 된다는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기도 하셨다.

가정에서 사십구재를 지내는 내용이나 빙법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생활불교의 길잡이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육체이탈 현상이나 악신을 물리치는 퇴마사로서의 경험담도 수록하였다.



● 신국판 260면 정가 1만원 ● 소포비용은 별도

● 연 락 처 : 031)532-6661
017)380-6661
● 계좌번호 : 농협 225070-51-054089 장석근

회사 직원 모집

불자중에서 회사에 같이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우리회사는 외국 전기시험기기와 전기설비 진단장비를 오파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모집구분

◆ 남자직원 2명
- 전기를 전공한 분 30세 이하
- 운전면허 있는 분
- 영어해독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 여자직원 1명
- 영문 PC 작업 가능한 분

KJ 다이나텍 코퍼레이션

전화 : 011)879-3200
www.kjdyna.co.kr
담당 : 부장 김형승

음양체형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서울 서초구 소재 보현정사(주지 보현스님)에서는 현대의 선·후천성 기형, 비만, 체형의 변화에서오는 병상증들이 음양체형관리에 의하여 건강을 되찾고 체력, 활력이 개선되는 것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은 물론 양로원, 장애인, 고아원 등의 소외된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스님의 수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음양체형관리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음양피부체형연구회 홈페이지 www.skin-reform co.kr(com)/음양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 육 안 내

▶ **모집기간** : 수시모집
▶ **교육기간** : 매주 수요일
오전반 AM 10 ~ PM 12시 30분
오후반 AM 7 ~ PM 9시 30분
▶ **교 육 비** : 보현정사 추천에 의하여 무료교육
▶ **교육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9-4
진솔빌딩 B1
(주)음양피부체형연구회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직장재직증명서1통 (전업주부아닌 경우)
▶ **상담 및 문의처**

보현정사 포교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호 이화빌딩 5F
전화번호 : 02)583-1080, 02)521-1415
H · P : 016)321-1080

※ 현 피부미용이나 비만 체형관리실 운영하는 분은 제외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무 함께 보실 분
02)487-8500
02)475-8600

스님 모실분
법회, 제의식
불공 천도 식도
생활역학하는
기도스님
011)9783-6878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마산
055)247-2376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곳
은 **연락**바랍니다
051)462-7374
018)523-737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불심있고 성실하신 분
▷40~60세 사이
054)272-4633
017)502-7451

공양주,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봉구, 월 100만원 지급
02)3491-4848
019)254-4883

공양주 보살님
성실 근면 하고 가족처럼
지낼 닭띠생 소띠생 뱀띠생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숙식가능 독신자우대
급여 월 120만원 이상
강남구 논현동 불자의 집
011)269-7335

불교서적 원함
포교하는데 필요하오니 대장경 기타
불교 서적 보시할 분을 찾습니다.
연락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포교스님 합장
011)556-8541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P : 011)255-3286

대원사 7기 불교기본교육
불교입문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 정성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이번 교육과정에 관심있는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내용 : 사찰예절, 불교일반상식 기본교리, 신행방법 등
• 개강 : 8월 20일 화요일(주, 야간반)
• 위치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 문의 : 대원사 02-404-1374

천도재, 구병시식
▷ 약천사
노원구 쌍계동
02)3391-8523
011)9002-8523
자운 합장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877-7514

『모십니다』
섬진 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백운산 자락 무등암에 서는 함께
수행정진할 행자와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무등산 무등암
전화 061)772-4109/772-5401
휴대폰 011)351-6067

법납 5년 미만 행자 또는 비구스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 북한산 선봉사
02)387-8445
016)381-1319

심야전기온돌난방
▶ 축열식 심야전기 히트온돌난방(M.I CABLE)
▶ 축열식 전기 온수기, 온풍기, 보일러
▶ 온수 바로바로 히팅케이블 보급 시공
스노우멜팅 주차장, 출입구, 언덕, 안전도로
동파방지 및 히팅케이블 냉온수배관, 송유관, 유체라인 등의 보호
한전승인업체
남 강 기 전 02)338-0400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 수 스님 입니다
상주할 인연 사찰을 찾습니다.
016)857-4500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경북 구미에 스님을 도우며 공주하며 사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조계종 스님으로서
혼자 기거하고 있습니다
불심내어 인연되시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금도 충분히 드립니다
054)954-6238
011)529-3713

행자님 모십니다
도심속 수려한 경관 사찰
삼각산 성라사
▷위치 : 성북동 85번지 종점 위
02)743-6630
011)9781-7301

산세수려한 도량에 복 지으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545-2375

조용한 별장 같은 산속 암자입니다
은퇴한 55~65세사이의 노부부로써 암자일을 도우면서 같이 사실 분을 구합니다.
▷속리산 054)535-0378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염주 수입향 불교학세사리 광 약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행 자 모 집 [남]
조계종 관음사[영남불교대학]
1. 도심사찰의 신기원 - 한학기 3천명의 신입생, 7만의 동문신도
2. 민주적 교육에 의한 능력을 갖춘 수행자 배출 목표
3. 수계 후, 모든 지원함.
4. 행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감포분원의 산중 사찰에서 기거할 수도 있슴
조계종 관음사(영남불교대학)
우학(주지 겸 학장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www.TVbuddha.co.kr
행자원 011)9852-0075 [T.053)474-8228]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시내에서 5분거리
• 평수 : 150평
• 인법당, 방 4개, 내부시설 완벽함
• 가액 : 3천 5백만원
054)655-9390
011)9581-9390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 묵계리
• 전 : 557평
• 쾌적한 청정지역, 차진입 전기 해결, 절, 별장으로 적합
• 가액 : 평당 10만원
011)889-6810
017)635-3111

포 교 원 (급) 안 내
• 위치 : 수도권 (신도시 중심상가)
• 규모 : 건물 7층 160평, 대형포교당
• 전세 : 1억 8천, 시설비 1억 7천, 총 : 3억 5천
• 가액 : 3억(답사 후 절충가능)
011)9183-8993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북면
• 평수 : 100평(토굴) 집 3채, 산신각, 관세음보살, 약사여래 모시고 있음
• 가액 : 3천만원
055)271-3291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해인사 055)932-7252 김창본
신부락 011)545-7252 처 사

사 찰 안 내 - 급 구함 -
• 위 치 : 의정부 • 위 치 : 춘천
• 법 당 : 15평 • 법 당 : 10평
• 요 사 : 40평 • 요 사 : 35평
• 부 지 : 1600평 • 부 지 : 6300평
• 가 액 : 7억 • 가 액 : 3억 7천
경기 부평, 인천 부천
경북 풍기(소백산지역)
※ 사찰을 양도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옆
• 건물 : 5층 건물 중 4층(53평)
• 특징 : 시설완벽 포교당 최적지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25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868-5997
051)761-1573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해 교통체 유지
• 4층건물 중 3층, 50평 법당, 주방, 방3개, 주차장완비, 즉시 법회가능, 시설완벽
• 보증금 3000만원 월 46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55)336-5691
017)556-5691

사찰 안내
• 위치 : 계룡신도시 아파트 3만세대 밀집지역
• 대지 : 150평
• 건평 : 99평(법당, 요사, 식당) 3층건물
• 특징 : 현재법당 불사 중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 1천만원
011)436-7529

암자용도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근교, 대구서 50분 ~ 1시간
• 부지 : 밭 600평, 중심에 대지 : 150평 + 계곡부지
• 건물 : 신축한옥 30평(큰방 2, 작은방 2, 큰마루, 부엌, 화장실) 외 창고 12평
• 특징 : 산세수려하고 마당앞엔 시철 흐르는 청정계곡이 있고 마당까지 큰차진입
• 가액 : 7800만원(실제공사비)
054)337-5156
011)9857-5156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계룡사 • 주 지 : 현공법일
• 주 소 : 충남 연기군 전동면 보덕 2구 251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을 공고함
2002. 6. 25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남원 지리산
• 부지 : 12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3억
• 30년 역사의 수행 도량 임
• 위치 : 충남 공주시
• 부지 : 37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5평
• 양도가 : 7천 오백만원
• 산세 좋은 도량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 법당 18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추가 요사채 두채
• 도지 1년 쌀 3가마
• 가액 : 1억 5천만원
02)965-3915
016)349-4341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거사 3리 902번지
• 대지 : 202평(자터) 산밑 기도도량, 산신각 10평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법당에는 삼불부처님, 산신각에는 칠성부처님, 탱화일체, 범종 20권, 인등 30개짜리
• 옥수그릇, 공양그릇 모두 도자기
• 가액 : 7천 5백만원
031)531-5328

토굴안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 법당겸 요사채 50여평 산신각 7평
※ 종중땅임(400여평 사용) 절앞소방도로 확정되었으므로 내년이면 차량진입이 가능
심야보일러 온수보일러 설치
• 가액 : 9천 5백만원(절충가)
011)9770-65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 삼천포 고성 15분거리
• 법당 : 20평 요사채 40평
• 부지 : 650평
• 가액 : 1억 8천만원
011)9528-1686

암자 · 토굴 · 공부터안내
• 지리산 전경과 강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
• 평 수 : 잡종지 100평, 축사 2동
• 전 2000평, 과수원 500평 • 가액 : 6천만원
• 임 야 : 10,000평, 평당 : 일만원
• 잡종지 : 400평, 평당 : 10만원
• 도로완료
055)963-8167/011)863-8167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산에서 밀양사이
• 면적 : 170평
• 법당 : 23평, 요사 : 20평 (마을과 인접한 아담한 사찰)
• 양도가 : 1억 5천
• 위치 : 밀양에서 청도사이
• 면적 : 379평
• 인법당 : 20평 (풍수만점의 완벽한 토굴)
• 양도가 : 1억 5천
부산 영남지방 풍수전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사 찰 부 지 안 내
• 서울 관악산 10,000평
•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 평당 : 25만원
• 경기도 이천 땅 5천평
• 평당 2만원
011)241-0408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울산 1동
• 전체 평수 약 330평
• 전통 유치원
• 시내 중심가
• 덕림산이 주위에 있음
• 가액 : 7억 전세가능 : 2억
011)603-845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광안리 지하철 역
• 3층건물 중 3층
• 평수 : 80평
• 특징 : 시설완벽, 포교당최적지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 3,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1)677-874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덕산 옆
• 평수 : 법당 관음전 7평 임법당 30평(목조 새건축)단청완료
• 대지 : 640평
• 70년 전통의 물좋고 산세수려, 포장도로 완료, 최신식 시설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1)401-5206
041)337-1206

사 찰 양 도 안 내
• 부지(종교용지) : 2013坪 • 法堂 : 13평
• 요사채 : 20坪 매가 : 8억5천만원 • 위치 : 서해안
• 특징 : 1. 1400년된 전통사찰(사지)
2. 마이여래불(지방문화재로 지정 조성연대 고려말로 추정)
3. 암반약수(수량풍부) 4. 자동차 진입 가능
5. 천혜의 자연 경관과 우람한 바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좌청용 우백호가 뚜렷한 대찰터임
6. 지방 문화재 보전 사업비 지원 사찰임
사찰정보센터 :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귀 대창불교건축 귀 대 창 목 재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781-4989
H P 016)768-4324
011)246-2210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보감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종합개발 이종봉 합장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 평수 : 종교부지 97평
• 대지 : 94평
• 법당 : 목조건물 15평
• 지장전 : 1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43)853-477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 평수 : 대지 300평 건평, 요사채 1동 40평 법당 8평
• 가액 : 1억 7천
055)744-2167
011)541-8420

토굴 및 사찰터
• 경남 하동군 화계면
• 대지 220평
• 건평 30평
• 신축 전통황토한옥 두채
• 준농림지 605평
017)356-9414

포교당 안내
• 위치 : 안양시내 2층
• 평수 : 53평
• 법당, 주방, 방 각 1개
• 보증금 1700 월 60만원
시설비 : 내방 후 절충
011)9135-8229

사 찰 안 내
• 위 치 : 수원 • 부지 : 90평
• 법당 : 27평 • 요사 : 35평
• 가액 : 2억 3천만원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 하실 분 전화상담 환영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용도 마음수련원, 별장, 토굴, 기타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내, 대구에서 50분 ~ 1시간
• 부지 : 600평 • 건물 : 3동
• 건물 : 1동 통나무집 1층 50평, 2층 30평, 3층 30평(심야보일러)
건물 2동 벽돌집 25평 방 4, 거실, 주방, 욕실(심야보일러)
건물 3동 육각정
암자 또는 토굴로 사용할 경우 2층은 법당으로 사용가능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마당에는 흐르는 생수 연못과 정자가 있고, 잔디와 소나무 조경이 잘되어 있음
정원 앞에는 마르지 않는 계곡이 있어 항상 시원한 물소리를 즐길 수 있음
채소밭 텃밭이 있고, 과일나무가 있음
마당까지 래미콘 등 대형차 진입
• 양도가 : 3억 3천
011)509-0124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756-4845

포교원 안내
• 위치 : 관악구청 뒤 4차선 도로 옆 4층
• 평수 : 약 30평
• 석가모니불 지장관음, 후불탱화 산신탱화, 신장탱화, 범종 有 앰프 시설 완비, 불기 일체 불단 달집, 영가 단 별도 조성 되었음 주지실방 1개, 화장실, 주방
• 가액 : 보증금 700만원, 월 58만원 시설비 2500만원
• 공찰관계로 살림일체 보시
02)877-435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평수 : 땅 대지 200평 법당(콘크리트 기와) 28평 산신각 2층 5평, 요사채 30평 공양간 5평, 대지 공양간 5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1억 5천만원
052)294-7025
016)9294-7025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통령간
• 부지 : 약 800평(준농림지) 안정 공단 부근, 인구 30만 신도시 개발지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계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바다로 확트이어 아주 좋음
• 가액 : 3000만원(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소태동 제2순환도로 무등산 진입로 부근
• 임 야 : 4천 20평
• 대형차량 진입가능
• 대지 : 400평, 전환가능
• 평당 : 14만원
016)471-8758

불교 이래서 좋다

박종찬 원광대 불교학생회장

"날마다 새로운 자신 발견"



어머니가 부처님의 열성적인 '팬'이었다.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절에 다녔다. 어머니를 따라 시키는 대로 소원을 빌면서 절을 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힘들고 싫은 점도 있었지만,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천팔십배, 삼천배도 너끈히 하게 되었다. 힘들긴 했지만 마치고 나면, 오히려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한 배 한 배 부처님께 절을 올릴 때마다 이슬로 샤워를 한 듯한 청량함이 마치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은 느낌이었다.

불교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연, '인과(因果)의 법칙'과 '하심(下心)' 그리고 '생활이 곧 수행'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흐트러지려는 나를 잡아주었다. 인과를 명심하는 생활은 내 삶의 한 축이 되었다. 나태했던 생활에서 벗어나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더욱 부처님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인과의 법칙'를 믿고 '하심'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면서, 나는 이기주의로 만연된 사회 속에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린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평화와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 요즘 들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부처님 진리가 나의 몸과 마음에 더욱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생활이 곧 수행'을 가르침 삼아 나는 하루하루, 시시각각으로 나태해지는 자신을 일깨우고 있다. 더 열심히 생활하기 위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

내가 세상을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불교. 그리고 어머니같은 부처님. 이제 다른 사람들도 불교의 지혜와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법'의 서원을 간절히 세웠다.

무덥고 짜증스런 여름이다. 축축 처지는 몸과 마음, 학습 의욕이 떨어지기 십상이다.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고3 학생들.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짜증나는 무더위 … 대입수험생 여름나기

규칙적 식사 · 명상으로 극복



◇서울 명성여고 학생들은 학습능력 유지를 위해 3분 동안 명상을 한다.

잠잔 시간보다 얼마나 숙면했나 중요

땀방울 맺힐 정도 20~30분 운동 필수

■규칙적인 식생활= 끼니를 거르면 신체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긴장상태에 놓인다. 그만큼 피로가 심해지고 몸과 마음이 빨리 지치게 된다. 특히 '과식'은 절대 금물. 혈액이 위장관에 몰리고 고혈당이 되어 쉽게 식곤증이 옴에 따라 학습능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 햄버거 등 기름에 튀긴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상책. 이보다는 주스나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숙면이 최고= 잠을 설치기 쉬운 열대야. 수험생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잠이다. 수면은 몇 시간을 자느냐보다 얼마나 숙면을 취하느냐가 관건. 전문가들은 적어도 6~7시간 이상 자야한다고 충고한다. 하루 4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사당오락(四當五落)'은 사실 건강에는 해로울 수 있다.

■집중력 높이는 데 '명상'이 최고= 외부 대상으로 향한 마음을 내면의 한 점에 고정시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명상'. 최근 청소년 심성계발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축축 처지는 몸과 마음, 단 3분이라도 눈을 감아 보자. 호흡을 들이고 내는데 의식을 집중해 나와 호흡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게 하는 호흡법. 편안히 의자에 앉아 들고 나가는 숨에 의식을 자연스럽게 집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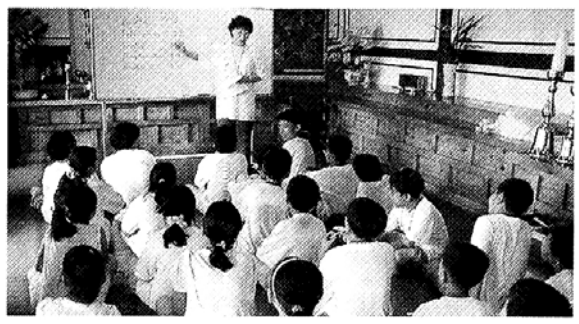
■가벼운 운동= 땀방울이 맺힐 만큼의 20~30분 정도 운동을 꼭 해야 한다. 체력 증진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 탁월하다. 최소 1시간에 한번씩 10~30초 정도 목을 돌리거나 양팔을 뒤로 크게 벌려 여러 번 돌려주는 스트레칭을 하면 정신이 명료해지고, 피로 회복 효과도 볼 수 있다.

명성여자고등학교 김형중 교법사는 "하루 학습량을 다소 줄여 공부에 대한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과 명상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김 교법사는 "학생들이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할 때, 학부모들은 절대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보조자의 위치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청소년 담당=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부처님은 영어로 '붓다' 예요"

김포 용화사, 여름 어린이 영어수련회



◇25일 김포 용화사에서 열린 '어린이불교 영어수련법회'에 참가한 30여 새싹 불자들이 불교영어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다.

"부처님을 영어로 말하면?"

"'붓~다'요."

25일 경기도 김포시 용화사(주지 지관) 법당에서 3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불교영어 삼매경에 빠져 있다. '불교영어 단어 맞추기 게임'. 칠판에 적어놓은 불교영어 단어들을 권영숙 국제포교사가 가리킬 때마다, 두 팀으로 나뉜 아이들이 앞다투어 대답한다.

지관 스님이 이렇게 2박3일간 어린이 영어법회를 연 것은 오직 새싹불자를 기르겠다는 원력 때문.

"영어를 배우려고 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심을 보이더군요"라는 지관 스님은 "다음달부터는 청소년 영어법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031)984-3234



Power1318 가곡경연대회…95명 참가

잊혀져 가는 우리 가곡. '1318세대'만의 문화코드로 불러본다. 20일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부산진구 청소년 어울마당 Power1318 가곡경연대회'. 부산지역 학생 7팀 95명이 참가해 그들만의 언어로 똘똘 뭉쳐진 끼를 맘껏 발산하고 있다. 사진은 수상식이후 다함께 웃고 있는 학생들.

담배를 끊읍시다

세 가지 금연법

▲감연법= 서서히 흡연량을 줄여가면서 끊는 법. 이때 주의할 점은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나 성공률이 높지 못한 점이 흠.

① '웬만하면 눈앞에서 담배를 멀리 둔다' 찾기 힘든 곳에 두고, 재떨이, 라이터, 성냥을 치워버리면, 귀찮아서라도 흡연량이 줄어든다는 것. ② '첫 담배, 되도록 늦게 펴라' 늦게 핀만큼 마지막 담배를 앞당겨 피울 수 있으니깐. 그러다보면 잠자리에 일찍 드는 습관이 길러진다는 것. ③ '담배 안 피는 곳만 골라 다닌다' 공공장소나 교통수단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까. ④ '식후 담배? 양치질로 대신한다' 자극성이 있거나 기름진 음식을 삼가고, 심호흡을 하고 냉수 마시고 일찌감치 '속 차린다'

▲단연법= 단번에 딱 끊는 법. 성공률이 가장 높다. 가장 담배 맛이 없거나, 심신이 한가로울 때, 혹은 직장이 휴무일 때 등 특정 시기를 선택해 단번에 금연을 시도한다. 금연을 시도하기 위한 새로운 생활 계획을 작성한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굳게 먹고 가능한 편안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

▲약물요법= 니코틴 껌이나 패치가 있다. 이는 금연을 실행할 때 금단현상을 방지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약물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장기간 이용하는 것은 삼간다.

①서서히 줄이기 ②단번에 끊기 ③껌 등 활용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여행과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불교유적지 · 사찰순례 모임

답사후 감동 · 여운 글로도

다음 카페의 여행과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http://cafe.daum.net/LoveBu.ddha, 이하 여불사)의 첫 페이지는 단순하다. 그러나 무언가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

여불사 카페는 1999년 8월에 개설돼 현재 회원은 2,309명에 달한다.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은 많지 않지만, 불교 유적지 순례나 사찰 답사모임을 꾸준히 하고 있다. 답사모임만 가지고 자기 수행은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각 지역별로 정기적인 법회도 연다.

여행을 주제로 한 카페답게 사찰과 순례지 소개, 여행자료들이 많이 있고 참가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7월 13~14일은 덕유산 백련사와 진안 마이산 탑사 순례를 마쳤다. 답사 후 받은 감동과 여운을 모든 사람들에게 글로써 보시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다음번에는 더 많은 회원들의 참가를 유도하고 감동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다.



◇'여행과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초기화면.

그밖에 법회안내와 기초교리, 신입법우들이 가입소개를 하는 코너와 자료실 등이 있다. 신입회원이 가입소개를 하면 잊지 않고 꼭 리플을 달아준다. 작은 것 하나도 세심하게 신경 쓴다.

'여불사'는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는 다음 카페에 등록되어 있는데, 서버를 임대해서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 홈페이지 제작에 도움 줄 회원도 모집중이다. 새로운 모습의 '여불사'를 기대하며 우리도 시원한 산사로 순례를 떠나보는 게 어떨까.

이한길 기자 sunggak@buddhapia.com

실버타운 입주안내

1. 입주자격 및 절차
◆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분 및 60세 미만 부부
◆ 소정의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분
◆ 보증인(자녀)과 노인동행으로 직접 내원 상담 후 결정

2.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 1부, 증명사진 3장

3. 시설안내
◆ 3동(96실) ◆ 숙실평형 : 9.5평

4. 부대시설
회의실, 강의실, 진료실, 간호실, 재활치료실, 약국, 사우나, 식당, 세탁실, 강당, 상담실, 휴게실, 수영장, 체련실, 바둑 게이트볼, 삼림욕장, 탁구장, 독서실, 공작실, 서예실, 노래방, 채소재배단지, 온천탕(시공중), 산책로

5.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입주금 중 보증금은 퇴실시나 사후 돌려드립니다.

6. 연 락 처
02)743-0294,011)9781-7301 Fax 02)747-4866

사회복지법인 성라실버타운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부처님 호흡법 특별수련

◆ 절할 때 흡흡호 호흡법 ◆ 염불, 독경 호흡법
◆ 참선 호흡법 ◆ 와선 호흡법
◆ 행선 호흡법 ◆ 자동 단전 호흡법
◆ 선체조 도인 호흡법

◆ 들숨 시 어깨나 가슴이 들먹 거리며 올라가고, 배가 들어 가는 호흡은 슬퍼 울 때나, 놀랐을 때 하는 비정상적인 호흡으로 재앙을 부르는 호흡입니다. 특히, 염불이나 동경 시 주의해야 합니다.
◆ 명치 끝 배꼽 주변, 중단전, 단전부분이 딱딱하고 뻣뻣하고 누르면 아픈 통증이 있을 때 호흡 수련을 하면 심신에 이상이 오니 절대 주의 하시고 특별 지도를 받으시면 짧은 시일 내에 극복 됩니다.
◆ 머리로만 수행하면 가슴이 막혀 상기병이 되니 몸이 망가지고, 몸으로만 수행하면 머리가 뻣뻣해져 마음 다스림이 잘 되지 않으니 심신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 호흡에 맞춰 절 하는 법, 염불, 독경처럼 날숨을 길게 하는 것이 알파파 상태에서 엔돌핀, 토파민, 생장 호르몬과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심신 건강에 가장 확실한 수행입니다.
◆ 자동 단전 호흡법을 체득하시면 氣의 막이 생겨 눈꺼풀, 속눈섭, 눈동자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으며,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머리는 맑고, 눈은 시원하며, 몸은 따뜻해지는 수승화강을 20분 이내에 체득하게 되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 일 시 : 언제나 수시로(8월 한달간 : 3일전 예약)
■ 준비물 : 세면도구, 편안한 복장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금강지혜보궁불사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 요

목초수액시트 가격인하

잠자는 동안 발바닥에 붙어 온몸을 상쾌하게!!
발바닥에 붙여 몸속 노폐물을 빼내는 화제의 상품 목초 수액시트!!!

요도선물용최적 골드 150매 판매중



◎ 발은 제2의 심장 전신의 급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44,000원 → 30,000원 / 30매(㈜別) : 일반 85,000원 → 60,000원 / 60매
50,000원 → 40,000원 / 30매(골드) 160,000원 / 150매
50,000원 → 45,000원 / 30매(일본산) 99,000원 → 85,000원 / 60매

※ 이런 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온몸이 차거나 저리거나 팔 다리가 쑤시는 불편하신 부모님
•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수험생,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
• 산후조리 및 자고나면 손발이 붓는 분
• 수술 및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분
•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
• 이유 없이 항상 피곤하신 분

자애풍 : 일반목초액 500cc 20,000원, 식용 목초액 900cc 120,000원
목초비누 3개 30,000원

www.GAJA.TV 송금후 1~3일 택배로 배달

판매원 : 가자라이프
상담(02) 5454-010
농협: 063-02-124288
국민: 010-01-0617-701
예금주 : 이수일



◇금강대학교 강의동 전경.

천태종립 금강大 개교 앞서 현장설명회

"최첨단시설로 전문인 양성"

무선 LAN설치 운동장서도 인터넷
인공위성 수신 통합방송 · 화상강의도
2인1실 기숙사 무료, 전교생 장학금

뒤에는 푸르른 숲이 우거진 계룡산 자락이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고 앞쪽으로 전망이 툭 트인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9 금강대학교. 3만5천평 잘 닦여진 대지에 연건평 3천7백여평 강의동을 비롯 건물들이 자리잡고 있다. 학교 본부와 강의실, 교수연구실이 있는 강의동은 건물이 완공돼 내부 집기가 채워지고 있다. 오는 9월 완공되는 기숙사 2동은 한창 마무리 공사중이다.

'자아완성, 국가와 사회, 인류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립되는 불교계 4번째 종립대학인 천태종립 금강대가 강의동 건물 준공을 계기로 22일 논산 현장에서 새 교사(校舍) 공개와 함께 학교 설명회를 가졌다.

연면적 3,700여평의 지하 1층 지상 5층 강의동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있었다. 계단식 세미나실을 비롯 어느 강의실에서건 인터넷을 통한 화상강의가 가능하도록 했고 도서관과 기숙사, 운동장에서도 무선 랜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위성 수신과 방송제작도 가능한 통합방송실은 기존의 유수대학에서조차 부러워할 만한 첨단 디지털 장비로 이루어졌다. 금강학원 사무처장 월장스님은 "외국 유수대학에 있는 세계적 석학이 인공위성을 통해 화상특강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스님은 "종합대 못지않은 중앙전산실, 동시통역실습실, 국제회의실 등은 국제적인 전문인을 키우기위한 면학시설"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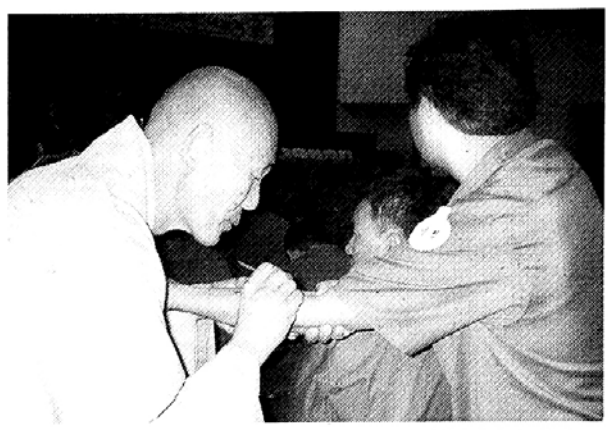
금강대는 학생들의 교육과 문화향유, 편의를 위한 시설을 곳곳에 배려했다. 건물 옥상에는 휴식공간과 소공연장이 마련돼 학생들이 연극, 음악회 등 문화 이벤트를 할수 있도록 했다. 2인 1실의 기숙사는 무료이며 독서실 헬스장 등 학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 금강대는 외국인 학생을 초청하여 학생들과의 공동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안목과 감각을 익히도록 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천태종은 6월 22일 학교건물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금강불교학원은 6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금강대학교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학설립 실사과정을 거쳐 10월인가를 받게 되면 내년 3월 정식 개교, 불교문화학부(불교학 전공), 통역학부(영어학 전공, 일어학 전공, 중국어학 전공), 사회과학부(사회복지학 전공) 등 5개 전공분야 총 100명(전공별 20명씩)의 학생을 선발한다.

금강대는 입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논산 = 이경숙 기자



◇홍천 금용사 주지 삼현스님이 춘천교도소의 한 재소자에게 연비하고 있다.

춘천교도소 재소자 수계법회

성민스님 "모범수 30명에 매월 영치금 지원"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19일 춘천교도소에서 재소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홍천 금용사 주지 삼현스님과 불자교정인연합회 오희창 회장, 포교사단 양성홍 수석부단장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포교원 연구실장 정호스님은 계사를 통해 "수계의식은 불교신자가 되는 통과의례이며, 계를 지켜 나감으로써 건전한 사회 생활과 수행을 하는 참다운 불자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모두 92명의 재소자가 참석한 이날 수계법회에 이어 대한불자 가수회 김활선 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가수들과 한국 외국어대학교 클래식 기타 동아리 학생들이 2시 간여 동안 축하공연을 펼쳐 재소자들의 얼굴에 모처럼 환한 미소가 담겼다.

한편 홍천 백락사 주지 성민스님은 모범수 30 명에게 매월 만원씩 영치금 지원을 약속했다. 춘천교도소 한철호 소장은 김활선 불자가수회 회장(포교사단 교도소1팀장)과 조철주포교사(교도소5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템플스테이 포교효과 크다

종교분포 무교 33 가톨릭 25 개신교18% 차지
참가이유 '한국불교 체험' 45 '호기심' 35%

조계종, 사업보고서 발간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한국전통불교문화체험 사업에 참가한 855명의 외국인 참가자(해외거주자는 547명)의 종교분포는 무교(33%), 가톨릭(25%), 개신교(18%), 불교(12%), 기타(7%), 이슬람(3%) 등으로 나타나, 비불자들에 대한 포교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최근 발간한 〈월드컵 템플스테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템플스테이 참가이유가 한국불교 체험(45.2%), 불교에 대한 호기심(31.9%), 교육적 가치(4.4%), 주변의 권유(4.4%), 자연경관(2.2%), 저렴한 숙박비(1.5%) 등으로 조사돼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또 참가자들은 교통 편이성(91.3%), 음식 맛(70.6%), 숙소(87.5%) 및 샤워(79%) · 화장실(95.5%) 시설, 의사소통(77.4%) 등에 만족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재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6%가, 타인 추천 여부 문항에는 93%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외국인들은 등만들기, 다도, 예불, 발우공양, 참선 등의 순으로 프로그램을 선호했으며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한국불교에 대한 우호적인 느낌을 갖고 들아간 것으로 평가됐다.

김재경 기자



◇청도 운문사 어린이 불교학교에 참가한 500여 새싹 불자들이 '부처님 되세요'라는 주제에 화답하듯 의젓하게 좌선을 배우고 있다. 사진제공=운문사

방글라데시 사찰건립 지원

한 · 방글라 후원회

한 방글라데시후원회(회장 고연희)는 20일 서울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방글라데시에 사찰건립을 후원하기 위해 영어로 진행하는 '불교미술 강의'와 옷 바자회를 마련했다.

영국 캔사스대학 박사과정의 루이스 모리슨씨와 국제포교사 이수정씨가 한국의 탱화를 중심으로 한국불교미술에 대해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방글라데시 옷을 염가에 판매하는 바자회도 마련했다.

후원회 회장인 고연희 조계종 국제포교사는 "이번 행사가 이슬람의 탄압으로 고통받는 방글라데시 불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랜 불교국가였던 방글라데시는 지난 88년 회교국가로 공식 선포된 이후 전인구의 85%이상이 무슬림화 되었고, 1%가 안되는 불교도 백만여명이 정부의 암묵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김재경 기자

청도 운문사 어린이 여름학교 열어

경북 청도 운문사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제 24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교장 운문승가대학장 명성스님)를 학인스님들의 기획과 운영으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500 여명이 참가한 이번 불교학교는 '부처님 되세요'라는 주제로 부처님 일대기를 전하는데 주력했으며, 회향일에는 고학년에게 어린이 5계를 수여해 어린 불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 김재경 기자

목탁소리

부산시·고속철공단 속내

천 미 희 (부산 주재기자)

퇴약볕 아래 내원사 대중스님들이 부산 시내에서 삼보일배 정진을 한 다음날인 25일, 고속철도 공단 채영석 이사장과 실무자들은 부산시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런데 내원사 대중스님들의 머리에 입은 화상의 물집이 채 아물지도 전, 긴급하게 기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고속철 공단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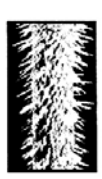
이날 기자간담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기다리던 지율스님과 불교계 기자들의 참석은 출입기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제되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불청객'의 등장으로 속내를 드러내지 못한 공단 관계자들은 예정보다 30분 앞당겨 간담회를 서둘러 끝내고 급히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고, 여기서도 '고속철 공단의 입장만 듣고 가겠다'는 불교계 기자와 지율스님의 참석을 막았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율스님과 불교계 기자를 막아선 사람이 공단 관계자나 기자단이 아닌 부산시청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다.

한바탕 몸싸움과 언쟁이 오간 이날 그동안 부산시와 고속철 공단이 한결같이 보여왔던 노선 변경 불가와 조기완공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을 뿐이다. 그동안 공단은 천성산 관통 구간에 대해 내원사와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기로 해놓고도, 일방적으로 기관을 정해 조사를 강행하려다 내원사와 산내 암자의 강력 반발로 중지한 상태다. 또한 부산시는 삼보일배 정진이 있었던 당일, 부산시청에서 고속철 조기완공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회의를 열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스님들이 삼보일배 내내 흘렸던 땀과 눈물은 물론, 불교계와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고속철과 부산시의 불교계를 무시한 이같은 막무가내식 처사를 불자와 시민들은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가시오가피

일반오가피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KNS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최면 수련생 모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면-전생을 통하여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전생(前生)의 문을 열면 당신의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
① 타인최면유도 ② 최면으로 하는 제령(際靈) ③ 원격최면 ④ 전생퇴행최면 ⑤ 파동(波動)요법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 강의시간 : 주 3시간, 3개월 과정
◈ 문 의 처 : 051)806-8500, 051)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법운 선생님 약력
■ 2001년 SBS 호기심천국 출연
■ 2002년 KBS 'VJ 특공대' 출연
■ 동래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 '97년 PSB 아침 특종뉴스 출연 (운명학)
■ '98년 PSB 휴일새아침 출연 (관상학)
■ 대한 초능력협회 회원
■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 세계아미포 기공협회 회장
■ 현 '삼경그룹' 고문으로 재직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동방최면전생연구소



◇내원사 혜등 · 지율 스님, 가톨릭 신부 · 수녀 등 50여명은 24일 "금정산 · 천성산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부산시청을 출발해 3시간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3보1배 정진했다.
사진=천미희 기자

금정 · 천성산 파괴 총력 반대

스님 · 수녀 등 50명 고속철 저지 3보1배…단식 돌입

부산시민 95% '山 관통 반대'

부산시와 고속철 공단이 금정산 천성산을 관통하는 고속철 강행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정산과 천성산을 지키려는 불교계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정산 고속철도 통과반대 시민종교대책위원회'와 '금정산 · 천성산 공동대책위' 주최의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통과반대를 위한 2차 토론회가 22일 열린데 이어 24일에는 내원사 대중스님 50여명이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생명존중 3보1배 정진'을 가졌다. 또한 26일에는 금정산 · 천성산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부산결의대회를 범어사 경외주차장에서 열고 대통령에 보내는 항의서한과 공동결의문 등을 채택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지율(내원사 산감) · 정여(여여선원장) · 범산(영주암 주지) 등 스님 8명은 안상영 부산시장이 노선변경을 약속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며 시청앞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천성산 내원사 주지 혜등스님, 산감 지율스님, 윤희동 신부, 성분도수녀원, 내원사 선원 대중스님 등 50여명은 24일 천성산 금정산의 뭇 생명을 살리겠다는 서원을 담은 3보1배의 정진으로 총력 반대에 돌입했다. 부산시청 정문 앞을 출발, 시경, 부산시청 후문, 시의회를 거치며 시청앞으로 돌아오기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된 이날 정진에서 참가 종교인들은 '금정산이, 천성산이 울고 있다'는 대국민성명을 통해 "부산과 양산 시민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수려한 절경을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인 천성산과 금정산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에 앞서 22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경부고속철 대구 부산 구간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 · 진동의 피해가 축소 보고되었거나 간과되었다는 연구발표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고속터널주변 고속전철 통과지역의 소음 · 진동의 형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김화일 부산가톨릭대 산업환경시스템부 교수는 "고속철이 들어설 경우 소음 · 진동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고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고 소음 진동 저감대책보다는 노선이나 종착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이영경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산시민의 95.1%가 금정산,천성산 터널에 반대하고 있으며 터널 대안노선으로는 57.2%가 금정산과 천성산을 통과하지 않고 노포동을 종착역으로 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천미희 기자

불교대학 연구활동 강화

불교대학장협, 회칙제정

조계종 불교대학장협의회(회장 정인, 창원 불지사 주지)는 22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사무실을 포교원 및 회장 상주처에 두기로 하는 등 회칙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회칙은 △전문교육기관의 정보화 및 공동사업 추진 △각종 연구회 운영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공동 연수 및 수련회 개최 △교육연구 간행물 및 학술전문지 발간 등을 추진토록 하고, 부설 연구기관과 장학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조계종 비인가 불교교양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공동대표 대은, 한정섭, 김재일)는 19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임원진을 선출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김재경 기자

불교 경전사이트 '세존' 운영난

콘텐츠 무단사용으로, 관리비등 부채 2억



80화엄경 · 법화경을 비롯 불교관련 텍스트를 서비스하는 '세존'(http://www.sejon.or.kr)이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했다.

지난해 5월 '세존'을 개설해 운영해온 성법스님(용화사 주지 · 사진)은 19일 사이트 메인에 띄운 '불교경전 총론 1년에 즈음하여'라는 글에서 '세존'의 허락없이 무작위 링크와 자료 퍼가기가 횡행하는 등 콘텐츠 무단사용으로 재정난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이트 유료화보다 불자들의 보시로 전산화 불사를 이루려던 스님의 기대는 사용자들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 '세존'에 들어가는 월 관리비는 800여만원선이며, 관리비 및 초기 구축비용 등 총 부채만도 2억여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존'은 개설 두 달 만에 재정난으로 폐쇄됐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오픈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현재 6천여 명의 회원들이 공부하는 사이버 강원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매달 들어오는 10만원 안팎의 후원금으로는 사이트를 유지하기가 힘들게 됐으며,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던 성법스님은 지난 3월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성법스님은 "사이트를 개설하며 세웠던 '올바른 불교문화'와 '올바른 신행'을 위한 '불교 전산화 불사'의 장으로 만들 생각이었는데 어렵게 됐다"며 불자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후원 ARS:060-700-1088 후원계좌: 국민은행 251-24-0010-104(예금주 손광민)

강지연 기자

올바른 방생문화 만들자

조계종환경위, 지침서 발간

최근 무분별한 방생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면서 올바른 방생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성타)가 23일 〈방생지침서〉를 발표했다.

방생지침서에서 방생금지 어종으로 꼽은 것은 블루길, 배스, 이스라엘 잉어, 떡붕어, 나일틸라피아 등 14종. 또한 생태계 먹이사슬을 교란하고 있는 붉은귀거북이나 방생을 위해 키워지고 있는 꽃사슴 꿩 등도 방생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방생지침서는 생태계에 위해하다고 해서 범국민적 황소개구리 잡기 같은 무차별적 살생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방생을 제도적으로 연구할 방생위원회의 구성 △헌혈 · 장기 이식, 화장서원 등 새로운 방생 프로그램 개발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의 방생 실시 △환경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불교계의 사형제 폐지운동이나 두레생태기행의 생태기행 등도 새로운 방생 대안으로 제시됐다.

강유신 기자

부산여고졸업생 불자모임

불교동백회 창립

재경 부산여고 총동창회 불자모임인 '불교동백회'가 창립됐다.

18일 서울 잠실 동창회관에서 창립법회를 가진 불교동백회는 7회 졸업생인 회장 조영수 씨를 중심으로 정기법회와 봉사 등 신행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첫 정기법회는 오는 9월 28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갖는다.

이은자 기자

열반종 본산 경복사지 복원키로

내년부터 발굴작업

열반종 본산지로 삼국시대의 대표적 사찰인 전북 완주군 경복사지(전라북도 기념물 108호)가 복원된다.

완주군은 오는 11월 '경복사지 복원을 위한 보덕화상(普德和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발굴 작업을 거쳐 사찰을 복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학술회에는 윤덕향 전북대 박물관장과 서윤길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등이 참가한다.

경복사지는 전북 완주군 고덕산에 위치한 절터로, 고구려가 불교를 배척하고 도교를 받들자 650년 보덕화상이 백제 땅으로 망명하면서 열반종 사찰인 평양 반룡산 연복사를 이곳에 옮겨지었다. 1799년 편찬된 〈범우고〉에 경복사에 대한 기록이 있어 조선 후기까지 법맥이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으나 정확한 폐사 연도는 알 수 없다.

여수령 기자

3일부터 세계 연꽃展

세계의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세계연꽃전시회가 8월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서울종합촬영소내 운당(雲堂)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50여 종류의 연꽃이 전시되며, 연반(蓮飯) 연자죽(蓮子粥) 연엽주(蓮葉酒) 등과 같은 음식을 시식하는 이색체험 시간도 마련된다.(02)3443-2513

한명우 기자

절마당이 축구장, 스님은 감독

'룸비니 꿈나무 축구교실' 창단

어린이 축구법회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새싹불자들의 발끝에 녹아들 불심. 절 마당은 축구장이 되고, 스님은 감독이 된다.

봉선사 주지 일면 스님,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 월드컵홍보대사 가수 김흥국씨, 이들이 새싹불자를 위한 축구교실을 열기로 의기투합 했다. 이름 하여 '룸비니 꿈나무 축구교실'.

25일 서울 동산불교대학 법당에서 축구교실 창단식을 가진 이들은 이른 시일 안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내달 초부터 월드컵 불자 축구스타 사인회 및 걷기 대회 등의 이벤트 행사를 본격적으로 벌인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축구장 학재단을 설립키로 하는 한편, 지역별 꿈나무 축구교실을 운영해 전국의 사찰과 포교당이 어린이 축구법회장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 확산 작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축구교실은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후원자 모집과 ARS를 통한 모금운동을 펼칠 계획이다.(02)722-0108

김철우 기자

마곡사 주지 진각스님

24일 임명장 받아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4일 총무원장실에서 진각스님에게 마곡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정대스님은 "그 동안 주지선거 문제로 불거진 일련의 사태를 모두 털어버리고 교구발전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으며, 진각스님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만큼 본사와 불교발전을 위해 소신껏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진허, 진각 스님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기, 배임, 뇌물수수 협의로 고발한 대전 백제불교단체연합회는 "총무원 청사 앞 시위와 단식 농성, 일간지 기자회견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김원우 기자

"'불음주계' 지키는 불자 얼마?"

김성철교수, 재가자들 파계에 일침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을 불자들은 얼마나 지킬까.

김성철 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격월간 '참여불교' 7 8월호에 기고한 '생활윤리로 정착되지 못하는 계율'에서 재가자들의 '파계'에 일침을 가하며, 계행을 생활화하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결여된 데다, '모든 것은 공하니 선도 악도 없다'는 식의 공 사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계율을 멀리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꼬집은 김 교수는 "계율수행 없이 좌선수행만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사회생활을 하는 재가자들이 불음주계를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지킬 자신이 없으면 수계식 때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계만 받으면 된다"며 〈대지도론〉을 인용해 근거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계행생활화에 대한 대안으로 사찰 수련회 일정을 △번뇌를 가라앉히는 좌선 수행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교육 △수련기간 동안 10선계 수계 △참회기도 △수련회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환계(還戒) 의식 등으로 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동우 기자

결 의 문

대한불교조계종은 일천칠백년의 역사를 이어온 이 땅의 민족종교로서 2천여개의 사찰에서 2천만 사부대중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정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 불교는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깨달음을 향한 수행정진에 매진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신사를 이끌어왔으며, 백두대간으로 내려오는 자연과 더불어 수행환경을 지켜왔다.

최근 각종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해 산과 가람이 파괴되어, 불살생의 위대한 가르침이 실현되지 못하고 수행자들의 정진도량이 훼손되어 한국불교의 맥이 끊어지려 하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전 종도들을 대표하여 조계종 중앙종회와 각 지역의 본말사주지스님들의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수많은 촉구와 결의가 이어졌다.

특히,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에서는 '民族의 靈山과 修行環境을 여법하게 지켜나가는 護法神將으로서 신명을 다하라'는 유시를 내려주셨으며, 이에 전 종도들이 원로회의의 유시 봉대를 위해 실천에 나서고 있다.

우리 교구본사의 주지들 또한 수차례에 걸쳐 각각 결의문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행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의 중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이렇게 조계종단의 입장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표명한 바 있으나, 북한산 관통도로와 경부고속철도의 불교성지 통과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한 삼보일배 등의 안타까운 모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장 첫번째 가르침이며 2천만 불자들의 가장 소중한 계율인 불살생의 가르침을 따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연환경과 민족문화를 지키기 위하여 산과 가람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개발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하는 바이다.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일동은 정부당국과 전 종도들에게 그간의 입장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문제 등 현재의 환경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지혜로 해결할 것을 각계에 촉구한다.

-.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각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관통구간 공사를 중단하고 노선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안노선을 협의하라!

-. 정부는 금정산과 천성산의 생태계와 천년고찰을 훼손하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금정산 통과구간에 대해 불교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을 존중하여 노선을 변경하라!

-. 우리는 산과 가람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하여 교구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발사업을 막아내고 친환경적인 사찰운영을 시행할 것이다.

불기2546(2002)년 7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

(직할교구조계사, 제2교구 용주사, 제3교구 신흥사, 제4교구 월정사, 제5교구 법주사, 제6교구 마곡사, 제7교구 수덕사, 제8교구 직지사, 제9교구 동화사, 제10교구 은해사, 제11교구 불국사, 제12교구 해인사, 제13교구 쌍계사, 제14교구 범어사, 제15교구 통도사, 제16교구 고운사, 제17교구 금산사, 제18교구백양사, 제19교구 화엄사, 제21교구 송광사, 제22교구 대흥사, 제23교구 관음사, 제24교구 선운사, 제25교구 봉선사 주지일동)

연꽃 소담스런 배움의 도량

그 절에 가면

운악산 봉선사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 한글대장경 완간이라는 대불사가 이 절에서 시작됐다. 창건 당시에 비해 사찰의 규모는 작아졌지만 재가자든 스님이든 늘 공부하는 배움의 도량으로, 수도권 시민을 위한 휴식의 도량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안개가 강물처럼 흐르는 광릉 숲을 헤치며 봉선사로 향합니다. 서울에서 한 시간 남짓 거리에 이런 원시의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비만 오지 않았으면 구름도 파랗게 물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봉선사를 둘러싼 녹음의 바다는 질푸른 파도를 일으켜세우고 있습니다.

봉선사. 경기 지역의 으뜸 사찰로,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입니다. 고려 광종 20년(967) 법인 국사가 운악사(雲岳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 하나 이를 입증할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선 예종 1년(1469)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세조의 능침(광릉)을 돌보기 위해 절을 지은 때를 초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커다란 학교같은 절

창건 당시 89칸이었다는 규모나 명종 6년(1551) 교종의 으뜸 사찰이었다는 화려한 과거는 지금 희미한 옛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잦은 전란으로 부침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6·25 전쟁은 1926년에 지은 삼성각과 보물 제397호인 동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극진한 보살핌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큰법당 뒤 석축의 우아함이 그것입니다. 사실 봉선사의 외양은 조계종의 다른 본사급 사찰에 비해 초라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봉선사를 판단하는 건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봉선사의 진면모는 그런 치레에 있지 않습니다. 봉선사는 하나의 커다란 학교입니다. 유치원, 불교교양대학, 불교대학, 경전공부반으로 이루어진 학교 밖의 학교입니다. 유치원이 미래의 부처를 위한 배움의 공간이라면 나머지는 어른의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어른들은 하심을 배우고, 존경을 배우고, 텅빈 마음의 넉넉함을 배웁니다.

봉선사 도량은 언제나 배움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독경 소리와 강사의 목소리가 절묘한 화음을 이루기도 합니다. 모든 전각이 예경의 공간이자 배움의 땅인 곳이 바로 봉선사입니다.

봉선사는 사람을 기르는 도량입니다. 재가자들 뿐 아니라 스님들도 대부분 학인입니다. 39분의 스님 중 14분의 스님은 '능엄학림'에서 공부만이 아닙니다. 남 주기 위한 공부인 만큼, 공부만 한다 해서 허물은 아닐 것입니다. 능엄학림의 대부분 스님들은 다른 절의 강원에서 강사를 하시던 분들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에 투철한 분들입니다.

'큰법당' 한글 편액 효시

봉선사를 얘기하면서 '역경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심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을 모신 법당의 편액을 한글로 '큰법당'이라고 붙여 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글 대장경의 초석을 다지신 운허 스님께서 1970년에 대웅전을 복원하면서 붙인 이름으로, 한글 편액의 효시입니다. 지금도 조계종 본사급 사찰로는 유일합니다.

봉선사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하루 나들이에도 좋은 절입니다. 국립 공릉수목원을 뒤뜰로 삼고 있는 만큼, 하루를 다 바쳐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곧 일주문을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행여 유원지 같은 분위기가 들까 봐 절 들머리부터 부처님의 땅으로 장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왕 하는 일, 길 한쪽을 공릉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가꾼 산책로로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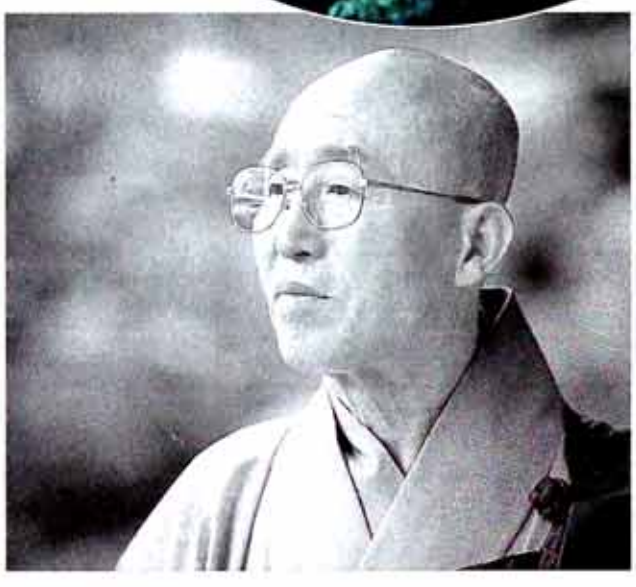
지금 봉선사는 연꽃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절마당 한 바퀴 휘~ 둘고는 '절 구경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논밭 사이로 백련, 홍련, 수련이 각기 독립된 연못에서 소담스런 꽃을 피워놓고 있습니다. 천천히 연못가를 거닐어 보십시오. 절이 어떻게 우리를 안심(安心)시키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安心의 도량

대지는 지금 초록 일색입니다. 초봄의 꽃같은 수줍음도 없고, 가을의 불타는 화려함과도 거리가 멉니다. 맹렬히 푸를 뿐입니다. 너무 푸르러서 핏빛합니다. 그래서 연꽃은 이맘때 꽃을 피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꽃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당장 봉선사로 떠나십시오.

글=윤제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운악산의 얼굴들 **월운스님**

대강백…한글대장경 37년만에 완역

1948년, 18살 되던 해, 무작정 집을 나와서 절로 간 스님. 1950년에 대강백 운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나 은사 스님을 직접 뵌 것은 3년 뒤의 일이다. 한자에 갇힌 대장경을 우리말로 옮기려는 은사 스님의 원력을 보고 출가를 결심한 것이다. 강백으로서의 길은 그렇게 시작됐다.

운허 스님의 뒤를 이어 등국역경원장을 맡아 37년만에 한글대장경을 완간하신 월운 스님. 봉선사의 조실로 능엄학림의 학인들을 이끌면서 강사를 배출하는 일에도 남다른 정성을 쏟으신다.

시멘트 법당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전국에선, 한국불교 건축공예에서 시공되는 사찰건축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 천년대계의 문화유산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한국불교의 시공은 기초부터가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특징
- 가격이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 조립공정으로 간편하여 시공이 빠릅니다.
- 섬세한 조각성형으로 작품성이 풍부합니다.
- 목조건축에 비해 선이굵고 정밀해 우아합니다.
- 화재에 대한 관념서 벗어날수가 있습니다.

사업안내
- 고건축사업부: 콘크리트법당, 요사채, 납골당 콘크리트성형조각 판매.
- 조각내장사업부: 탁자, 닷집, 16나한, 500나한 .
- 무역부: 육불



축
전시장 확장이전
스님 및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불교건축공예
서울 중랑구 망우2동 563-12세영빌딩3층
대표전화:02)494-4890-1